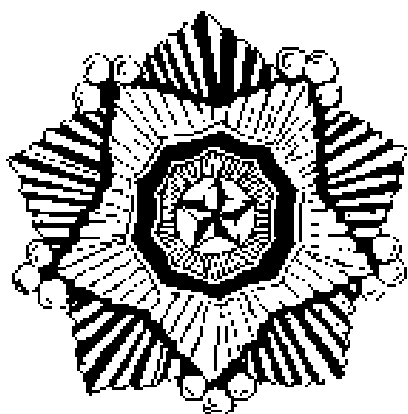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12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12호

(루계 제 674 호)

◇◇◇◇◇◇◇◇◇◇

차 례

◇◇◇◇◇◇◇◇◇◇

송년시	4
나의 총번호	6
오늘이 가면	7
오, 철령(외 2 편)	15
철령의 버들	15
평 화.....	16
소낙비 지나간뒤	16
주체적인 소설문학발전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17
장군님은 전사들과 한전호속에 계시네	19
《영옥이》	20
우리 아버지	20
위대한 령도밑에 장편소설 《1932 년》이 이룩한 수령형상창조의 빛나는 성과	21
우리 집을 지키자.....	24
보이지 않는 돌절구	25
우리 어머님	27

래 일	28
위인칭 송의 화폭과 형상적 매력	40
명언해설	43
고마워라 어머니의 미소	44
어머니의 축복	45
생활과 투쟁의 철리를 밝힌 불후의 명언	46
세월과 개울물	49
퇴성나무	51
힘이 납니다	58
숨결	59
새 아침	61
아침에 대한 생각	69
달과 등판	70
시 한수로	79
노을비낀 대동강반에서	80

송년시

김석주

1

내 인생에서
몇번째 해를 보내는것인가
헤아려보니
짧다고 할수 없는 세월이구나
저물어가는 해여
너와 나 온 한해
눈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며
먼 길을 걸어오면서
뜻깊은 날도 많았고
인상깊은 날도 많았고
정도 깊을대로 깊어졌기에
송년의 이 밤
이리도 생각이 뜨겁구나
많은 해들을 바래왔건만
이처럼 생각많은적 몇번이였더나
누구나 생각이 깊어
하고싶은 이야기도 많아
가는 너를 붙잡고
밤을 새는 거리거리
마을과 마을의 밝은 창문들
한가정이 둘러앉아
한중대가 모여앉아
온 작업반이 모여앉아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은가
온 한해 험한 전선길을 걸으시며
오는 눈 가는 비를 다 맞으시는
그리운 장군님이야기
장군님 다녀가신 초소와 공장
북변의 발전소건설장과 농장마을
전설같은 이야기로
그리움의 노래로
가는 너를 아껴 잠시라도 머무르게 하렘인가
우리 집에서도 자식들이 다 모여
즐거운 이야기끝에
군사복무를 마치고
집에 올줄 알았던 막내의 외아들이
군관학교에 간 자랑이며
자기는 한생 군복을 입고
장군님전사로 살겠다는 이야기 펼쳐놓으니
이 한해가 참으로 뜻깊어지는구나
온 나라 집집마다
웃음속에 바래는 한해
시인인 나는
무슨 말로 가는 해를 바래주랴

어느 시인은 한해를 보내며
눈송이 노래를 불렀고
누구는 아름다운 추억의 해라고
또 누구는
빨찌산해라고 노래했다면
나는 어떤 노래로 바래줘야 하느냐
이 나라 력사에
그리고 내 인생에도
큰 자욱을 남기고
못잊을 추억을 남기고 가는
2003년이여
나라에 경사도 많았더라
인민의 기쁨도 컸더라
경사중의 대경사
기쁨중의 큰기쁨
행복중의 큰행복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그 경사 그 기쁨 그 행복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그리고 자랑높고 긍지높은 한해였다

2

해여진다는것은
언제나 서운한것
더우기 다시 만날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더욱 그리한것
다시 만날수없는
이 해와 헤어지는 이 시각
왜선지 이 해를 처음 만나던
그날을 생각하게 되누나
축복받은 해였다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이
당중앙위원회구호를 받아안고
크나큰 행복 무한한 영광을 누린 해였다
장군님의 축복속에
얼마나 크나큰 승리의 기념일들을
우리 긍지높이 맞이했더나
인민공화국의 승리55년
우리 전승절의 50년
선군시대영웅대회
그 모든 승리의 봉우리우에 빛나던선군시대
영웅대회
위대한 선군승리여
한평생 야전복을 입으시고
빨찌산식행군

빨찌산식야전생활
 빨찌산식공격전으로
 제국주의 원수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언제나 이기시는
 선군장군
 승리장군
 그이 계시여 승리의 기념일들이 있거니
 귀 기울이면
 지금도 들려오지 않느냐
 이 땅에 펼쳐놓으신 금별의 바다
 선군시대의 영웅대군을 키워내신
 영웅중의 영웅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던
 그날의 만세의 환호성이
 지금도 메아리치지 않느냐
 장군님의 사열을 받으며
 무적강군의 열병대오가 천지를 진감하던
 그 도도한 흐름이
 그 폭풍치던 총대바람이
 그것은 온 세상에 보내는
 조선의 웨침이었다 선언이었다
 수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장군님으로 하여 더욱 빛나는
 선군승리를 펼친 2003년이여
 나는 너를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부른다

3

내 인생에서 내 한생 걸어온 나날에
 참으로 보람찬 날과 해를 맞고 보냈더라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의 한생에서 것처럼 경사로운
 대 승리의 기념일들을 본다는것은
 우리 집 처마에 띄웠던
 그 공화국기발
 그날에 불렀던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예순살이 넘은 오늘에도
 변함없는 그 기발을 볼수 있고
 변함없는 그 이름으로 부를수 있고
 변함없는 그 노래를 부를수 있다는것이
 반세기가 넘는 그 세월에
 이 세상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이름
 그 기발
 그 노래를
 온갖 시련과 폭풍을 헤치시며
 선군총대로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 계시여
 더 존엄높이 떨치며
 더 자랑높이 날리며

더 긍지높이 부르며 오지 않았더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승리를 떨치며
 우리 공화국은 영원하리니
 우리 어찌
 감사의 노래 드리고싶지 않으랴
 고마움의 인사 드리고싶지 않으랴
 우리모두 장군님앞에 달려가
 큰 절을 드리련만
 정초에 떠나신 그 걸음
 한해가 다 가는 이 시각에도
 우리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려
 어디 먼 전선길에서
 눈을 맞으시며
 초소의 령길을 넘고계시지나 않는지...
 그리움으로 시작되어
 그리움으로 지나간 한해여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을 합쳐
 부디 안녕하시라
 네가 인사드려다오
 승리의 해로 세월우에 세워주시고
 더 큰 승리의 해를 불러오시는
 어버이장군님께
 부디 건강하시라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드려다오

4

내 지금 창가에 서서
 하늘가 저멀리 사라져가는
 이 해를 바래운다
 한해여, 너 가는곳 어디냐
 바람가고
 구름가는
 하늘가 그 어디냐
 가는 해여,
 정초부터 내 마음은 나래쳐
 장군님 걸으신 전선길을 따라서
 가보리라 생각한곳도 많았고
 장군님께 기쁨드릴 명작을 쓰리라 다짐도 했건만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
 그 마음을 실어보낸다
 실어가다오
 그리고 내게 안겨다오
 승리가 승리로 이어지고
 영웅이 영웅을 낳는 시대
 이 좋은 선군세월에
 어버이장군님 모시고
 나의 소원은
 우리 장군님 전선길 걸음걸음을 따르며
 노래로 그이의 안녕을 위해드리려니
 장군님야전차에 실려오는 새해여

너와 나 친근한 벗이 되어
뜨거운 사랑과 우정으로
온 한해 전선길을 걷자
그 길에 시대의 아름다운 노래

명시도 명가사도 있거니
그러면 잘가라
더 큰 승리를 부탁하고 가는 승리의 해여

나의 총번호

박현철

나에게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
지금도 병사시절 내 이름처럼
외우며 사는
나의 총번호 ×××

흐르는 세월속에
그 얼마나 많은 수자와 부호들이
행복한 나의 생활속을 스쳐갔던가...
허나, 너만은 잊혀지지 않아

군복을 벗었다고
어찌 험하게 너를 잊으랴
원썩들이 퍼붓는
고립과 압살, 제재의 그 모진 줄폭탄에
가정과 일터 어디라없이
보이지 않는 파편들이 박혀있는 이 땅우에서

한순간도
안정과 평화의 숨쉴수없어
손에 쥔것 무엇이든 잡는것마다
복수의 총 아니면 살수가 없어

기초를 파고
총막을 쌓는 건설장에 서면
번개불 일구는 삽이 나의 총
발을 갈고 씨뿌리며
목숨같은 낱알을 거두어들일 땐
이 손에 쥐어진 시퍼런 낫이 다름아닌 나의 총

방아쇠가 있어야만 총이 아니다
총창이 있어야만 총이 아니다
증오가 탕탕 튀는
용수처럼 장악된 이 땅우에선
길가에 흔한 돌도 손에 쥐면 폭탄이요
산천의 무심한 한그루 나무도 이 손이 닿으면
가지마다 서슬푸른 총창으로 떨어라

정녕
칼로 베일수없는 물처럼
나와 내 이름을 가를수 없듯이
병사시절이 끝났다고
이 몸과 나의 총을 가르지 못한다

지구상에 미제가 남아있는 한
더 달리는 못살아

나는 총
총은 바로 나
이 몸은 그대로
살아숨쉬는 복수의 총대

오, 내 다시금
나의 뼈에 새겨넣는다
조국이 나에게 준 혁명의 총번호 ×××

너를 잊으면 너를 잊으면
내 이름을 원썩에게 빼앗기겠기에
어머니 지어준 이름앞에 너를 먼저 세우며 산다
나의 이름처럼, 나의 이름처럼...

오늘이 가면

박운

푸른 꿈 키워준
그 손길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리
...
(현대가요즘에서)

1

그것은 사나운 광풍이 일으켜세운 거대한 은백색 눈보라의 세계였다. 앞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하늘을 쳐다보아도 온통 희뿌연 눈의 장막이 겹겹이 둘러막혀 한낮의 태양마저 짙은 구름 뒤에 얼어붙은듯 뿌옇하다.

그 몸부림치며 마구 뒤채이는 눈보라속의 험준한 령길로 야전승용차는 힘겹게 달리고있었다.

천지를 뒤덮은 눈보라때문인지 굵이굵이 천길 벼랑을 끼고있는 철령도 지금은 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가파로운 령길도 음산한 절벽도 아찔한 계곡도 깊은 눈에 묻혀있다.

길은 눈보라의 설된 틈새로 겨우 흔적이 보일 뿐이어서 운전대를 자칫 잘못 틀었다가는 심연같은 골짜기밑으로 야전승용차가 굴러떨어질판이다. 하늘과 땅, 온 누리가 겨울의 거센 노호소리에 짓눌려 시달리고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명상에 잠겨 눈보라속에 얼어붙은 차창밖의 백설천지인 철령을 내다보시었다.

이제 몇번째로 넘는 철령인가. 다박술초소에 선군의 첫 자욱을 새긴후 이 험준한 령을 처음으로 넘을때 자신의 심중속에 가득찼던것은 무엇이었던가.

사회주의조선을 정의의 총대로 수호하시려는 사생결단의 각오였었다. 철령은 곧 이 준엄한 땅의 전선이였고 그 너머는 최전선이였다.

전사들이 막아서고 일군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만류할 때 자신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던가.

철령, 철령을 넘지않으면 혁명은 멈춰서버릴수 있다는 운명적인 비장감이 심장을 압박했었다.

두어깨에 무겁게 실리는 그 모든것을, 인민들과 전사들을 이끄시고 간고한 이 령에 선군의 자욱을 찍으실 때 무엇을 념원했던가.

허우대가 크고 과묵한 저 당중앙위원회 일군인 문성태가 눈물이 글썽하여 안타까이 쳐다보던 그 시각 자신께서는 무엇을 추억하셨던가.

별안간 심중에 흘러간 60년대중엽, 일군들의 절절한 만류를 물리치시고 분연히 이 철령을 넘어 최전연을 찾으셨던 우리 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이 우렷이 떠오르시였다.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항일의 로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철령남쪽으로 넘어가실수 없다는 신중한 합의를 《결정》한 직후였다.

그 좌석에는 수령님께서도 참석하시였었다.

하지만... 끝내 철령을 넘으시였다. 우리 혁명력사의 한페이지에 수록된, 한 전선병사를 만나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 귀중한 사적도 바로 이 령에서 있는 일이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이 철령을 넘으시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실로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남기시였다.

철쭉이 만발하고 숲이 미소하는 따뜻한 5월이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 험준하면서도 수려한 산천을 차창너머 바라보시며 무엇을 생각하셨을가.

먼후날 우리가 준엄한 선택과 의지의 결심을 품고 분연히 그 길을 다시 따라서게 될것을 예상하셨을가...

항일혁명투사들의 의견을 누구보다 존중하시던 수령님께서 철령남쪽으로 나가신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한 심중한 문제로서 당과 국가지도간부들과 항일의 로투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문제를 놓고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또다시 모여앉아 심각한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면서 심장으로 제일 절절하게 토론한 사람이 다름아닌 혁명의 1세-로투사인 문성태의 아버지였다.

머리를 수그리시고 동지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수령님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뜩이였다.

그것이 수령님께서 철령을 넘으신 력사의 귀중한 자욱이였다.

그 가슴뜨거운 철령을 지금 자신께서는 벌써 여러차례 넘고계셨다.

이제는 일군들도 그 앞길을 막아서지 못했다. 방금전에도 군부대지휘부에서 리평해사령관과 문성태가 주춤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이께서는 험험하신자세로 야전승용차에 오르시였다.

얼핏 뒤를 돌아보시자 리평해와 문성태가 난감한 기색으로 눈길을 떨구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슨 말을 하여 그들의 땃힌 마음을 풀어주고싶으셨으나 그 내색을 하지않으시였다.

지휘부청사를 떠나자 야전승용차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다. 그것은 저르기 무거운것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야전승용차 안전손잡이를 잡으시고 다시 뒤를 돌아보시였다.

문성태의 기름한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 눈길에는 안타까움에 가까운 호소가 짙게 깔려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슴이 뭉클하시였다. 아니 그 무언의 눈빛은 수백마디 말보다 더 절절하고 격렬한것이였다.

이번에는 그이께서 그 눈길에 더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돌려버리시였다.

(문성태동무, 너무 그러지 마오. 나역시 최고사령관이기전에 인간이란 말이요.

그래... 이 길을 우리가 주저없이 내짚지 않으면 우리 혁명이, 나의 조선이 어떻게 된다는것을 과연 동무들이 모른단 말인가...)

두눈을 지그시 감으시였다. 야전승용차의 발동소리와 눈보라우는 소음이 점점 커진다.

아니였다. 격동하는 세월과 더불어 시대도 변하고 인간도 발전했다.

엄혹한 현실과 우리 혁명의 준엄성은 누구든 최고사령관의 간고한 전선길을 막아서는것을 단연코 허용할수 없었다. 이것은 시대와 력사, 혁명이 선택한 피치못할 운명의 길이였다.

가슴속에 고패치는 격렬한 감정과 사색으로 숨결이 가빠지시였다. 문성태와 같은 지도일군들도 저렇진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생결단의 각오를 품고 이 험준한 철령을 넘고있는지 알것인가, 어떤 준엄한 결심을 안고 눈보라치는 전선길을 걷고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알것인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묵중한것이 가라앉는다.

이것이 단순한 전선길인가. 그것은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숨가빠 조여드는 포위환을 피로써 뚫고헤치는 심각한 판가리대결전이고 력사에 류례없는 대용단을 필요로 하는 가차없는 운명의 선택이고 결심이고 실천이였다.

령도자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크낙한 사랑과 의지는 곡절많은 이 나라와 이 행성의 앞날과 굳게 이어진것이고 수천만전사들의 인생에 관한 론쟁였다.

했기에 지금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결심과 사색속에 혁명을 책임지신 무거운 사명감을 더욱 가다듬게 되는것이였으며 더 절절한 애정속에 인민

을 뜨거운 가슴에 품게 되는것이였다.

지금 혹한의 철령을 다시 넘게 되시는것도 최전선의 전사들때문이였다.

며칠전에 만났던 전선동부의 한 부대장인 김무전의 침울한 얼굴표정이 지워지지 않으셨다. 그의 가정주위환경에서 일어난 심상치 않은 변화를 모르는바 아니시였다. 해당부문에 구체적인 임무도 주시였다. 그러나 그 강철같은 사나이는 동생문제로 어지간히 고민에 시달리고있을것이다.

얼마전 군부대지휘관들과 자리를 같이 했을 때 그이께서는 회의실 맨 뒤줄에 머리를 푹 수그리고 앉아있던 김무전에게로 자주 눈길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떠나올 때도 그는 장령들의 뒤에서 머뭇거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전선지휘관들뒤에 서있는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말씀인가 하시고싶으셨으나 그 순간 애써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시였다.

야전승용차에 올라서도 다시한번 걱정에는 눈을 빛내이는 전선지휘관들너머 외파로 떨어져 서있는 그를 측은히 지켜보시였다. 색바랜 장령복이며 눈비에 젖은 외투가 바람에 날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쓰리시였다.

그도 인간인데 왜 마음이 아프지 않고 번거롭지 않겠는가. 하지만 전선지휘관의 마음의 상처와 동요는 그가 맡은 부대의 흔들림을 의미하였다. 전선은 곧 사람들이며 동지들이다. 김무전과 그의 대원들이 걱정되시였다. 했기에 그이께서는 심장이 가리키는 이 길을 주저없이 떠나신것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거운 눈길로 문성태를 돌아보시였다.

《문성태동무, 김무전동무의 동생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이의 신중한 물으심에 문성태의 기름한 얼굴이 불시에 어두워졌다. 그는 피로운듯 눈길을 내리깔며 말을 더듬거렸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각합니다. 해외에 나돌며 국가자금에 손실을 준것도 문제지만 그는... 경제도덕면에서도 변질된 인간입니다. 어제까지 재료해했지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힘들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러니 그를 혁명대오에 다시 세우기 힘들단 말이겠소?...》

《?!...》

김정일 동지의 말씀에 문성태는 아무 대답도 못드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리평해도 속이 옥죄이는듯 굵은 목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손으로 훔치고있었다.

불시에 승용차가 멈춰서고 바람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개를 드시었다.

《왜 차가 멎었습니까?》

《최고사령관 동지, 눈사태에 길이 막혔습니다. 오늘은 어지간히 바람이 세칩니다.》

운전사가 대답을 올리었다.

리평해는 무선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말없는 레의 그 《항의》가 또다시 뜨거운 숨결에서 미쳐온다.

《그렇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야전승용차에서 내리시었다.

눈사태는 회양방향의 아찔한 풍선골짜기를 따라 불의에 터져내린 것이었다.

어느새 연락이 되었는지 선두차 성원들과 관하구분대 병사들이 눈무지를 성급히 쳐내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장군님, 리평해동무의 말을 들으니 시간이 켜결릴것 같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뒤를 돌아보시었다.

허우대가 크고 허리가 구부정한 문성태의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쏟아져나온다.

《문동무, 갈수록 험산이라더니 이번 길은 유별나구만. 눈보라에 눈사태라... 어쩐지 우리를 시험하려는 상징적인 의미가 깃든것 같소.》

그이께서는 미소하시었으나 문성태의 얼굴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다.

《장군님, 래일일정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눈사태현장을 돌아본 리평해가 급하게 뛰어왔다.

《최고사령관 동지, 예상외로 눈사태가 큼니다. 산이 하나 무너져내린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돌아서시여야 할것 같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 일군의 긴장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었다.

《리평해동무, 여기서 김무전동무네 부대지휘부까지는 한참길이지?...》

《예... 퍼그나 먼길입니다.》

리평해는 당황해하며 거리를 말씀드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어깨를 짚으시고 빙그레 웃음을 지어보이시었다.

《그래? 지름길도 있겠으니 우린 천천히 걸지요. 눈보라길을 걷는 맛도 있을거요. 부관동무에게 일러 길이 열리면 차를 끌고 따라서도록 하시오.》

《?...》

김정일 동지께서는 놀라서 마주보는 두일군의 옆을 그냥 지나 먼저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의 심장은 달아오르며 조용히 속삭이고있

었다.

동무들도 참, 한 동지가 고민을 안고 비틀거리고있는 때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우리가 전선을 찾는것이 무엇때문인가, 전선, 조국- 그것은 곧 동지들이다. 동지를 떠나 이 최고사령관이 무엇인가.

눈보라가 일어나 얼굴에 부딪쳤다. 하지만 벌써 령밀이라 그것이 오히려 부드럽게 느껴지시었다. 아마도 뜨겁게 단 심장의 열기때문에 그렇게 여겨지시는지도 몰랐다.

2

김무전은 리만순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어쩐지 힘들어 눈길을 떨구었다.

정치위원의 얼굴은 특징이 없는 평범한 형이였으나 눈만은 저르기 류다른것이였다. 눈동자가 큰 그 눈은 순박해보이고 솔직하고 감정을 은연중 직선적으로 내비치는, 이를테면 맑은 거울같은 것이었다.

김무전은 자주, 때없이 그 눈에 송두리채 비껴드는 자기를 의식하곤 하였다. 그때면 그는 자신을 다잡게되고 주춤거리게도 되었으며 때로는 격분하기도 했었다. 너그러우면서도 과묵한 리만순은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였다.

지금 그 눈을 쳐다보면 자기가, 아니 그가 웅색해하고 피로와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김무전은 리만순이 말없이 내미는 담배를 받아 쥐였으나 피우지는 않았다.

《정치위원동무,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오. 동문 이 걸음이 부질없는것으로 여겨질수 있지만 이제 가지 않으면 영원히 못갈것 같아 그러우.》

리만순이 담배를 피우다 말고 기침을 했다.

《...》

《이 며칠째 계획한 일들은 정치위원동무가 참모장과 협의해서 밀어주시오. 난 기어이... 가야겠소. 참모부동무들이 말은 일이지만... 어쩐지 그 기슭을 다시 밟아보고싶소.》

《김무전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군복을 벗은후에도 자기의 일생에 큰 력점이 찍힌 그 구분대결에 자리잡고 남은 한생을 장군님 오가실 길이라도 닦으면서 고스란히 바치기로 내심 작정했기때문이었다.

김무전은 지난해 장군님을 뜻밖에 모시었을 때 돌부리가 험하여 벼랑을 에돈 고불고불한 길이 비좁아 걸음마다 위구심을 느끼며 가슴을 조이던 그 아픔을 영원히 잊을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 험한길에 야전승용차바퀴가 터져나가 모닥불가에서 밥을 지새우시던 그 험준한 산기슭에는 오중홉7련대칭호를 쟁취하며 꾸려놓은 부대의 훈련장

이 자리잡고있었다.

김무전은 지금 훈련참모들이 담당한 그곳 길따기가 가슴에 맺혀 자신이 직접 나서려는것이다.

리만순은 종시 말이 없었다. 김무전이 차에 오르려하자 들고있던 야전가방을 조용히 내밀었다.

《이건 뭐요?》

아직 새벽어스름속이라 첫 순간 김무전은 그것을 가려보지 못했다.

《부대장동무가 늘 소중히 메고 다니더니 오늘은 잊었더군요. 그리고 변변치 않으나 우리 집사람이 짜준 밥덩이도 있습니다.》

리만순은 힘들게 떠엽떠엽 말을 내뱉었다.

김무전은 떨리는 손으로 야전가방을 받아들였다.

(내가 이걸 잊고 방을 나서다니... 내 마음의 속대가 이렇게도 약해졌는가... 이렇게도 무더졌는가. 이젠 정치위원의 수백마디 말보다 더 큰 비판이다. 아니, 격려다!... 고맙소, 정치위원...)

앞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있던 김무전은 차가 얼마쯤 달리자 흠칫 놀라며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눈가루가 날리는 부대지휘부 정문곁에 리만순이 홀로 우두커니 서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군모를 벗어두고 그냥 서있기만 한다.

김무전은 갑자기 눈물이 솟는것을 억제하며 핵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또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쓰라린 가슴속으로 좌절과 울분의 파도가 견잡을새 없이 밀려들었다. 그것은 아픔의 노도, 격노의 파도였다.

지난해 말 평양체류중에 어쩌다 만났던 군력이 저서 어딘가 생소해보이는 동생의 활기찼던 마지막모습이 아프게 떠올랐다. 긴급한 해외출장준비로 동생의 집은 부산스러웠었다.

광부의 후손답지 않은 동생의 거동을 눈으로, 귀로 마음속으로 아프게 감득하며 김무전은 이마의 주름살을 퍼지 못했다.

동생은 어릴 때의 버릇대로 머리를 약간 뒤로 제끼고 무엇인가 연구적인 자세를 취하며 런던의 안개와 나폴리해안의 이채로운 아름다움을, 이번 출장길의 중대성을 자기 임무의 복잡성과 섞어 듣기좋은 저음으로 이야기했다. 김무전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일식의 호화로운 장식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피와 살을 나눈 친동생의 성량 풍부한 이야기들 억지로 듣고있었다. 전실 저쪽 방에서는 웬일인지 몸이 더 날씬해지고 30대녀인처럼 젊어져가는 제수가 송수화기를 들고 청높은 목소리로 어딘가에 짜증이 섞인 호소와 혼시를 하고있다. 퇴색한 낡은 솜옷을 걸치고 말없이 돼지우리의 구질구질한 바닥에 들어가 씨엉씨

영 거름을 쳐내는 안해와 마주 세우면 나이차이가 한손가락안에드나 사람들이 어이팔격으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문득 김무전의 눈길이 그 품위있는 밤색장식장의 맨 구석단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광부를 형상한 조그마한 목각조각이 소박하게 자리잡고있었다. 김무전은 눈귀가 들리고 마음이 꼭 가라앉는것을 느꼈다. 그래, 영문모르게 가슴속이 풀리고 이름할수없는 뜨거운 진정이 되살아났다. 동생에 대한 때없이 따뜻한 감정이 흐르는것이였다. 애수와도 같은 야릇하고 어쩐지 허전하기도 하고 못건디게 그림기도 한 낯설지 않은 추억이 그 조그마하고 썩 불품없는 목각조각에서 그냥 풍겨오는것이다. 그것은 소년 김무전의 애잡짤한 뜻정이 스민 첫 창조물이였다.

중부지대의 골깊은 광산마을, 작은 실개천과 철쭉이 유일한 자랑인 이름없는 광산마을의 이름없는 소년은 조각가가 될것을 못내 꿈꾸었다.

언젠가 평양참관을 갔을 때 미술박물관의 조각전열대에서 본 화점을 향해 일어서는 영웅의 불굴의 모습이 준 충격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한생을 미술에 뜻을 두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하고 구석진 중학교에 몸을 잠그고 수업시간이면 가끔 교재내용을 까마득히 잊고 미술사에 대하여, 《보천보의 해불》에 대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하여 력설하느라 어쩌나 흥분했던지 하얀 분필을 친 손으로 심장가까이를 세차게 두드려 양복앞섬이 허영게 되여 교실을 나서던 나이 지숙한 미술교원의 열광때문이었는지... 소년은 늘 진흙을 주무르고 손칼로 나무를 깎았다.

군에서 열리는 소박한 창작품발표회를 앞두고 침착한 미술교원은 김무전을 입상후보자로 고르고 수업후면 새로운 미학강의를 장시간 벌리곤 하였다. 아마도 소년의 인내성을 천성으로 잘못 인식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의 꿈은 컸다. 열정도 인내성만 못지 않았다. 오랜 광부인 아버지의 모습을 한달푼을 들여 목각으로 깎아냈다. 《광부의 상》이 완성된 날 저녁 학급 파고철 수집조를 지휘하느라 뛰어다니던 동생이 김무전이가 언제부터 부러워하던 미술신통의 짧은 생을 담은 《이른 해돋이》소설을 끼고 나타났다. 조각품을 자기 책상우에 놓고싶어하는 동생의 안타까움과 꼬임에 형은 결국 손들고 나앉았다. 하긴 창작된 조각이 군인민위원회 교육부가 조직한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해 보이는 창작품발표회에 내놓을만큼 훌륭한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던것이 다....

그러나 그 조각품은 동생의 앓은뱅이책상이 아니라 군문화회관 창작품 전열대의 맨 웃단에 덩실하게 놓였다. 김무전은 학급동무들과 그리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늙은 미술교원과 함께 특등으로 당선되어 중앙으로 가게 된 그 조각품앞에 서서 속으로 환희를 느꼈다. 비록 동생의 이름으로 놓여있었으나 그것은 자기의 첫 창조물이었다....

바늘도적이 소도적으로 된다더니 동생은 40대에 들어서자 자그마한 목각품이 아니라 나라의 재부에까지 손을 뻗었다. 황금흑사심이라고 해외출장길에 큰 어부지리를 얻어가지고 패재를 불렀으나 지금은... 해당기관에서 엄하게 취급당하는 처지에 굴러떨어졌다. 나라가 엄혹한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을 때 제 안속과 사치를 위해 떠돌아다닌 그의 죄는 거의 역적의 죄였고 그것을 멀리 돌이켜보면 이 형이 목인하고 그 싹을 퇴위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람이 어찌 자기 하나만 충실하다고 마음을 놓을수 있겠는가. 동지애의 세계로 굳게 이어져있는 이 사회에서 하물며 피와 살을 나눈 친동생인데야 어디로 빠져나가겠는가. 설사 물리적인 구명수가 있다고 해도 량심의 그물, 눈조리, 그 백광앞에서야 어디 물러설 자리가 있겠는가. 더우기 자주 찾아오시고 곁에 부르시여 혁명군대의 지휘성원으로 품들여 키워주신 우리 장군님앞에 내가 어찌 낯을 들고 서있을수 있는가...

군용차는 새벽의 전선길을 달리고있었다. 김무전은 그 귀중한 야전가방을 품에 꼭 안고 그냥 눈을 감고있다.

장군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술가가 되려는 꿈을 충대로 바꾸고 당의 의도를 리상으로, 포부로 일생 간직하리라 마음다지고 이 길에 나선 제가 동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했는데 어찌 내 조국의 귀중한 한구간을 맡은 저 훌륭한 병사들을 책임질수 있는 위치를 지킬수 있던 말입니까...

전선길에는 또다시 눈보라가 터지였다. 김무전의 내심처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한겨울의 거센 눈보라였다.

3

창공높이 솟아오른 메마른 나무아지우에서 갑하얀 까치 두마리가 들가불며 재게 울었다. 영악한 새들은 무엇이 그리 즐겁고 반가운지 청높은 소리로 그냥 깹깹거린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야전복자락의 눈가루를 털어 내시다가 부대지휘부 언덕너머 멀리에 자리잡고 있는 아담한 건물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저 소학교에 건물이 하나 더 일어섰구만.》

《예, 이 부대에서 지난해 가을에 증축해주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철령을 넘어오시여

전선지구 아이들을 위해 건설하도록 하신 소학교라고 이곳 김무전동무가 되게 원심을 쓰고있습니다. 김무전동무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피아노와 텔레비죤까지 집에서 저 학교에 내갔습니다.》

리평해의 자랑스러운 보고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시였다.

《음... 김무전동무의 딸이 소학교 교원을 한다고 했지...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이곳에 소학교를 세우는데 관심이 많았던 항일투사인 군단장의 이름을 저 소학교에 달아주셨는데 그 전통이 꺾듯이 이어지고있구만. 좋은 일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저 소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중에 공화국영웅들과 우리 군대 지휘관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리평해는 말없이 그냥 서있기만 하는 과묵한 리만순이 못마땅한지 조금 바재이다가 또 한걸음 나서서 말쑥올랐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시고 두사람을 돌아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늘 앞날을 생각하시여 모든 일을 구상하시고 실천하시였다는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래일을 내다보신 그 따뜻한 은정과 지향이 오늘의 우리 공화국의 위력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소학교전경을 부감하시다가 지휘부 앞마당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야전승용차가 가까이 이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휘부청사쪽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소심한 자세로 리평해와 문성태곁에 서있는 리만순을 얼핏 스쳐보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득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서둘러 돌아서시여 그의 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정치위원동무, 아무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대장동무의 사무실이라도 돌아보고 가지요. 우리가 왔다 그냥 갔다면 김무전동무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김무전동무의 방이라도 들리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울것 같소.》

《최고사령관동지!...》

리만순은 눈물이 글썽해서 어쩔줄 몰라했다. 두손을 어디에 건사할지 몰라 찢절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등을 떠밀며 지휘부청사계단을 오르시였다.

겨울해빛이 유난히 밝게 비쳐드는 부대장방에 들어서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예상외로 소박한 사무실구조와 비품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세세히 살펴보시다가 문득 창턱에 놓인 자그마한 오지단지들에 눈길을 박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리만순을 돌아보시였다.

《정치위원동무, 군사지휘관의 방에 저 오지단

지들은 됩니까?)

리만순의 얼굴이 대번에 검붉어졌다.

리만순이 머뭇거리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허허, 저 단지들도 부대의 작전수행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사실은 우리 부대 장동무가 안해와 함께 집에 자그마한 자연온실을 만들고 키운 것으로 김치를 담가 저렇게 차례로 익히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갓김치를 좋아하신다고 어느때 오시든 대접해 드리겠다고...》

리만순은 말끝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였다.

《?!...》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쑥 가슴이 찌르르해오시여 아무 말씀도 못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창덕으로 돌아가시었다.

정히 포장을 한 단지뚜껑을 열어보시려다가 손길을 멈추시었다. 어찌나 정성껏 꼼꼼히 동여맺는지 쉽게 풀릴것 같지않다. 하지만 상긋하고 야릇한 봄냄새 같은것이 풍겨온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벼운 숨을 내쉬시며 천천히 창덕에서 물러나 작전탁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의 눈길이 작전탁우에 놓여있는 흰 종이장우에 가서 멎으시었다. 그 종이장을 드시고 조용히 읽어나가시었다. 그이께서는 의혹어린 눈길로 리만순을 돌아보시었다.

《이건 됩니까?...》

《...》

리만순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김무전동무가 써놓고 간것입니까?》

《부대장동무가 상급당에 올려보내달라고 간절히 제기하는것을 제가... 도로 저 책상우에 놓았습니다...》

《?!...》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 종이장을 한참동안 들여다보시다가 큼직큼직하게 접어 야전복주머니에 넣으시었다.

지휘부청사밖으로 나와 상쾌한 대기를 마시니 한결 답답한 가슴이 열리시는것 같다. 한동안 그렇게 서계시었다. 어쩐지 마음이 썩 안정되는것 같으셨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야전승용차 손잡이를 잡으시며 무거운 눈길로 일군들을 돌아보시었다.

《리평해동무, 아무래도 김무전동무를 만나보고 가야겠소. 정치위원, 앞차에 타고 길안내를 하시오.》

김정일 동지의 불의의 결단성있는 말씀에 리평해는 어리둥절해서 문성태와 리만순을 돌아보았다.

문성태가 재빨리 야전승용차결으로 다가왔다.

그는 절절한 어조로 말씀올렸다.

《장군님, 이제는 시간이 퍼그나 흘렀습니다... 다음 일정이 걱정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김무전동무가 가있는 곳은 적들과 코를 맞댄 최전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나타나도 적들이 되게 경악을 지르군 합니다. 별때처럼 좋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곳입니다.》

리평해는 검붉은 얼굴과 굵은 목이 이상하게 굳어져가지고 간절히 말씀드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사람을 한동안 지켜보시었다. 그결에 후줄근해 서있는 리만순을 바라보시었다. 리만순은 두손을 모아잡고 웅색해서 머리를 깃수그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평범한 어조로 짧게 찍어 말 씀하시었다.

《갑시다!》

하지만 심중으로는 짧지 않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었다.

(가야 하오. 동지가 비칠거리면 전선이 허약해지고 나아가서 조국의 앞날이 흐려져! 국사가 아무리 중대해도 혁명동지를 떠나선 아무런 가치도 없소 동지의 운명이자 이 **김정일**의 운명이고 혁명과 조국의 운명이요. 오늘을 주저하면 래일을 기대할수 없는거요. 가야 하오. 동지들, 이 심정을 알아주시오. 여기에 더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한가!...)

벌써 전선지구에는 때이른 겨울의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4

사람이 생활에서 그 무엇을 갑자기 서두른다면 거기에는 분명 피치못할 꼭결이나 사연이 숨여있기 마련이다. 김무전이 오래전 전선중부에서 구분대장을 할때 정치지도원이 바로 그러했다. 피기없는 강마른 얼굴에 체소한 몸으로 순간도 쉬임없이 관하중대들과 행군길을 앞장서 다니며 화선선동과 선전에 목이 쉬였고 밤이면 뻗뻗해진 다리를 물수건으로 동여매고 새벽까지 무엇인가 쓰고 지우고 옮겨베끼군 했다. 그러고도 훈련의 휴식참이면 그리 즐기지도 않는, 병사들의 주패판에 끼우기도 하고 군의소에 입원한 환자면회를 부지런히 다니기도 했다.

군관들은 가끔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의 열정과 헌신에 탄복하고 스스로들 등을 떠밀리우면서도 머리만은 기웃거리군 했다.

《우리 정치지도원은 왜 저리 서둘러 살까?》

김무전도 때로 머리를 기웃거리는 축에 속하군 했다. 하지만 반년후 전우의 비장한 장례식에서 그 인생의 눈물겨운 《축진경기》의 비밀을 깨달

았을 때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불치의 병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비탄의 침대가 아니라 줄기찬 100미터주로를 택한 것이었다.

그가 발취한 수령님의 로작만해도 수십권에 달하였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는 정치일군으로서의 자기 수양을 인내성있게, 착실히 쌓아가고 있었다. 그는 실로 남들이 수년세월도 할수없는 일을 단 몇달동안에 유감없이 마무리하고 눈을 감았던 것이다.

지금 김무전은 병사들과 함께 훈련장결의 령길을 뒹뒹하면서 바로 그러한 심리-마라손선수가 아니라 단거리선수의 불안을 체감하고있었다. 단순한 단거리선수가 아니라 마라손선수의 거리를 100미터달리기선수의 폭발적인 정열과 속도로 달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렇게 자기 삶의, 군인의 생의 한계점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박두한 것이다.

이미 자기 직무에서 물러설것을 속다짐한 비판서를 정치위원에게 제출한 뒤였다.

그는 언땅에 곡괭이를 박으며 생각했다. 어깨에 무거운 별을 달고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하자,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 다시 이 길을 밟으실지 모른다. 오늘 못하면 래일은 빠져런 후회를 할수 있다. 오늘, 오늘이 좀더 길어주었으면! 래일은 늦다.

곡괭이끝에서 파란 불꽃이 번쩍인다. 그 불꽃에 언땅의 백설이 녹아내리고 등과 목에 땀발이 솟는다.

어둠속에서도 군인들은 자기 부대장의 줄곧 외곶으로만 흐르는 그 모진 속마음을 가늠했는지 말없이 억척같이 일손들을 놀린다. 멀리서 자동차발동소리가 들리는듯 하다가 잊어버렸다. 아마 관하구분대장이 야간작업을 넘려하여 벌써 아침식사를 내온 모양이다.

김무전은 그 파란 불꽃을 일으키는 돌부리에 또다시 곡괭이를 박았다. 강력한 어깨힘에 끌려 모가 몽실한 굳은 바위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래, 부서져라, 너는 이땅에 벽돌 한장 제손으로 쌓지않고도 어부지리를 얻으려했지, 그래서 종당에는 네 갈길로 갔구나. 이 형의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고... 그래, 박살내라. 그 돌덩이를, 그 차갑고 쓸모없는 막돌덩이를, 그래, 인민의 원수가 별다른건가. 무자비한 타격이다. 징벌이다!

문득 곁에서 흙을 퍼올리는 여럿의 삽질소리가 들린다.

김무전은 류다르고 따듯한 채광이 그곳으로부터 비쳐오는것 같은 한 찰나의 신비한 환각과 충격에 이끌려 주춤 허리를 폈다. 그 순간 김무전의 온몸은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리평해며 문성태 등이 조용히 삽질하는 언덕기슭에 **김정일** 동지께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계시었다.

《?!...》

그이께서는 혼연한 자세로 김무전을 바라보시며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뭘 그러오. 병사들이 보겠소. 함께 일손을 맞추지요.》

《최고사령관동지!...》

김무전의 철빛얼굴이 걱정으로 이그러졌다.

《훈련장으로 오르는 길이 이태서 이전보다 험하했구만. 전선길이 도시길처럼 편하더란말이요. 허허허...》

《최고사령관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김무전은 언 곡괭이자루를 총대처럼 역세게 움켜잡으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윽고 허리를 펴시였다. 그이께서는 밝아오는 최전선의 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어, 벌써 새날이요. 좋구만, 한참 땀을 빼니 속이 다 출출하오. 자, 그럼 우리 아침식사라도 함께 하지요.》

새로 수리한 령길밑 잔디밭의 눈을 치고 소박한 야전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병사들과 일군들을 가까이 부르시여 비닐로 포장한 간소한 제기밥들을 나누어주게 하시였다.

김무전이 야전가방을 뒤져 크지 않은 병졸임통을 꺼내는것을 띄여보신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무전동문 무슨 특식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다니나?》

김무전의 컴컴한 얼굴에 한가닥의 밝은 빛줄기가 비껴지나갔다.

《최고사령관동지, 저... 우리 집사람이 만든 갓김치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갓김치통을 받아드시였다.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들여다보시였다.

곁에 앉은 리만순이 눈길을 내리깔고 나직이 말씀올렸다.

《부대장동무는 지휘부를 떠날때면 익은 갓김치를 이렇게 야전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늘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을 문득 만나뵈울수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갓김치통을 드신채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리평해와 문성태도 생각깊은 얼굴로 눈길을 떨구고있었다.

야전식사가 끝나자 겨울의 더딘 아침이 제 모습을 갖추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무전과 함께 최전연의 넓은 잔디밭우를 천천히 거니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전복주머니에서 겹으로 접은 종이장을 꺼내시였다.

그이께서는 김무전을 돌아보시었다.

《김무전동무, 힘들지?》

《...》

《그래, 힘들지. 하나의 큰 부대를 이끌자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요즘 정신적고충이 더 큰 줄 아오.

힘들더라도 견디여 내기요.

험난한 오늘이기에, 우리 혁명의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오늘의 현실이기에 더러 제 안속을 채우며 변색되어 비틀거리게 하는 사람들도 나오거요.

하지만 설사 동생이나 친부모가 반역죄를 짓고 혁명을 배반해 나선다고 해도 함께 먼길을 걸어오며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세한 혁명동지는 우리 곁에서 떨어질수 없소. 아니 이 최고사령관이 그걸 허용 안해! 나는 이미전에 선언했소. 우리는 본인의 충성심과 실력만을 인정하오. 그래 김무전이가 동생이 변절했다고 붉은기앞에서 물러설 사람인가!》

《최고사령관동지!...》

김무전이 오열을 터뜨리며 몸을 떨다가 마침내 김정일동지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시었다. 그리고는 먼 전선하늘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종이를 찢어 바람에 날려보내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큰숨을 내쉬시었다.

《김무전동무, 혁명가의 일생에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 동무의 동생도 이 준엄한 시대를 심장으로 인식하고 새인간으로 동무앞에 나타날거요. 자, 이겨내기요. 병사들이, 조국이 우릴 지켜보고 있소. 우린 오늘을 이겨내야 하오. 지금은 간고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숨죽이고 보고있소.

하지만 래일은 래일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안광을 빛내시며 열정과 희망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희망이 있으면 신념과 실천이 있고 그러한 승고한 삶은 행복한것이다.

힘들게 밝아오는 최전선의 산발너머로 눈부신 아침해가 얼굴을 내밀고있었다. 그것은 밝고 선명하고 엄청나게 큰 황백색 태양이었다.

5

백설의 눈보라가 앞길에 몰아치고있었다.

야전차는 그 장쾌한 눈보라의 거창한 흐름을 뚫고 숨가쁘게 달렸다. 다시 철령의 낮익은 산발들이 차창을 스치었다.

바람이 세차서인지 아니면 구름한점 없는 선뜩 하리만큼 깊고 푸른 창공의 해때문인지 아찔한 계곡과 험준한 벼랑들이 가깝게, 선명하게 눈에 안겨든다. 온통 백설에 뒤덮인 모습이다. 이제 간고한 겨울이 물러가면 이 웅건한 철령의 산악들

에도 진달래가 붉게 탈것이다. 봄시위물이 넘쳐 흐르고 푸른 숲이 대지를 덮을것이다. 산새들이 깃을 찾고 산향기가 천지를 메울것이다. 요컨대 준엄한 겨울의 오늘이 없이 꽃피는 래일의 봄철이 있을수 있겠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밖을 부감하시다가 생각깊은 눈길로 쌍둥이처럼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문성태와 리평해를 돌아보시었다.

《좀 더 가면 수령님의 사적비앞을 지나겠구만...》

《...》

두 일군은 종시 말을 못하고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여보, 리평해동무. 우리가 언젠가면 이 철령이라는 과정을 졸업하게 될가?》

김정일동지의 활달하신 말씀에 리평해의 술진 눈섭밑에서 두눈이 뜻밖의 충격으로 번쩍 빛났다.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이제는 철령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더는 이 철령을...

이제는 만점 최우등의 졸업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졸업증, 철령졸업증이라...》

문득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직한 어조로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사색과 지성이 번쩍이는 눈가에 힘차고 밝은 빛발이 줄기차게 뒤바뀌었다.

《동무들, 이 철령은 력사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령군의 자욱을 남기신 뜻깊은 령이요.

졸업증이라... 그래 받을수 있지. 하지만 선군의 장정은 이제 시작이요. 오늘의 선군의 엄혹한 길은 위대한 백승의 래일을 불러올거요.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오. 방금도 나는 이 철령에 반드시 찾아오고야말 봄날의 진달래숲을 생각했소. 그 래일을 위해서는 최고사령관의 마음이 철령을, 전선동지들을 떠날수 없소. 철령은 곧 사회주의최전선이고 뜻과 정과 생사를 같이하는 전선동지들이 있는곳이요! 그래서 내 이 눈보라의 철령, 붉은 철령을 늘 잊지못해 하는거요.》

《?!...》

사연깊은 철령에 눈보라가,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고있었다.

야전차는 그 눈보라에 묻혔다가는 다시 자태를 드러내며 힘겹게 달리고있었다.

백설의 채광속에 안식을 모르는 겨울새들이 나래를 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억세고 아름다운 한겨울의 창공을 바라보고계시었다.

더 좋은것을 약속해주는 축복의 아침이었다.

오, 철령 외 2 편

리연희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
오 철령
너를 넘나드는이
그 얼마였더나

허나
그 누구보다 많이도 오르신분
누구보다 무겁게
뜨겁게도 오르신분

굽이굽이
아직도 내리지 못한 전화의 날과 날들이
그이의 어깨우에 실렸던가
포화에 옷자락 날리시던 수령님모습
철령우에 그려보시던 장군님심중이어

총포성이 없는 전쟁이었다
시련의 폭풍속에 소중히 붉은기폭을 안으시고
봉쇄와 압살속에 쓰러지는 인민을 안으시고
사생결단
몸소 운전대를 잡고 오르신
철령!

1211고지 351고지
적초소가 번뜩이는
최전선고지로 자욱자욱
천만인민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억척으로 떠안고 오르신
우리 장군님

두손모아 안아보는 너의 흠엔
거룩한 그 심장의 박동이 뛰고있다
내 눈물의 붓으로 다 적시고싶어
목메여 그려안은 너의 푸른 숲엔
승고한 그 숨결이 뜨겁게 설레고있다

50년전 그날
우리 수령님 목숨걸고 오르신 철령
50년후 오늘도
그렇게 오르셔야 했던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오 혁명의 천만리
영원히 오르고 오를
이 땅의 철령이었다!
선군의 령마루였다!

철령의 버들

해빛속에 줄줄이
푸르러 설레이누나
천줄기 만줄기
휘늘어진 철령의 버들

내 떠나온 수도 평양
꽃피는 대동강유보도기 숲엔
즐거운 이 마음에
노래를 주며 행복을 주며
칭칭 휘정이는 버들도 많건만

너는 여기 서있구나
앞에는 1211고지 351고지
아득한 최전선
철바람 불바람을 다 마시며

정녕 너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더냐
너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기쁨이 아니더냐

허나
어제도 오늘도
이 땅우에 수십년
무거웁게 드리운 전쟁의 구름장들을
산산 부시며 치솟은 철의 고지
어떤 광풍에도
추호의 흔들림 모르는
천자루 만자루의 총대가 없다면
천줄기 만줄기

너의 삶은 뿌리채 흔들리리
푸르른 너의 즐기줄기
노예의 치욕에 몸부림치리

너는 서있구나
이 땅 이 가슴속에
영원한 행복의 담보를 새기여주며
령에도 철령우에 너는 서있구나

평 화

좁마다 귀여지는 파편같이
굽이굽이 하많은 목숨을 묻은 령
이 언덕에 또다시 봉분으로 솟은
최전연용사들앞에 나는 서있네

도화의 불비속 전쟁도 아닌 때
원썬들의 도발에
총탄을 맞받아 싸운 영웅들
잠들수 없는 영원한 생
화강석비돌마다 붉은 오각별을 엮고 서있네
군모우에 타는 별처럼

이 땅에 흐르는 평화의 날과 날들을
피로써 붉게도 아로새긴

영웅들의 삶을 읽으며
내 한다발
조용히 꽃을 놓으려니

대돌앞엔 산들산들
춤추듯 날릴듯한
민들레 고운 솜망울!

어려오네
민들레 불어날리던 어릴적동산
따스한 계절 햇빛속에 절로 핀것 아니였구나
서른다섯해
내 자란 화원속에 피어웃던
천만꽃 송이송이...

소낙비 지나간뒤

-금수동중소형발전소건설장에서-

김희중

돌바위를 두드리고
우리 가슴 으르며
세찬 비 쏟아붓던 소낙구름도
굴착기의 드센 팔뚝에 휘저어져
산넘어 멀리 흩어져갔는가

비개인 하늘이
새날의 아침처럼 파란 눈을 떴구나
선바위 벽돌에는
또다시 련달아 나붙는 전투속보

아 얼음지는 강심에 몸을 잠그고
우리 수없이 정날을 갈아대며
기초암반을 찾아냄도
이미 지나간 옛말
홍패한 추억속의 노래

걸음마다 시련의 고비 마주쳐도

제대병사들의 행군길은
언제나 소낙비 지나간뒤
창창 열리는 하늘처럼
푸른 신념 비끼며 이어지거니

비바람이라 솟구치는 지하수이라
우리가 지켜서는 위치는
어디서나 제대를 모르는 전방초소
선군의 총대로 서슬 푸르리진
우리 마음의 푸른 하늘을 무엇이 흐리우랴

높이 솟아오르는 새 언제
래여나는 호수의
아름다운 새 기슭으로 찾아가는 길은
이렇듯 웃음과 랑만으로 차넘쳤구나
언제나 소낙비 지난간뒤
햇빛웃는 맑은 하늘처럼!...

주체적인 소설문학발전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학의 대표적형식인 소설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위에 주체적소설문학의 대화원을 찬란히 꽃피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전반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주체소설문학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주체사실주의소설의 세계적본보기를 마련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소설은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한 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 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소설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는 그이의 비범한 문학적천품과 예지, 정력적인 령도와 다심한 사랑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소설론을 창시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오래전부터 문학의 형태로 존재하여온 소설문학은 각이한 론의와 류형을 낳으며 제나름의 길을 걸어왔다. 선행한 소설리론들에서는 그의 특성을 흔히 흥미라고하였는가 하면 인생을 그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소설작품의 3대요소를 강조하면서 첫째로 인물, 둘째로 줄거리, 셋째로 배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이 모든 리론들은 소설문학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확한 규정으로는 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시기 소설작품과 소설리론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소설문학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면서 주체소설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완성하심으로써 소설문학의 특성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장편소설로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몸소 이끄시면서 소설이 가지고있는 형상적우월성을 밝히시고 소설의 특성을 옹계 살리기위한 창작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소설문학의 고전적본보기를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편소설 《축원》의 창작을 포치하고 지도하신 령도과정은 소설문학의 특성을 해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70년대에 태성할머니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를 보시고 원래는 그를 원형으로 한 소설이 영화보다 먼저 나왔어야 했다고 하시면서 좋은 영화를 만들자면 좋은 소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다. 그리고 영화가 먼저 나온 조건에서 태성할머니에 대한 소설을 쓰는것이 좀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쓸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그이께서는 태성할머니에 대한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과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의 정을 깊이있게 그리면서도 장편소설 《땅》에서와같이 구수한 흠냄새가 나게 쓸수 있기때문에 그 소설을 잘 쓰기만 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에 아주 좋을 것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태성할머니에 대한 소설에서는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의 테두리를 벗어나 생활을 폭넓게 전면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에서는 할머니와 그의 가족들의 해방전후 생활을 다 보여주지 않았기때문에 잘 탐구하면 소설로 전개할수있는 생활이 많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소설에서 할머니선, 맏아들선, 둘째아들선, 며느리선을 잘 전개하면서 그들사이의 애정선을 깊이 파야 하고 반당반혁명분자들의 행동선을 영화에서보다 넓히고 그들과 인물들사이의 갈등도 더 첨예하게 제기하고 해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태성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창작에서 영화와는 다르게 소설의 특성을 살려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형상적문제들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6개월동안에 소설이 창작되었을 때에도 몸소 보아주시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지향과 념원을 소설적인 특성을 살려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장편소설 《축원》은 영화의 테두리를 벗어나 주인공의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조선녀성의 강의한 의지를 생활과 밀착시켜 잘 그리고있다고 하시면서 그 실례까지 드시었다.

장편소설 《축원》에서는 태성할머니가 현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은하강가 개건공사장에서 만나뵈옵고 수령님의 젊고 름름한 모습에서 힘을 얻는 세부를 매우 인상깊게 묘사하고있다. 이런 잊을수 없는 묘사가 있었기에 그로부터 10년후에 태성할머니가 선거장에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뵈웠을 때 수령님안색이 몹시 축간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구저찌구해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는가고 말씀올리는 장면이 소설의 특성에 어울리게 진실하고 감명깊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문학의 모든 형상수

단과 수법들을 동원하여 현대소설의 특성을 잘 살린 장편소설 《축원》의 사상예술적성과를 리론적으로 심오히 분석해주시으로써 작가들에게 소설문학의 본도를 옳게 이해하도록 하시었다.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적문예리론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1월 20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시어 주체소설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주체소설문학을 시대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소설문학의 특성에 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그것을 완전히 새롭고 완벽하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설문학의 특성은 문학의 모든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는데 있다고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오늘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는 형상수단은 언어, 구성, 인간관계, 이야기줄거리, 사건, 갈등, 일화, 세부, 일반화와 개성화 등 매우 풍부하다. 문학의 기본형상수단은 언어이다. 언어를 가지고 그려내지 못할 인간성격과 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어의 무제한한 표현능력은 문학의 어느 종류에서나 가능한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직 소설문학만이 묘사와 대사, 주정토로와 설명같은 형상수단을 전면적으로 리용하여 언어로 표현할수있는것은 다 그려낼수 있다고 밝혀주시었다.

소설에서는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물론 내면심리와 뒤생활도 마음먹은대로 보여줄수 있으며 시공간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인간생활의 전모를 그려낼수 있다. 소설에서는 여러 수법과 문법수단들을 전면적으로 리용하여 생활이야기를 생동하고도 구체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엮어나갈수 있다. 또한 개인생활로부터 큰 집단생활에 이르기까지 현재생활뿐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제한을 받지 않고 끝없이 전개하여 그려낼수 있다.

이와 함께 기본형상수단인 언어뿐아니라 다른 중요한 형상수단인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예리화시켜 쓸수 있으며 일반화와 개성화의 수단도 끝없이 풍부하게 리용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설문학의 이러한 특성을 완벽하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설문학의 특성은 묘사를 기본으로 하고있는데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소설을 극문학처럼 대사만 읽어도 이야기흐름을 알수 있게 써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서 소설에서 대사가 중요하고 또 많이 쓰이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본형상수단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소설에서는 주로 묘사의 련결로 이야기가 흘러야 하며 대사나 주정토로, 설명은 거기에 보충적인 작용을 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심리묘사라고 하시면서 인물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이는데서 기본은 사색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인물의 사색과정을 잘 묘사하여야 성격의 본질적특징과 사고방식을 집중적으로 그릴수있다. 초상묘사와 성격묘사, 행동묘사 등의 인물묘사나 사건묘사 자연묘사 등의 환경묘사를 통해서도 인물의 심리나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볼수 있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는 인물과 작가자신의 심리가 비끼고 그들의 사상감정으로 물들여지고 정서적평가에 의하여 굴절되어야 소설문학의 특성에 어울릴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인물을 그리는 환경을 그리는 세부묘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설문학의 특성은 또한 이야기의 문학이라는데 있다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류문학사를 보면 그 어느 나라에서나 소설은 이야기형식의 작품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디까지나 소설에서 일정한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을 보여주고 생활을 펼쳐나가는 점은 어길수 없는 약속으로 되었다고 가르치시었다.

소설에는 반드시 일정한 문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문학적인 이야기는 인간과 인간생활에서 흥미있고 의의있는 이야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소설의 이야기흐름은 사람의 마음을 조였다풀었다 하면서 매혹과 감동의 련속으로 견인력있게 엮여져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설의 이야기는 빈틈없는 감정조직을 타고 흘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이 일치되어 이야기가 흥미있고 의의있게 흐른다는데 소설문학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소설문학의 특성을 완벽하게 밝혀주셨을뿐아니라 소설문학의 형상생리에 맞게 작품을 창작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주체적인 소설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시었다.

문학의 생리란 형상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서로 조화시키고 살아 숨쉬게 하며 생활을 그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진실하게 재현하는 원리이다. 소설창작에서 형상창조의 생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형상을 죽여버리고 생활과 성

격을 외곡하게 된다. 소설창작에서 주관적의도는 소설작품의 생리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

소설문학의 생리는 무엇보다도 종자를 옹계 쥐고 거기에서 형상을 아름답게 꽃피우는것이다.

작품이 훌륭하게 되자면 반드시 똑똑한 종자가 있어야 하고 그 종자로부터 이야기의 줄거리가 뻗고 형상의 꽃이 피어야 하며 그속에서 주제가 여물고 사상적내용이 심오하고 뚜렷하게 부각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작품의 생리적과정인것이다.

지난시기 형상의 기초를 이루어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방향짓고 이끌어나가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래동안 논의를 하면서 옳은 해명을 보지못하고 소설을 쓰다보니 알맹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었다. 소설작품이라는 하나의 산 유기체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작품을 쓰다보니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을 갖춘 명작들을 내놓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로 작품의 종자를 역사상 처음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하여 종자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주체문학건설과 소설발전력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종자론을 처음으로 받아안게 된 우리 작가들은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올리면서 그것을 받들고 소설문학의 형상생리에 맞게 열정에 넘쳐 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창작한 작가에게 종자리론을 깊이 인식시켜주심으로써 소설창작의 생리에 맞게 창작의 깃을 펴도록 날개를 달아주시였다. 작가는 수령님께서 골라주신 소재를 안고 평양시건설자들속에 들어가 생활체험을 하면서 작품을 써나갔으나 온전한 제목조차 달지 못한채 끝머리만 앓고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종자론을 받아안은 작가의 머리속에는 번개불같은 섬광이 번쩍이였으며 장편소설의 제목도 종자가 그대로 담긴 《평양시간》이라고 달고 창작을 줄기차게 내밀수 있었다.

장편소설 《생명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종자론의 해빛을 받아안고 훌륭히 피어난 명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생활론리, 성격론리를 따라가면서 인물성격을 잘 그리는것이 소설문학의 생리라고 가르쳐주시였으며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이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한 훌륭한 작품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소설문학을 주체의 요구대로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탐구와 사색, 탁월하고 세심한 지도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구성을 작품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을데 대한 문제, 세부묘사를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창작에서 나서는 미학실천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참으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적인 소설문학발전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선군혁명문학의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가사

장군님은 전사들과 한전호속에 계시네

심재훈

비내리는 그날에는 오성산전호속에

바람세찬 그날에는 해안가 포진지에

백두의 전법과 지락을 펼쳐주시며

장군님은 전사들과 한전호속에 계시네

천리방선 전호속에 사랑을 남기시고

하늘가의 비행대에 믿음을 보내시네

백두의 뜨거운 동지에 부어주시며

장군님은 전사들과 한전호속에 계시네

설날의 아침에도 최전연전호속에

12월 저녁에도 전선길 수만리에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키워주시며

장군님은 전사들과 한전호속에 계시네

《영육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몇해전 4월 중순 최전연에 있는 어느 한 중대를 찾으셨던 날에 있는 일이다.

언제나 병사들속에 계시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그이께서는 이날 일군들과 함께 중대 교양실에서 군인들이 출연하는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공연순서에 따라 녀성독창과 합창 《나는 알았네》가 시작되였다.

독창을 하게 된 한 녀성군인이 먼저 이런 시를 읊었다.

나는 월미도의
영육이와 꼭 같은 나이의
총천 병사
경애하는 장군님의 딸입니다
하기에 저는 조국은 곧
장군님의 품이라고 노래하던
월미도의 영육이처럼
살며 싸우렵니다

이어서 녀성독창과 합창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평범한 녀성군인이 부르는 노래를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중대예술소조공연이 끝나자 군인회관으로 가시면서 일군들에게 부대에서 모

두 예술소조공연을 잘한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특히 녀성독창과 합창 《나는 알았네》에서 독창을 하는 녀성군인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그는 얼굴모습도 예술영화 《월미도》에 나오는 영육이와 비슷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그 동무의 집이 어디인가, 언제 입대하였는가에 이르기까지 물어보시며 세심한 사랑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받은 일군들은 독창을 한 녀성군인의 얼굴을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이 과정에 그의 눈매를 비롯하여 얼굴생김에서 예술영화 《월미도》에서 나오는 영육이와 비슷한 점을 뒤늦게나마 찾아본 일군들은 그이께서 지니시고 계시는 높은 관찰력과 함께 병사들에 대한 다심한 사랑에 자못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와 같이 병사들의 작은 재능도 크게 보시며 하나라도 더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극진한 어버이심정으로 이 녀성군인을 온 나라가 아는 《영육이》가 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군인들모두에게 예술영화 《월미도》의 영육이처럼 빛나게 살 때만이 조국의 기억속에 영생한다는 참된 삶의 진리도 동시에 되새겨주시였다.

가사

우리 아버지

정룡순

눈내리는 설날부터 한해가 저물어도
전선길에 계신날 많으신 아버지
굽이굽이 험한 령 오늘도 걸으시며
사회주의 큰 집을 총대로 지켜주시네
아 우리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간다 했건만
이 나라 천만자식 찾아가는 아버지
야전복자락으로 찬바람 막아주며

주시고 주신 사랑 더더욱 많고 많아라
아 우리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만나주신 아들딸 제일 많은 아버지
기다리는 아들딸 제일 많은 아버지
혁명의 세대는 대를 이어 바뀌여도
길이 받들 아버지는 이 세상 한분이라네
아 우리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령도밑에 장편소설 《1932년》이 이룩한 수령형상창조의 빛나는 성과

방형찬

선군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활발히 창작되는 총서작품들을 볼 때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1932년》을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 장편소설 《1932년》 [권정웅 작 주체61(1972)년] 이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작품으로 태어난 때로부터 어느덧 30여년이 흘러갔다. 장편소설 《1932년》은 그동안 커다란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였으며 수령형상소설문학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주체문학건설에서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을 문학의 기본전선으로 정하고 거기에 당적지도와 창작력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장편소설들을 모두 총서 《불멸의 력사》체계에 포괄시킬수 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장편소설 《1932년》의 창작을 통하여 총서작품창작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1932년》의 창작목적과 창작방향을 바로잡아주시고 작품초고가 나왔을 때는 못내 기뻐하시며 것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작품완성에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대하여 작품의 장면과 페이지를 지적해가시면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1932년》은 총서 《불멸의 력사》창작에서 선구적작품으로, 주체인간학의 본보기작품으로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다.

장편소설 《1932년》이 주체인간학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고있는 본보기작품으로 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의 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래전에 자주시대의 문학은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의 인간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의 무기가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주체의 인간학이 자기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혁명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한 작품창작에 큰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한 이러한 혁명적인 작품들의 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사람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확고히 무장할수있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며 그 위대한 풍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된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장편소설 《1932년》이 가지는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1932년》이 거둔 사상미학적성과는 오늘 선군혁명문학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를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는 데서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편소설 《1932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역사적사건, 사실에 기초하여 형상세계를 펼치고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켜준다.

그것은 주체21(1932)년 한해동안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로정과 가정에서 제기되는 겹쌓인 시련들을 이겨내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첫 년류를 감아올리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풍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준 위인형상에 대한 매혹때문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남다른 인간적풍모를 지니고 계신다. 작가는 수령님의 혁명활동과정을 깊이 연구하고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인간적풍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1932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수천리에 걸치는 간고한 첫해 원정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거목을 이룬 한 돌기의 년류를 감아올리신 주체21(1932)년의 역사적사실들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장편소설의 초고를 보시고 사상적대가 서고 형상수준이 높으며 생활들이 진실하다고 평가하여주시었다.

이 장편소설이 높은 형상수준과 진실한 생활반영에서 이룩한 높은 성과의 하나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는 문학적줄거리를 1932년에 있었던 실재한 역사적사건과 사실들에 기초하여 탐구한것이다.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에는 사건과 함께 일화와 생활세부, 인물의 심리와 경력도 포함된다. 문학적인 이야기줄거리는 이러저러한 사건의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생활의 필연적인 연결과정으로서 형상의 대를 세우고 그 진실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작가는 창작과정에 실재한 역사적사건과 사실에 의거하면서도 형상의 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문학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새롭게 탐구하여야 한다.

더우기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예술적화폭으로 반영하는 총서작품창작에서 감동적인 문학적이야기줄거리를 탐구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다. 그것은 문학적인 이야기줄거리가 실재한 역사적사건과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심장으로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장편소설 《1932년》은 항일유격대창건이후 1932년의 원정로정과 그 과정에 있었던 역사적사건, 사실들을 취급하고있지만 그 라렬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이야기줄거리로 엮여져있다.

끈골 《토벌》사건, 이어 파견원들의 회의, 일본놈마차수송대에 대한 습격전투, 천상대기에서의 생활이야기, 통화에서 독립군과의 담판, 최창걸이 희생된 류하에서의 생활이야기, 다시 량강구에서의 회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정에 앞서 소사하집을 찾으시는 이야기, 푸르허마을에서의 생활이야기, 로혹산오지에서의 간고한 투쟁과 차광수의 최후, 마로인의 도움으로 적들의 포위를 뚫고 나가는 이야기들은 심오한 사상미학적의미를 더해지면서 한줄기의 문학적이야기줄거리로 엮여지고있다. 그리하여 이 소설의 문학적이야기줄거리는 역사문헌적의의를 가지는 수령형상작품의 생리에 맞게 역사적사건과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그 평면적라렬을 극복하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할 창작목적에 맞게 조직되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아버지수령님께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이 그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디디었으며 간고한 무장투쟁로정과 가정에서 제기되는 겹쌓인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시였는가를 알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거목으로 자라게 될 항일무장투쟁이 어떻게 첫 년륜을 감아올렸는가 하는 창작적의도가 선명하게 안겨온다.

장편소설 《1932년》은 문학적이야기줄거리를 통하여 형상적대를 튼튼히 세웠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펼쳐보여줌으로써 심리분석의 예리성과 철학적심오성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1932년》의 초고를 보여주시면서 대사와 문장을 더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적으로 충분히 다듬는데 대하여, 가정생활을 묘사하는데서 소설작품인것만큼 어디까지나 사실주의적창작방법에 의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진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격식화된것을 극복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격식화하지 말며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이 지침을 무기로 작가는 생활의 대하에 뛰어들어 아버지수령님의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면서 장군님께서 지적해주신 장면들을 수정완성하여나갔다.

인정이 넘쳐흐르는 정다운 소사하집장면, 어머니의 분묘앞에 동생들과 함께 서계시는 장면, 로혹산의 산전막장면들이 한결음한결음 진실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품은 아버지수령님의 형상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지만 평범한 인간으로, 어머니앞에서는 정성이 지극한 아드님으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었다.

작품에 펼쳐진 형상세계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켜준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체험하시는 내면세계를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여준데 있다.

일제의 《토벌》만행으로 빚어진 현상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내면적체험세계에 대한 심리묘사와 남만원정에 앞서 소사하집을 찾으시였을 때 앓고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여 집둘레를 돌고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는 한 가정의 운명, 민족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으로 심오한 철학적사색을 불러일으키는 화폭들이다.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에 대한 예리한 심리분석으로부터 일제놈들의 만행으로 어머니를 잃은 영희를 한몸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남다른 인간적품모, 칠성이를 어엿한 유격대원으로, 혁명가로 키워나가는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세계, 최창걸의 희생, 차광수의 전사를 두고 못내 통분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 로혹산오지에서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위할 대원들의 비장한 토론을 들으시고 체험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리묘사, 이것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대한 진리의 세계로 승화된다.

작품은 첫 시작부터 마지막장면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주옥같은 심리 묘사로 일관되어있으며 그것은 강렬한 서정성으로 진하게 채색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적체험세계에 대한 예리한 분석, 장면마다에 흘러넘치는 낭만적서정은 그자체에 머물지 않고 독자들의 심중에 커다란 격동의 파문을 안겨주며 심오한 철학적사색으로 초점을 몰아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이 지닌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의 무한대한 원천이었으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바탕이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적체험세계에 대한 예리한 심리분석과 묘사를 통하여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한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음을 감동깊은 형상화책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은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관계를 믿음과 충성, 사랑과 보답의 관계로 맺어놓은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인간적품모가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이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전설적영웅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정중히 모시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한것이다.

작품은 동기원정의 길에서 푸르허마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그리고 있다. 얼마전까지 이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시던분이, 우물길의 얼음도 까주신 동네의 굶은일, 마른일을 다 하시던분이 흰 룡마를 타시고 유격대대장이 되시여 마을에 들어서시는 모습은 실로 전설적위인의 품모 그대로이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흠모하고 높이모시는 푸르허마을 사람들의 형상세계를 이채롭게 그리고있다. 더우기 푸르허마을사람들을 사랑과 인덕으로 감화시키며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에 대한 형상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는 전설적위인에 대한 진실한 화폭이다.

1932년의 시련은 하늘이 내 전설적위인이 아니면 도저히 극복할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18명의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엄동설한의 로흑산오지에서 적들의 2중 3중의 포위에 들었을 때는 정녕 조선혁명의 운명을 두고 가슴조이지 않을수 없는 정황이다. 그러기에 대원들은 비장한 최후를 각오하고 오로지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전으로 나가려 한다.

그러나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위한 방도를 모색하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전광석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동무들이 다 결사대로 나가서

죽어버린다면 조선혁명은 결국 누구와 하라는것인가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대오를 유지하면서 이 난국을 뚫고나갈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그를 일깨워주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산전막주인 마령감과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천리혜안의 예지로 적들의 포위진의 공백을 발견하신다.

작품에서는 사령관동지의 품모를 마령감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마령감은 고개를 들고 물끄러미 김일성동지의 서글서글 웃고계시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옛날책에 나오는 얼굴이 관옥같고 새별눈에 붉은 입술을 가진 영웅호걸이란 이런분을 두고 하는 말이었던가? 설혹 그렇기로서니 수만적군의 포위속에 든 외로운 장수가 어찌 이리도 눈섭하나 까딱않고 태연자약해있을수가 있는가?》

전설적위인으로서의 아버지수령님의 남다른 인간적품모는 푸르허마을의 전설, 로흑산오지의 마로인의 시점을 통하여 그리고 강반석어머님께서 회상하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에 있는 신기한 자연현상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더욱 감동깊이 안겨온다.

강반석어머님께서서는 림종을 앞두고 혼자 있고 싶으시였다. 그리고 만경대의 그날로 생각을 달리신다.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그해의 봄소나기였다. 그전날부터 검은 구름장이 물리더니 번개를 일구면서 갑자기 새벽부터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졌다. 번개 그리고 잇따라 울리는 요란한 천둥소리, 만경대 아래쪽에서부터 거슬러오른 회오리바람, 순화강의 요란한 물소리, 새날 4월 15일, 아직은 미명이었다.

우뢰소리가 한바탕 지나고 다시 캄캄한 밤하늘을 쪼개며 빛을 낸 순간 초가집에서 한마디 고고성이 울리였다. 우뢰소리를 짓누르며 울리는 우렁찬 울음소리!

구름장사이로 자그마한 틈이 생기더니 그 사이로 알릴듯말듯 희미한 빛이 내비치였다. 이어 찬란한 해돋이가 시작되였다.

얼마나 장쾌한 봄소나기이고 얼마나 기이한 자연현상인가!

아버지수령님의 탄생일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는 전설적영웅으로서의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더욱 감명깊게 우러르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남다른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하여 아버지수령님을 화폭의 중심에 모신 문학적이야기줄거리의 탐구와 사령관동지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리분석의 예리성과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한 성과,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사령관동지의 위인적품모에 대한 진실한 형상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이 달성한 특별히 두드러진

사상에술적성파이다.

이 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작품이 거둔 성과를 모두 작가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편 소설 《1932년》의 소사하집장면은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작가의 풍부한 예술적환상에 의하여 당시의 생활을 매우 실감있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품을 보아주시면서 소사하집장면같은것을 사실그대로 잘 그릴수 있는 것은 작가들이 그때의 현실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에 감동되어 형상적환상을 펼치고 현실을 그렸기때문일것이라고 분에 넘치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는 작가의 립장과 태도가 창작에서 진실성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

요하다는 진리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깊이 연구하고 그 진수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에 감동된 녀과 심장으로 모든 정열을 쏟아부어 예술적환상의 나래를 펼때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력사적사실과 일치하게 형상할수 있으며 수령님을 위대한 수령으로서만 아니라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로 감명깊게 형상할수있다는것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의 사상에술적성파가 보여주는 귀중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자로 하여 수령형상문학의 전성기를 계속 빛내어나가는 것은 오늘 선군혁명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중심고리이다.

수령형상창조를 주체문학건설의 핵으로 하는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선군혁명문학의 혁명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집을 지키자

(총련) 김학렬

동포들아
집을 지키자
우리 집을 지키자

웬 구두발이나
우리 집문을 바스려든다
웬 《수색》바람이
우리 집을 휩쓸려 한다

우리 집을
우리 힘모아 지키자
하나되어 바람을 막자

공들여
우리 지은 크고도 몇몇한 집
집없던 쓰라림이 몸에 배였기에
우리 힘모아 지은
귀한 우리 집

맨손으로 쌓고 쓰다듬어
지성으로 꾸리고 이루어온
우리 집, 우리 트랙의
그 모든 재물들을 망가뜨리려든다

오늘의 우리는
나라 뺏기여도 그저
울부짖고 떠돌아다니기만 했던

그런 옛적 나그네가 아니다

갖은 못된 욕설을 듣고도
그저 애간장 태우면서 참기만 했던
그런 지난날 당국민은 결코 아니다

저들이 저질러놓은 큰 죄파에는
씩 입다물고 모른척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탓한단 말이나

인디아양너머에도 일장기 휘날리고저
대일본군국나발 다시 불고파
그 옛적 총칼풍랑을 방불케 하는
오만무례 대낮의 탄압바람이란 말이나

우리 집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진다
어찌 호주머니에 두손 박고
남의 일처럼 결눈질만 하라
우리 손과 손 맞잡고
일심단결의 담장되어 바람을 막자

동포들아
집을 지키자
우리 힘모아 집을 지키자
우리 하나되어 광풍을 막자

보이지 않는 돌절구

1980년대가 저물어가던 어느해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서해안지방의 공장과 농촌들에 대한 현지지도로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랜만에 금수산의사당으로 돌아오고 계시었다.

수행한 일군들은 날씨가 덥고 점심시간도 지났는지라 곧장 옥류관으로 가실것을 수령님께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 다른 말씀이 안계시자 차는 룡흥네거리에서 곧바로 개선거리쪽으로 달려 어느새 종로네거리를 지나 옥류관으로 꺾어들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갑자기 차를 멈추라고 하시었다.

《안되겠소. 차를 돌리시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까지 가면 옥류관일군들이 얼마나 바빠하겠소.》

밖을 내다보니 정말 옥류관 앞마당은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수령님, 일없습니다. 따로 한방을 내면 별로 지장이 없을것입니다.》

부관이 이렇게 말씀드렸으나 그이께서는 머리를 저으시었다.

《아니, 안되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오. 어서 차를 돌리시오.》

차는 할수없이 금수산의사당으로 돌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차가 의사당정원에 들어서자 수령님께서서는 부관에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는 이제 녀동무들을 데리고 옥류관에 가서 국수를 받아오시오. 내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하지 말고 줄을 서서 표를 떼고 받아오시오.》

부관을 떠나보내신 수령님께서서는 동행했던 일군들과 함께 시원한 나무그늘밑에서 산보나 하라고 하시면서 정원길을 걸으시었다.

《국수는 참 좋은 음식이지.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이 매우 즐겨먹는 음식이요. 보시오. 오늘 옥류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그래서 나는 전후에 없는것이 많았지만 국수를 비롯한 민족음식을 전문으로하는 옥류관을 짓도록 하겠소. 그 옥류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걸 보니 내 마음이 기쁘오. 동무들도 국수를 좋아하오?》

《예, 좋아합니다.》 일군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답을 올렸다.

《하긴 조선사람치고 누가 국수를 싫어하겠소. 나도 국수를 매우 좋아하오. 항일빨찌산시절에도 조건이 어려웠지만 명절에는 국수를 즐겨먹는

때가 많았소. 특히 김정숙동무가 사령부작식을 말아보면서부터는 더 자주 먹었소. 김정숙동무는 내가 국수를 좋아하는줄알고 통강냉이밖에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 국수를 만들어주곤 하였는데 참으로 별맛이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정숙동지께서 국수를 만드시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작식대일을 말아보시면서부터 신기한 일이 자주 생겨나곤 하였다. 눈이 강산같이 쌓인 밀림속 행군길에서 파란 산나물채가 나타나는가 하면 난데없는 버섯찬이 식탁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끼니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모두 걱정할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이 문문 오르는 죽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였고 화식기재가 없을 때에도 밥을 맛있게 지어 대원들을 놀라게 하시었다.

유격대원들이 김정숙동지의 손을 두고 《보물손》이라고 불렀고 그이의 배낭을 두고 필요할 때엔 무엇이든 척척 나타나는 《보물배낭》이라고 불렀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것은 국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수를 좋아하신다는것이 알려진 다음부터 김정숙동지께서는 통강냉이밖에 없는 속에서도 어느 겨울에 가루를 마련하시는 지 국수를 놀려 식사를 차리는것이였다.

어느날인가는 그이께서 꺼내놓은 크지 않은 자루에서 강냉이가루를 몽땅 털어내여 국수를 누른 적이 있었다. 자루는 빨아서 말리웠다고 할 정도로 깨끗이 털어서 김정숙동지께 돌려드리었다.

그때부터 며칠간은 전투와 행군으로 잠시간의 휴식도 없이 흘러갔다. 그런데 며칠만에 숙영하게 되었을때 김정숙동지께서 내놓으시는 그 자루에는 보드랍게 봉은 강냉이가루가 또 들어있어 대원들을 놀라게 했다.

신기한 생각이 들어 작식대원들은 그이께 물었다.

《정숙동무는 언제 이런 가루를 봉았어요? 혹시 행군하면서도 강냉이를 봉을수 있는 절구라도 가지고있는게 아니예요?》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답대신 웃으시면서 《어서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국수를 누르자요.》라고 말씀하시기만 하였다.

그때로부터 부대에서는 김정숙동지에게 신기한 돌절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였

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돌절구는 호주머니에 들어갈만큼 작고마한 돌절구라고 하였다. 얼마나 작은지 강냉이를 일여덟알만 넣으면 절구확이 가득차는 주먹만한 돌절구인데 김정숙동지께서는 행군하시면서도 절구확에 3~4알의 강냉이를 넣고 공이로 찼어 가루를 낸 다음 빈주머니에 넣곤 하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몇시간 행군한뒤에는 한두그릇의 국수를 누를만한 가루가 마련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돌절구로 볶은 강냉이가루로 국수를 만들면 농마국수나 메밀국수에 못지 않는 별미를 낸다는 것이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올리는 국수를 많은 경우 전령병들과 같이 드시곤 하였는데 전령병들은 그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강냉이 국수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아마도 그 돌절구에 비밀이 있는것 같아요.》라고 전령병들은 말하였다.

그 모든 소문이 정말이라고밖에 할수 없는것은 통강냉이 한줌밖에 없는것이 분명한데 행군을 하다가 숙영할 때면 김정숙동지께서 어김없이 강냉이가루가 든 자루를 꺼내는 것이였고 그것으로 만든 국수가 그 무엇으로 누른 국수보다 더 맛있었기때문이었다.

《나는 아직까지 그때 정숙동무가 산에서 놀러주던 국수보다 더 맛있는 국수를 먹어보지 못했소.》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일을 회상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별맛이었소. 정말 전령병들의 말처럼 그 돌절구에 비밀이 있었는지.》

《수령님!》

한 일군이 수령님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듣고있다가 물었다.

《그 돌절구는 어디서 구한것입니까?》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소. 그 돌절구를 어디서 구했고 또 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그런 절구가 있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정확히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김정숙동무에게 그런 돌절구가 있다는게 사실인가고 물어본적이 있소. 그랬더니 정숙동무는 웃기만 하다가 더 따져 물으니 <장군님께서선 큰일을 하시는분인데 그런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는게 아니겠소. 그래서 나도 종시 그 돌절구를 보지 못하고 말았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더욱 깊은 감회에 잠기시였다.

사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렇게 해명할수 없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날씨가 추워지면 수령님께 털양말이나 털내의를 떠드리곤 하시었는데 그 털실이 어디서 생기며 어느 시간에 뜨시는지도 도저히 알수 없었다.

또한 명주솜이 탄알을 막는다는 말을 들으시기 바쁘게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 구했는지 명주솜을 두툼히 둔 솜외투를 지어 수령님께 드리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비가 내리고 전투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김정숙동지가 옆으로 지나가신뒤에 주머니가 따뜻해서 손을 넣어보면 노랗게 구운 만두가 들어있거나 알알이 가마에 담은 잣이 들어있었던 적이 한두번만 아니였다.

눈이 한길이나 쌓인 원시림속을 행군할 때에도 얼마 행군하다보면 그이의 손에는 어디서 찾아냈는지 마른 산열매나 산나물이 한두웅큼씩 쥐여져있곤 하였다.

김정숙동지의 손이 그것을 만들어내시였다고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놓고보면 돌절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놀라운것이 아니요, 해명할수 없는 그 평범한 일들중의 하나인것이다.

그 시절에 전령병이었던 항일의 로투사들도 그때 김정숙동지께서 놀려주신 국수는 천하일미였으며 그 국수를 조금만 먹으면 힘이 솟구치고 피로를 다 잊게 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 신기한 돌절구와 결부시키곤 한다.

그러면 그 돌절구는 어떻게 되어 김정숙동지께서 생겼것일까? 이에 대하여 유격대원들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갓 창설된 백두산근거지에서 일하시다가 지하공작을 나가시던 길에 장백현 평강덕부근에서 거의 굶어죽게 된 로인과 그의 손녀를 발견하시였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목적지까지 겨우 대여갈 약간의 식량밖에 없었으나 모두 털어내어 죽을 쑤어 그들에게 먹이시였고 나머지는 그들의 보따리에 넣어주시였다.

그 죽을 먹고 정신을 차린 로인은 김정숙동지께 몇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이런 귀인을 만나 나와 손녀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니 무슨 말로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수다. 신세를 갚고싶으나 수중에 이것밖에 없으니 이 돌절구라도 받아주시오.》라고 하면서 작고마한 돌절구를 드렸다는 것이다.

돌절구는 이렇게 해서 생겼것인데 이상한것은 그후 김정숙동지께서 로인이 산다는 마을에 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그런 로인을 전혀 모르고있더라는 것이였다.

사람들은 그 로인을 두고 범상한 늙은이가 아

니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도록 충신중의 충신이신 김정숙동지께 신기한 돌절구를 드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고 하였다.

하기는 옛날부터 나라가 일떠설 때에는 나라를 일떠세울분에게 하늘의 천서를 내려주거나 여러 가지 신기한 보물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하물며 동방강성대국으로 일떠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

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그런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 보물을 하늘이 드렸다하여 별로 놀라운것은 없다. 천번만번 지당한 일이다.

그날 금수산의사당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옥류관국수를 들게 된 일군들의 눈앞엔 충신의 귀감이신 김정숙동지의 영상이 눈앞에 자꾸만 어려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우리 어머니

림공식

어머님과 함께 이날을 맞고싶어
오늘의 이 기쁨을 어머님과 나누고싶어
꽃다발을 정히 안고
주작봉마루에 오릅니다

어머님 것처럼 바라시던 념원이
저 람홍색공화국기에 어려
경사로운 9월의 하늘가에 휘날리고
짧아도 빛나는 한생애
조국에 바치신 불타는 마음이
이 강산의 환희로 되었습니다

아, 총대로 위대한 태양을 옹위하시고
항일전의 피어린 만리길을
걸음걸음 헤쳐오시며
언제나 총대와 함께 사신
어머님이시여

정깊은 눈길로 보고있습니다
장쾌한 군악에 맞추어
쨍-쨍 지축을 울리며
김일성광장을 보무당당히 지나가는
강철의 열병대오의 장엄한 흐름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석단에 거연히 서시여
불패의 강군을 사열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근엄한 모습을

온 세상이 우러르는

백두의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올리시고
오늘도 선군의 길에 장군님과 함께 계시는
어머님이시여

전선길마다에 끝없이 새기시는
장군님의 자욱자욱을 받들어주시고
협산준령을 넘으시며
걸음걸음
마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각
하늘땅을 진감하는
열병대오의 우렁찬 만세의 저 환호성은
어머님께 삼가 드리는
감사의 인사
심장의 노래

아아 어머님 높이 드신
애국애민의 불멸의 총대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으로 이어졌기에
어머님 김정숙어머님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어머니

선군으로 무궁할
조선의 뜨거운 감사를 담아
선군으로 길이길이 행복할
이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웁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시여!

래 일

조상호

1

그것은 전혀 예견치 못했던 일이었다.

간리에 립시 자리잡고있는 혁명자유자녀학원 원장과 전화를 하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권수길과장은 자기가 혹시 잘못듣지는 않았는가 하여 구멍이 송송 뚫린 수화기를 힐끗 들여다보기까지 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옛 전우의 아들인 류상철원아의 인민군대입대를 승낙하시지 않는것 같다고 하는 원장의 그 말이 전혀 뜻밖이었기때문이었다.

권수길은 믿어지지 않아 다시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대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0분전에 전화가 왔는데 환송준비도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상철이를 한번 만나보시겠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권수길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송수화기를 맥없이 내려놓았다. 그이의 뜻을 모르고 일처리를 하였다는 생각이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었다.

권수길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집을 지고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오늘 낮에 류상철이가 인민군대에 입대시켜달라고 찾아왔을 때 권수길은 얼마나 기뻐던지 모른다. 그를 번쩍 추켜안고 빙글빙글 돌기까지 했었다.

《장하다. 네가 이젠 다 자랐구나. 암 그래야지. 총을 잡아야 하구말구. 네가 총을 잡지 않으면 누가 잡겠니.》

눈물이 콧 솟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이 애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이렇게 끝끝하게 자란 아들을 본다면 얼마나 대견해하랴 싶었다.

《그래 어머님께 들렸었니?》

김정숙동지께 갔됐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학원원아들은 누구나 그이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따르고있는것이다.

류상철은 얼굴을 붉히며 도리머리를 했다.

《만나뵈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학원건설장에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만경대에서는 혁명학원청사건설이 한창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의 녀투사들은 물론 시안의 녀맹원들까지 이끄시고 자주 건설장에 나가 땀흘리며 일손을 돕곤 하시었다.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만류하면 《나야 그 애들의 어머니가 아니나요. 학부형인 셈이지요.》 하며 웃으시곤 했다. 원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참으로 극성이시였다.

권수길은 류상철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좋다. 어머님께는 내가 말씀드리마. 이제 군복까지 착 입고 나와 함께 어머님을 뵈오러 가자. 그러면 어머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권수길은 그자리에서 해당 부서들에 전화를 걸었다. 모두들 절대 찬성이였다. 당장이라도 군복을 입히고 제일 중요한 곳에 보내자고 했다. 그런 애들이야말로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인민군대의 핵심이 되여야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됐다. 이젠 당장 학원에 가서 수속을 해가고 오너라. 원장선생에게는 내가 전화를 하마.》

류상철은 사기가 나서 거수경례가 아니라 꾸벅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는 빙글거리며 돌아갔다.

권수길은 학원에 전화를 걸어 류상철이를 입대시키자는것과 원아들중에서 상철이가 처음으로 입대를 하는것만큼 환송모임도 잘 조직해주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차 알려드리지 못했다. 저녁이 다 돼오도록 학원건설장에서 돌아오시지 않았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댁에 돌아오시었다는것을 권수길이 알게 된것은 온종일 대치를 부드럽게 쓰다듬던 태양이 멀리 산말랭이 뒤로 내려앉으며 하늘가득 진홍색노을을 피워올리던 저녁무렵이였다.

이때부터는 권수길의 하루 24시간중에서 제일 분주하고 복잡한 시간이였다. 각 군종, 병종부대들의 하루 전투정치훈련과 일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대책적안을 만들어 해당부서에 제출해야하기때문이었다.

절세없이 전화기들이 따르릉거리고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권수길은 만사를 제치고 김정숙동지께 류상철의 일부터 말씀드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무척 기뻐해하시였다.

《그 생각이 얼마나 기특해요. 지난 2월 8일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인민군대의 열병식이 있는 다음부터 나이가 된 원아들은 인민군대에 서로 가겠다고 막 욱 욱 한답니다. 지난달에도 학원에서 상철이랑 몇명이 비를 줄줄 맞으며 장군님을 찾아왔답니다. 장군님께서 지방에 나가시고 안계서서 제가 만났었는데... 눈물이 나오는것을

겨우 참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들의 뒤를 이어 장군님을 보위하는 총을 잡겠다는 그 가혹한 마음들을 귀중히 여기고 꽃피워주는것이 바로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우리의 의리가 아니겠어요.》

《정말 그 애들을 볼 때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군합니다.》

《우리 그 애들을 동지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키우자요. 그래 상철이에겐 뭐라고 했어요.》

《당장 학원에 가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상철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태일쑈은 수속을 해가지고 올겁니다. 군복을 입혀가지고 정숙동지에게 가겠습니다.》

전화기들이 따르릉 따르릉 참지 못하게 보채며 겨끔내기로 울어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래요?》 하더니 잠시 말쑈이 없으시다가 나직이 물으시었다.

《상철이에 대해서 학원에 좀 알아보았어요?》

《예? 아니 저 그건... 그 애는 이젠 나이도 다 되고 몸도 튼튼해지고 또 생각두 너무 기특하길래...》

《하긴 미처 알아볼새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사업이 복잡한데... (아마도 책상우에서 전화기들이 분주스레 따르릉대는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었대.) 알겠어요. 어서 일을 보세요.》

더 다른 말쑈이 없으시었다. 권수길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부대들에서 올라오는 전화를 받고 일처리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한점 그늘이 비껴드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권수길은 잠시 시간이 생기자 학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상철의 생활에 대하여 이제라도 자세히 알아보려는것이였다. 그런데 학원 원장에게서 바로 그런 뜻밖의 소식을 들은것이다.

권수길은 대뜸 상철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원아들을 만나면 언제나 부모들의 뒤를 이어 총을 잡아야 한다고 하시던 김정숙동지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권수길이였다.

또다시 전화종소리가 났다. 좀처럼 그 문제에 생각을 집착시킬 여유를 주지 않는다. 해군부대에서 올라오는 전화였다. 다음엔 포부대, 비행부대... 그러나 전화를 받으면서도 권수길의 마음 한끝은 학원에 가있었다. 학원 원장은 류상철에게서 무슨 특별히 제기되는것은 없다고 했었다. 특별히...특별히... 그러니 특별하지 않은 그런 문제는 있다는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엇일가. 왜 원장선생은 우물쭈물하면서 시원한 대답을 못했을까. 우물쭈물하는 그 성미...백두산에서 총들고 싸우던 빨찌산들과는 또 다르다. 전형적인 교육자, 지식인의 소심성인가.

아니 생각되는것이 있다. 그 우물쭈물하며 당황해하던 원장의 그 행동... 본적이 있다.

...작년 가을이였다.

그날 권수길은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학원에 류상철이를 만나러 갔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산에서 싸우실 때부터 류상철이를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쓰시었는데 바로 보름전에야 그를 찾아 혁명자유자녀학원에 보내시었던것이다. 지방에 장기출장나갔다가 돌아와서야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권수길은 김정숙동지께서 마침 학원으로 나가신다기에 너무도 흥분하여 설생각도 잊고 따라나갔다. 마가울의 찬바람에 학원마당에는 말라버린 락엽들이 이리저리 날려다니고 있었다.

반기며 달려나온 원아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침실이며 식당을 돌아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의아한 눈길로 원장을 바라보시었다.

《아이들 몇이 보이지 않는군요. 류상철이랑, 경수랑...》

어느 애가 류상철일가 하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여겨보며 김정숙동지께서 왜 그 애를 소개시켜주시지 않는지 의아해하던 권수길도 원장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원장은 갑자기 눈길을 어디에 돌지 몰라하며 당황해하였다. 얼굴을 붉힌채 손끝으로 안정만 자꾸 추슬러올리며 공공 잡자르기만 했다.

《저... 그 애들은... 저...》

《원장선생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 정색하여 물으시자 원장은 더 어쩔수 없는듯 고개를 외로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 애들은 지금 열병에 걸려서...》

《예?》

김정숙동지께서는 깜짝 놀라시었다. 권수길도 흠칫하며 눈이 둥그래져서 원장을 쳐다보았다.

원장의 얼굴은 꺼떻게 질려였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녀사께서 것처럼 아끼시는 애들인데... 저희들의 불찰로 그만... 지금 병이 더 퍼지지 않게 그들을 따로 격리시키고 집중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장의 음성은 피로움에 젖어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언제부터 앓기 시작했어요?》

약간 떨리시는듯 한 물음...

《오늘까지 닷새째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심하게 앓는데...》

김정숙동지께서 안타까우시어 나무람하시자 원장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 너무 걱정하실가봐...》

《선생님도 참... 가보지요. 저 병동이겠구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단호하게 외파로 떨어진 병
동쪽으로 걸음을 돌리시었다.

원장이 팔쩍 뛰며 앞을 막아나섰다.

《안됩니다. 그곳엔 절대로 가실수 없습니다. 열
병이기때문에 거기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
어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란 눈길로 원장을 쳐다보
시었다.

《그래도 원장선생님은 들어가보셨겠지요?》

《저야... 학원일군이 아닙니까... 그 애들을 책
임진...》

《저는 그 애들의 친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약
속했어요.》

원장이 두팔까지 벌리고 막아서며 안타까이 하
소했다.

《그래도... 녀사님만은... 안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도리머리를 하시었
다.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산
에서 싸울 때 열병환자들을 한두번만 간호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녀사님!》

목메여 부르던 원장이 얼핏 권수길을 바라보았
다. 그러는 그의 눈엔 물기가 번들거리고있었다.
그 눈물은 당신은 왜 가만있는가고 질책하는듯
하였다. 억이 막혀

서있던 권수길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황
황히 그이의 앞에 나섰다.

《정숙동지! 어찌자고 이러십니까. 돌아갑시다.
안됩니다. 절대로!》

김정숙동지께서는 눈물이 고인 눈길로 안타까
이 권수길을 쳐다보시었다.

《권동무까지 이러면 난 어떻게 합니까. 권동무
야 내 마음을 잘 알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안
타까이 상철이를 찾았어요. 그렇게 겨우 찾아낸
상철이인데... 그애가 지금 병에 걸려 누워 앓고
있는데... 그 애 아버지인 류영식동지라면, 그 애
어머니인 최정희동지라면 그래 자기 아들이 그
렇게 앓고있는데 그냥 돌아서겠어요?》

권수길은 불뭉치같은것이 울컥 치밀어오르며
목을 꼭 메우는 바람에 아무 말쑈도 드릴수 없었
다. 코허리가 찡해오고 눈물이 콧 솟는것을 느끼
며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차마 그이의 그 애
끓는 눈빛을 마주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병동안에 들어서시자 맨앞 침
대에 누워있던 애가 고개를 돌렸다. 그 애앞에서
는 방금 체온을 잴듯 흰 위생복을 입은 의사가
체온기를 들여다보고있었다. 몇번 꺼벅꺼벅하던
그 애의 눈이 갑자기 생기를 띠며 반짝 빛났다.

《어머니! 야 어머니가 오셨다.》

그의 환희에 찬 목소리에 침대에 누워있던 애
들이 모포를 와락와락 제끼며 몸을 일으켰다.

《뭐?》

《어머니!》

《어머니!》

맨앞 침대에서 일어나있던 애는 열병을 앓는
몸으로 그이의 품에 안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굳어져서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
다가 침대에 도로 엎드리며 모포를 뒤집어썼다.

《어머니, 가까이 오시면 안돼요. 우린 열병에
걸렸어요.》 하고 목메여 중얼거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어쩔줄
몰라하던 애들도 모포를 들쓰고 침대에 엎드려서
울음을 터뜨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억이 막히신듯 아픈 눈길로
그러는 애들을 지켜보시다가 맨앞 침대에 걸터앉
으시며 갈린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이 그래도 이 어머니걱정을 다하는구나.
나는 일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앓고있는줄은 몰
랐구나. 어디 좀 보자. 이 엄마손이 이래봐두 약
손이란단.》

김정숙동지께서는 모포를 들치고 그 애의 이마
에 손을 얹으시었다.

《어머니!》

그 애는 더 참지 못하겠는지 벌떡 일어나며 김
정숙동지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리고는 꼭꼭 소
리내여 울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파들파들 떠는
그 애의 어깨머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었다.

《일없다. 이제 치료를 하면 인차 낫는다. 이까
짓 열병은 큰병이 아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병에 걸린적
이 있군 했지만 인차 병을 털고 일어나 원썬들과
싸우군 했단다. 마음이 약해지면 절대 안돼. 알
겠니?》

김정숙동지께서는 체온기를 주무르며 눈을 습
벽이는 의사에게 눈길을 돌리시었다.

《의사선생님이 수고 많군요. 이 애들의 부모를
대신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애는 어려운 고비
를 넘긴것 같은데 잘만 치료하면 인차 나올것 같
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른 애들도 일일이 이마를
짚어보시며 의사와 치료대책을 토의해주시었다.

류상철이도 모포를 들쑈채 어깨를 떨며 흑흑
느껴 울고있었다.

그의 이마를 짚어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권수
길을 보시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이 애가 류상철이예요. 상철아, 산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싸우던 권수길아저씨가 왔다.》

김정숙동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던 상
철이가 고개를 돌렸다.

권수길은 더 참지 못하고 《상철아!》 하며 그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별로 아이가 가볍고 가냘퍼보이는게 가슴이 찢어졌다. 아, 이 애가 바로 류영식동지의 아들이란 말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이 쓰리신듯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이 애들은 지난날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며 자라다나니 그때 벌써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애들이 한명이라도 잘못되게 해선 절대로 안돼요. 원장선생님, 의사선생님, 우리 이 세상에서 좋다는 약은 다 가져다 씹시다. 나도 힘껏 노력하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병을 깨끗이 고치고 몸을 추세를 방도들을 하나하나 의논해주시다가 걱정으로 흐느끼는 상철의 가냘픈 어깨를 따듯이 어루쓸어주시었다.

《상철이, 힘을 내야 해. 지난날 부모를 잃고 그 모진 고생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요만한 병을 이기지 못하겠니. 원썬놈들에게 희생된 아버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병을 고치고 공부를 해야할게 아니냐.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손에 총을 잡고 장군님께 충성을 다할수 있어.》

저택에 돌아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앓는 원아들이 못내 걱정되시여 열병치료를 좋다는 미나리김치도 담그시고 룡두지짐과 찹쌀엿도 만드시여 사흘이 멀다하게 학원에 보내주곤 하시었다. 지방에 나가있는 전우들에게 부탁하시여 수많은 보약과 신선한 과실도 보내주곤 하시었다.

원아들은 인차 병을 털고 일어섰다. 아이들은 한여름 폭식자라듯 한다더니 권수길은 오늘 류상철이가 인민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찾아온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불과 여섯달... 그랬다. 그때 학원에 가서 열병에 걸린 그를 안아보던 때가 여섯달이 되나마나 한데 몸이 얼마나 튼튼해지고 키도 커졌는지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래서 너무 기뻐 그를 와락 추켜안고 빙글빙글 맴돌기까지 하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그간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으면 이 애가 이렇게까지 달라졌으랴. 그이께서 이런 상철이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그런데...권수길은 지금 전화를 받고 자료를 종합하면서도 줄곧 그 생각뿐이었다.

류상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학원 원장은 우물쭈물하면서 더 말하기를 주저했는가.

그때처럼 또 뭔가 말 못할 그 무엇이 있는것이 아닌가. 그이께서 걱정하실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그 애의 건강이 아직?...

아니 그런것 같지는 않다. 그 애의 체격은 지

금 현역으로 복무하고있는 군인들 못지 않다.

그렇다면...

권수길은 아무래도 알수가 없어 김정숙동지께 직접 알아보리라 결심했다. 푹푹히 알지 않고서는 건딜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댁에 전화를 걸던 권수길은 자기도 모르게 흠칫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정숙동지께서 무슨 일때문인지 갑자기 간리에 있는 학원림시교사로 떠나가셨다는것이였다.

3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시각 락조의 신비스러운 어스름을 밟으며 총총히 들길을 걷고 계시었다.

수수한 조선옷을 입으시고 손에는 자그마한 회색손가방을 드신 간편한 차림새였다.

온종일 학원건설장에 나가 땀흘리며 일하시었는데 이 저녁에 어떻게 또 간리 립시교사까지 갔다오시겠는가고, 오늘 꼭 다녀오셔야 하는가고 앞을 막아서며 간절히 하소하던 경위중대장이 더는 어쩔수 없다는것을 느꼈는지 길가에까지 따라나와 지나가는 차를 세워주기에 예까지는 그래도 쉽게 오신셈이었다.

운전사는 학원까지 태워다드리겠다고 하였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먼곳에 갈 차인데 어서 곧장 가라면서 학원쪽으로 꺾어드는 갈림길에서 내리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어슬어슬해지는 마을어구에 들어서시자 밟짚는 냄새, 물고기굽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오고 장난에 취한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어머니들의 정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저앞 느티나무아래에서 슬레잡기를 하며 뛰노는 아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날 저무는줄도 모르고 마음껏 뛰놀던 저 애들은 이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주며 《에그나 아침에 갈아입힌 옷이 이게 뭐냐. 이 얼굴은 또 어떻게... 어서가 세수를 하고 밥먹자.》 하고 이끄는 살뜰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짱충거리며 저녁밥상이 기다리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향할것이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저 애들도 저 녀인들도 매일처럼 반복되는 평범한 이 생활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행복인지 다는 모를것이다.

여느때라면 생활이 빗어내는 이 다감한 정취에 한껏 취해보기도 하시련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순간 학원 원아들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아릿해지고 눈굽이 저려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었다.

부모형제들의 다심한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이

런 생활의 단점을 전혀 모르고 바람겨진 세상에서 길가의 막돌처럼 이리저리 걸쳐이며 자라온 원아들이었다. 응석과 어리광 한번 마음껏 부려보지 못하고 왜 그런 불행을 강요당해야 하는지조차 모른채 애 어린 시절부터 연약한 몸으로 죽음이 살판치는 험난한 세상의 가시덤불길을 피를 똑똑 흘리며 헤쳐와야 했던 그들이었다.

하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을 빠짐없이 다 한품에 안아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내세워주고 행복하게 해주리라 몇번이고 속다짐하시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저 눈보라치는 백두광야에서 원썩들의 흉탄에 쓰러진 전우들을 묻곤 할 때 피눈물을 삼키며 다진 맹세이고 연약이기도 했다.

바로 그 연약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피곤을 무릅쓰고 학원으로 나오시는 길이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옆골목으로 들어서는 아이의 모습을 애모쁜 눈길로 지켜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류상철이가 인민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찾아왔었다면서 기뻐서 전화를 하던 권수길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으시었다.

한달전에는 비까지 줄줄 맞으면서 인민군대에 입대시켜달라고 왔었다. 류상철이... 그는 지금 온통 군복을 입을 생각밖에 없는것 같다.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한시바삐 혁명의 총을 잡겠다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장한가.

문득 김정숙동지의 눈앞에는 10여년전 가을 어느날 낮빛이 컴컴해서 밀영으로 찾아왔던 권수길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숙동지, 이거 야단났습니다. 글썽 류영식동지의 안해가 총을 잡겠다면서 우리 중대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총란이 켜고 지나간 한 남대원의 군모를 입고있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을 흠칫 멈추시고 놀라운 눈길을 드시었다.

《정희아주머니가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었다. 류영식의 안해가 유격대에 입대하겠다고 찾아오다니, 그에게는 늙으신 시부모님과 아들, 딸까지 있지 않는가. 혹시 그가 남편이 전사한것을 알고 찾아온것은 아닐가.

최정희의 남편 류영식은 한달전에 사령부가 왜놈 《토벌》대의 포위속에 들었을 때 앞장에 서서 포위망을 뚫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치명상을 당한 그는 아무말도 남기지 못했다. 그의 배낭에서는 여느 사품들과 함께 기름종이로 정히 싸고 또 싸 학습장 두권과 연필 한자루가 나왔다.

적구공작나갔다가 구해왔다는 이 학습장과 연필은 아들 상철에게 주겠다고 자신은 나무함에 모래를 담아 손가락으로 글을 쓰면서도 소중히 간

수했던것들이었다.

그 연필과 학습장은 김정숙동지께서 배낭 깊숙이 고이 간수하시었다. 자식들을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달라는 간곡한 당부로 받아들이시었다.

그런데...

《정숙동지, 정말이지 난 류동무소식을 말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왔지요. 다른 동무들에게도 일체 말을 못하게 하고... 글썽 어떻게 말해줍니까. 시부모님과 아들, 딸 다 잃고 그 복수를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차마 남편의 그 소식까지...》

김정숙동지의 손에서 스르르 군모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건 또 무슨 소리에요. 시부모님과 아들, 딸이 어떻게 되었다구요?》

권수길의 두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주머니가 이웃마을에 연락을 갔다오는 사이에 왜놈들이 달려들어... 글썽 마을사람들을 모두 집에 가두고 불태워죽였답니다. <공비마을> 이라고... 한사람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아주머니가 돌아왔을 땐 마을에 재더미만 남았더랍니다. 정신없이 재무지를 뒤졌는데 까맣게 타버린 시부모님과 딸애의 시체가 나오고... 상철이는 시체도 찾을수 없더랍니다. 정희아주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를 보고는 남편을 만날가봐서인지 당황해하면서 오히려 피해다니는 눈치인데... 아 글썽 이를 어찌면 좋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얼른 군모를 다시 집어드시었다. 그러나 손이 떨려서 바느질을 제대로 할수가 없으시었다.

권수길과 류영식은 한마을에서 살다가 한날한시에 유격대에 입대하여 같은 중대에서 싸워왔다.

권수길이 있는 곳엔 류영식이 있었고 류영식이 가는 곳엔 권수길이 가곤 했다. 이것은 정희아주머니도 잘 알고있다. 그런데 유격대에 입대하겠다고 찾아온것이 기막히게도 남편의 중대에 오게 되었으니 그를 만나면 어떻게 그 참상을 전하랴 싶어 피해다니고있는 모양이다. 시부모님들과 자식들을 잃은것이 모두 자기탓인듯 죄스러워 그러는것이 분명했다.

우리 녀성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 집에 생긴 불행은 모두 자기의 잘못처럼 생각하는 마음여리고 순박하고 어진 사람들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희를 알고 계신다. 도천리에서 공작을 하실 때 연락을 한번 온적이 있었다. 눈이 크고 속눈썹이 류달리 긴 마음고운 녀인이었다. 그런 녀인에게 그렇듯 참혹한 불행이 겹쳐들다니...

그 마음여린 정희가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몇번이나 바늘에 손을 찔리우며 군모를 마저 기우시었다. 가슴속에서는 정희에 대한련민의 정과 함께 그에게서 가장 귀중한 사람들을 다 앗아간 왜놈들에 대한 증오가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가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미여지는듯 한 아픔을 느끼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한시바삐 그를 만나 슬픔을 함께 나누고싶으시었다.

정희는 개울가에 홀로 앉아있었다. 가득나무뒤에 몸을 웅송그리고 앉아있는 잔약한 녀인의 모습을 보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찡 얼어들고 눈물이 쿵 솟구치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었다.

넋없이 흘러가는 내물만 쳐다보던 정희가 인기척을 느낀듯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도천리에서 《무산아재》로 불리우던 김정숙동지를 이 산속에서 보게 된것이 전혀 뜻밖인 모양이었다.

《아니... <무산아재!>》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더니 그 크고 검은 눈에 불시에 눈물이 핑 고여올랐다.

《<무산아재!>》

최정희는 목메여부르며 김정숙동지의 품에와락 안겨들었다.

《<무산아재>, 이를 어찌면 좋아요. 예? 내 이제 상철이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요. 예?》

푸들푸들 마구 떠는 그의 어깨를 어루쓰다듬으시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에서도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가슴이 터질것만 같으시었다. 시부모님과 귀여운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몸부림치는 이런 녀인에게 남편까지 희생되었다는것을 어떻게 알려줄수가 있으랴.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드시었다.

눈물이 앞을 가리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쇠와- 밀림이 몸부림치는 소리만 들릴뿐이다.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의 노래가 울린다.

설한풍 스산한 원한의 피바다야

참혹한 주검이 묻노니 얼마나

혁명에 피흘린자 그 얼마에 달하였나

《<무산아재>, 좀 말해주세요. 예? 상철이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부모님과 애들을 다 나에게 맡기고 간다고 했는데... 난... 난 그들을 다 잃구... 이렇게... 혼자만 살아서... 아... 난 이제 어찌문 좋아요... 예?》

김정숙동지께서는 주먹을 꼭 움켜쥐시었다. 그러나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하실수가 없었다.

《내가 어떻게... 미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수...

그래도 상철이만은... 상철이만은 살릴수도 있었는데... 다 내탓이지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눈물을 흠칠 생각도 못하시고 떨리는 소리로 물으시었다.

《글쎄 내가 유점골로 떠날 때 자꾸만 그 애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엄마야, 같이 가자.> 하구 울면서 말이에요. 난 빨리 갔다와야했기에 타일렸지유. 얼리기두 하구 욱두 해주구... 그런데 글쎄 부득부득 솔버덩까지 따라오는게 아니겠어요.

난 너무 속이 타서 그애 어깨를 막 잡아흔들었지요.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에미숙을 태우느냐.> 하구... 그 앤 더 따라오지 못하구 풀썩 주저앉더니 발버둥질치며 울더군요. 아... 지금도 귀엔 그 애울음소리가 쟁쟁한게... 난... 난...》

꼭꼭 울음섞인 소리로 떠듬떠듬하던 그는 종내말끝을 못맺고 또다시 몸을 떨며 오열을 터뜨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어깨를 더 힘껏 껴안으시었다. 《정희언니, 오늘은... 내앞에서는... 마음껏 우세요. 그러나 우리 꼭 이 원썩을 갓자요. 슬픔을 이겨내고... 눈물만 흘릴게 아니라 복수의 총을 들고... 우리 기어이...》 더 다른 말씀을 하실수가 없었다.

발아래에서는 시내물이 흐느끼며 흘러가고있었다. 머리우에서는 여전히 이깔숲이 쇠와 몸부림을 치고있었다. 그애 놀란듯 산새 한마리가 삐익 삐익 피타게 울며 어디론가 날아간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밤 최정희와 나란히 누워 원썩놈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잃고 혁명전에 나선 녀성들에 대하여 날이 새도록 말씀해주시었다.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자식들마저 굶겨죽이고 홀몸으로 되었지만 끝까지 왜놈들과 싸운 녀성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엔 자신께서 부모형제를 다 잃고 사랑하는 귀여운 조카애와도 헤어지던 가슴터지는 일이 자꾸만 생각나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갈리군 하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었다.

다음날도 또 그다음날도...

그가 잠든 때이면 조용히 밖으로 나와 숲속을 거닐군 하시었다.

최정희의 기막힌 정상때문에, 우리 녀성들이 당하고있는 불행때문에 너무도 가슴이 아파 잠을 잘수가 없으시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 총을 담고 계시는데 최정희가 다가왔다. 어디에 가서 울었는지 그는 두눈이 퉁퉁 부어있었다.

그는 멍하니 김정숙동지를 쳐다보더니 무너지듯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다짜고짜로 총걸레를 쥐신 김정숙동지의 손을 움켜잡더니 왜서인지 갑자기 고개를 외로 꺾으며 흐흑 느껴울기 시작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철렁하시었다.

(아주머니가 남편소식을 들었구나...)

김정숙동지의 손을 자꾸만 어루쓸고 또 쓸어주는 그의 손등에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내 다 들었어요. <무산아재>가 부모님들이랑 오빠랑 동생까지 다 잃었다는걸... 얼마나 가슴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못난것을 위해 며칠 밤을 밝히시구... 그렇게 마음쓰시는데... 난 제 처지만 쉽다하면서... 수길아저씨한테서 다 들었어요. 상철이 아버지께 대해서두... 으흑...》

김정숙동지께서는 격해지시여 총을 놓고 그의 두손을 덧감싸주시었다. 그리고는 젖은 음성으로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그 어떤 불행이 들이닥친다해도 **김일성** 장군님만 믿구 이겨나가자요. 그 길이 혈육들의 원수를 갚구 그들의 념원대로 조국을 해방하는 길이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배낭을 끌러 류영식이 남기고 간 학습장과 연필이 든 꾸레미를 꺼내시었다.

《이제 상철이 엄마가 이걸 건사하세요. 상철이 아버지가 애한테 주겠다고 자기는 쓰지도 않고 아끼던것이예요. 우리 이제 상철이를 꼭 찾구 상철이 아버지가 바라던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자요.》

최정희는 놀란 눈길로 꾸레미와 김정숙동지를 번갈아보았다. 떨리는 음성으로 조용히 묻는다.

《아니... 상철이를... 상철이를 찾다니요?》

《내 생각엔 상철이가 어딘가에 꼭 살아있을것만 같아요. 아직은 그 애가 잘못되었다구 단정하기는 일러요. 우리 꼭 그 애를 찾자요.》

학습장과 연필을 받아드는 최정희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누가 뭐랄새라 다급히 묻는다.

《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눈빛... 높아지는 숨소리... 자그마한, 실오리만한 가능성이 있다해도 무작정 매달릴만큼, 그 처절하다 할만치 간절한 기대...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저러움을 느끼시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상철이가 술버덩까지 따라나왔단데... 불 탄 집엔 그 애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 혹시 도중에 길을 헛갈리구... 집에 가지 못했단가...》

멍하니 마주보던 최정희가 갑자기 와락 꾸레미를 꺼안으며 으흑흑 하고 오열을 터뜨렸다. 어깨를 마구 떨며 모지름을 썼다.

《거긴... 외통길이라우. 나두 행여나 해서 돌아오는 길에두 찾아보았구... 재무지숙에도 그 애가 없어 미친년처럼 돌아다니며 며칠을 찾구 또 찾았지만... 행길에서 잘못되든가... 다른 집에 갔다가 잘못되든가... 정말이지 이 예미가... 오죽 찾았겠수.》

한참이나 몸을 떨며 울다가 결연히 머리를 쳐들었다. 추연히 머리칼을 바다듬어 넘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됐어요. 다시는... 내 다시는... 울지 않겠어요.》

자신을 다잡는 그의 음성은 몹시도 갈려있었다.

정희는 그날 총을 수여받았고 재봉대원이 되었다.

최정희는 것처럼 가슴속에 큰 상처를 안았지만 이를 사려물고 총쏘는 법을 배웠고 한자한자 글도 익혔다.

재봉대일에도 인차 숙련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구공작을 나가는 동무들에게 부탁하여 지하조직들에서 류상철이를 찾아보도록 하시었다.

어떻게 하나 정희앞에 상철이를 찾아 세워주어 그의 가슴속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물겨주시려고 무진 애를 쓰시었다.

그러나 정희는 종내 상철이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놈들의 《토벌》에 다른 재봉대원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는 상철이한테 주겠다던 그 학습장과 연필마저 남기지 못했다. 놈들이 모조리 불태워버렸던것이다.

그날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등불가에서 비분을 금치 못해하시며 가지색 작은 수첩에 쓴 상철의 이름밑에 덧줄을 긋고 또 그으시었다.

정녕 얼마나 간고한 혁명의 길인가. 조국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가. 그러나 기어이 가야 할 조국에로의 길이다. 이제 조국을 해방하면 그때는 이 애들을 빠짐없이 다 찾아내어 보란듯이 내세워주리라...

그러나 항일전의 그 나날은 물론 조국이 해방되어 동북에 널려있는 전우들의 유가족들을 찾아 데려 올 때에도 상철이소식만은 알수가 없으시었다.

유가족들을 데리려 동북에 갔던 림춘추는 상철이를 데리고 오지 못한데 대해 무척 죄스러워하였다.

《도저히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을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림근 부락들과 현성에도 그때 련계했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 알아보았으나 상철에 대해서는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고있었습니다. 정숙동무가 부탁했다면서 지하조직들에서는 그때부터 찾았는데 종적을 알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잘못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도리머리를 하시었다. 어떻게 류영식동지와 최정희동지가 남긴 피줄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다 가버릴수 있단 말인가. 아직까지 그를 찾지 못한것만도 먼저 간 전우들

앞에 죄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선뜻 그 애마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수가 있는가. 그때 시체가 없었는데... 찾아야 한다. 하늘, 땅을 다 뒤져서라도 기어이...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 동북에서 활동하고있는 강건, 박락권이들과 각도에 파견되어 일하는 동지들, 지방의 애국투사후원회들에 또다시 간곡히 부탁하시였다.

상철이는 해방이 되어서도 두해가 지난 작년 가을에야 나타났다. 인편에 그를 따라보내면서 박락권은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정숙동무가 구체적으로 알려준대로 소년의 귀밀에 룡알만한 기미가 있고... 또 이름도 류상철인데다 물어보니 어머니와 헤어지던 일도 정숙동무가 써보내준것과 같기에 보냅니다.... 이 상철이는 어머니와 헤어진후 어느 거간군에게 걸려 지주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그후엔 방랑생활도 하고 고생도 많이하였다고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이는 열여섯이 되었지만 몸이 허약하기 그지없는 상철이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시였다.

상철은 그때 엄마를 따라가다가 옥을 먹고 돌아오던 길에 이제 겨우 포롱포롱 날기 시작하는 산비둘기새끼를 보았다고 한다. 어떻게 되어 비둘기새끼가 오솔길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만하면 잡을수있을것 같더라는것이다.

상철은 산비둘기새끼를 쫓아 수림속으로 들어갔다.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산비둘기새끼를 따라다니던 상철은 그만 바위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리를 접질린 상철은 너무도 아파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히도 한마을에 사는 포수할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마을로 업고 내려가다가 왜놈 《토벌》대와 맞대결이 되었다. 포수할아버지는 마을을 불사르고 돌아가던 그 《토벌》대에 걸리면 자기도 상철이도 무사치 못하리라는것을 깨닫고 그를 안은채 무작정 산으로 올리뛰었다. 놈들은 집요하게 추격해왔다. 산을 넘고 또 넘고... 그러다 그만 놈들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애야, 마을엔 절대 가지 말어라. 거기 가면 왜놈들에게 잡혀죽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였다. 깊은 산속에서 다리를 상한데다가 포수할아버지의 죽음에 얼혼이 나간 상철은 어찌할바를 몰랐다. 게다가 비까지 내렸다. 산속에서 찬비에 오돌오돌 떨며 울고있던 그는 어린 마음에도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는 생각에 무작정 어디론가 기여가기 시작했다. 아무것이나 먹을만하다고 생각되는것은 다 입에 넣었다. 다행히도 사람을 만났다는것이 린근목재소에 나들던 거간군이였다. 그에게 업혀가 어느 지주집에 팔리우고... 뛰쳐나와 방랑생활도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빼만 앙상해보이는 그를 아픈 눈길로 내려다보시다가 걱정을 참을수 없어 다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불을 비비시였다....

이런 류상철이가 학원에 간지 며칠 안되어 열병에까지 걸리였을 때는 또 얼마나 가슴아프시였던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병도 낫고 몸도 튼튼해져서 인민군대에까지 입대하겠다고 찾아다니고있으니 이처럼 장하고 대견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오죽했으면 권수길이 당장 군복을 입히자면서 그런 전화까지 해왔겠는가 싶으시였다.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백두산에서 추켜들었던 혁명의 총, 계급의 총은 벌써 그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주봉처럼 단순히 세대이음으로만 되어서는 안된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그 두자루의 권총은 백두의 피어린 언덕을 넘고 넘으며 오늘은 수천수만의 총대로 늘어났다.

우리 백두의 자손들은 이 위력한 정규무력의 주인이 되여야 하는것이다.

학원쪽에서 푹푹- 나팔소리가 들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는 저녁식사를 끝내고 오락회를 시작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학원이 가까와질수록 걸음은 더욱 빨라지시였다. 마음은 그보다 더 앞서 원아들에게로 달리고 있었다. 상철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그가 수속을 하느라 들떠 돌아다니면 가족이나 인민군대에 입대하지 못해 몸살이 나하다가 이제 겨우 마음안착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나이든 원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가봐 이처럼 바쁜 걸음을 하시게 된 김정숙동지이시였다.

4

김정숙동지께서 학원정문으로 들어서시는데 학원전용승용차가 달려나오다가 급히 멎고 차안에서 원장이 뛰어내렸다.

《권수길동무한테서 연락을 받고 마중가려던 길입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걸어오실줄은 정말...》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권동무가 괜히 소동을 피웠군요. 예까지 차를 타고왔는데...》

원장은 버릇처럼 손끝으로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갈린 소리를 했다.

《평양서 여기가 어디기에... 저녁에 떠나신단 말입니다. 권동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인차 차를 타고 따라오기는 하겠지만 혹

시 길을 어길수있다면서 절 보구 빨리 마중가라구…》

《그렇다고 바쁘신 원장선생님까지 이렇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뜨거운 관심에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끼시며 학원을 둘러보시었다.

저기 불밝은 병실쪽에서 원아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윽히 그곳을 바라보시었다.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하는
새 나라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리울것 그 무엇이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눈굽이 찡해오면서 가슴이 후터워짐을 느끼시었다. 부모없이 떠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다해오던 저애들이 언제 마음편히 노래를 불러왔으랴.

어서 마음껏 불러라.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김정숙동지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학원관리운영과 교수방법으로부터 부식물공급정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침실들과 식당을 차례로 돌아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윽해서야 원장방에 가시었다. 원장과 책상을 사이 두고 마주 앉으시며 생각깊은 어조로 물으시었다.

《요즈음 나이든 학원생들가운데서 인민군대에 입대하겠다는 원아들이 많지요?》

《예, 열병식이 있는 다음부터는 누구나 총을 잡겠다고 욕욕합니다. 지금 겨우 진정시키고 공부를 시키고있긴 합니다만… 생각들은 온통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야 얼마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지금은 공부를 잘하게 해야 합니다. 류상철이는 아지 특별반인데… 어떻게 벌써 입대문제를 론하게 되었습니까?》

원장은 얼굴을 붉히며 눈을 내리깔았다.

《저로서는… 막을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총을 잡겠다고… 하루빨리 총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노라 하소하는데… 그래서 정 그러면 김정숙녀사께 가보라구…》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를 건너다 보시다가 호-하고 가늘게 숨을 내쉬시었다.

특별반에는 아홉살부터 스무살이 넘는 학생들까지 망라되어있다. 가가거겨부터 시작하여 속성방법으로 소학교과정안을 끝내는데 특별반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이,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지식수준에 따라 교수를 진행하였는데 그 방법도 속성교수, 복식교수, 개별지도 등 모든 방법을 다하여 하루빨리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아시

건대 류상철은 특별반에서도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있었다.

얼마전에 나오시여 수업참관을 하실 때 보니 그는 나이 어린 원아들과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부끄럽게까지 여기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상철이를 따로 불러 안타까이 말씀하시었다.

《나이 어린 동무들과 함께 공부하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돼. 그건 네 탓이 아니야. 왜놈들이 아니었다면 왜 네가 지금껏 배우지 못하였겠니. 아버지, 어머니가 원썬놈들에게 희생되고… 너는 홀로 남아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라다니니… 공부할수가 없었던거지.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도 유격대에 들어와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인민군대가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알겠니?》

상철이는 얼굴을 붉히며 뒤더수기를 뻗뻗 긁었다.

《예. 힘껏 공부해보겠어요.》 대답이 시원치는 못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었다. 아닌게아니라 그는 열흘도 못되어 또다시 인민군대에 입대시켜달라고 권수길이에게까지 찾아간것이다.

《상철이의 학적부를 좀 보여줄수 있습니까?》

《예?》

원장은 당황해졌다. 약간 헤덤비는듯 하면서 서류함을 열고 학적부들을 뒤적이였다.

《사실 그 학생이 아직 공부는 시원치 못합니다.》

학적부를 골라내여 김정숙동지께 드리며 하는 원장의 말이였다.

《그런데도 군대에 보낸단말이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나직이 뇌이시며 학적부를 받아 펼쳐보시었다. 국어과목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수학을 비롯해서 자연과목들은 성적이 높지 못했다.

원장이 안경을 또 추슬러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철학생이 처음엔 열성이 높았는데 열성에 비해 실력이 높아지지 않자 점점 신심을 잃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예 주저앉다싶이 하였습니다. 아무리 교원들이 타일러도 자기는 아무래도 공부할 재목이 아니라면서… 그러나 총만 잡으면 얼마든지 잘 싸울수 있다면서…》

원장은 상철이를 옹게 이끌어주지 못한 자기들의 잘못으로 김정숙동지께서 이 밤에 또 먼길을 오시게 하였다는 송구함때문인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상철이를 단념한듯 한 원장의 말에 의분이 머리를 쳐드는것을 느끼시었다.

《지금 상철이네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면… 제가 좀 만나보았으면 해요. 그걸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가 쓰던 학습장들도 다 갖고오도록 말이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적부를 다시 보시다가 어떤지 미음이 허전해지시여 학적부를 그냥 손에 쥐신채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검푸른 밤하늘에서는 몇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이 잊지 못할 전우들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그 별들은 웃고있었다. 마치도 《우린 정숙동무를 믿어요. 그래서 애들에 대해선 걱정을 안해요.》라고 속삭이는듯 싶다.

《영식동무, 정희동무, 육 많이 하세요. 동무들은 상철이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겠는데… 제가 아직 그애를 잘 키우지 못하고있군요.》

눈곱이 축축히 젖어드시었다. 피로우시었다. 아직도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것만 같으시었다.

이때 학원마당으로 전조등을 비치며 군용승용차 한대가 달려들어왔다.

물끄러미 차가 멎는것을 내다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시었다. 원장의 뒤를 따라 학습장 땃길을 옆구리에 낀 류상철이 얼굴이 불깃한채 들어서더니 꾸벅 인사를 했다. 기분이 좋아 벅글거리는것을 보니 자기의 인민군대입대를 고무해주시러 오셨다고 짐작한 모양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아릿해짐을 느끼며 어서 와 앉으라고 결상을 내놓으시었다. 그리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정히 손을 잡아 이끌어 결상에 앉히시었다.

《그간 앓지는 앓았느냐?》

《예, 전 건강합니다. 몸도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다시 결상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하게 대답하며 가슴을 쪽 찌던 상철의 눈길에 금시 꽂혔었다. 그때에야 김정숙동지께서 한손에 쥐고계시는 학적부를 본 모양이었다. 얼굴빛이 긴장해져서 눈을 몇번 껌벅거리던 상철이 고개를 떨구며 앉지도 못하고 주땃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 상철이 자기의 입대문제가 아니라 바로 학습문제때문에 오신것이라고 짐작한듯 슬며시 학습장들을 뒤로 감추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원장을 돌아보고는 상철의 어깨를 눌러 결상에 앉히시었다.

《공부하기가 힘들지? 어려서부터 갖은 고생을 다하며 떠돌아다니다가 지주집머슴살이까지 하느라 학교문앞에도 못가보았으니 나이차서 공부하기가 험치 않을게다.… 그래 어느 과목이 제일 힘드니? 학적부만 보고서는 자세히 알수가 없어 학습장들을 가져오라고 한거다. 어디 좀 보자.》

상철은 얼굴을 붉힌채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마

지못해 학습장을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상철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고는 학습장을 한장한장 번지기 시작하시었다.

문제풀이를 제대로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것을 보시면 기쁘시여 미소를 지으시며 상철이를 돌아보셨고 낮은 점수가 눈에 띄면 왜 그렇게 되였는가 꼼꼼히 따져보기도 하시었다. 학습장을 번저갈수록 점수는 점점 낮아지다가 나중엔 연필로 횡십자로 벅벅 그어놓은 폐지들이 나타났다. 어찌나 신경질적으로 그였는지 연필알이 부러지며 종이를 찢어놓은 폐지도 있었다.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 거친 숨을 몰아쉬던 상철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전 더는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죽기내기루 공부를 했는데두 정말 안됩니다. 저는 군대에 나가겠습니다. 군대에만 나가면 훈련두 남못지 않게 할수 있구 총두 잘 쏠수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웨치듯 말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린 눈길로 그를 돌아보시었다.

《인민군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다 갈수 있는 그런곳이 아니야…》

《예?》

얼굴이 굳어지고 눈이 쾅해진 상철이 말문이 막혀 공공 갑자르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러더니 김정숙동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님, 제발 저를 군대에 보내주세요. 예, 내 총만 잡으면 진짜 아버지, 어머니처럼 장군님을 위해서…》

《그만해라…》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에 쿵 마쳐오는 아픔을 느끼시였지만 손을 뽐으시었다. 이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뚝박에도 권수길이가 들어섰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와 인사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었다. 안타까우시었다. 상철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를 하는것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곱이 시여지고 마음이 여려여지는것 같으시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시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시여 이윽도록 밤하늘을 내다보시었다. 그러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상철이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총을 잡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총을 잡아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싸울수가 없어.》

《예?》

상철이 놀라서 그이를 쳐다보았다. 원장도 권수길이도 긴장해서 그이를 쳐다보았다.

《난 방금 학적부와 학습장들을 보면서 상철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어. 상철이 아버지는 백두산에서 싸울 때 모래함에 나무꼬챙이로 글을 쓰면서 배웠지. 그러면서도 상철이에게 주겠다고 학습장과 연필을 고이 간수하고 다녔어. 아버지가 희생되자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다녔는데… 그마저 남기지 못했어. 그러나 학습장과 연필은 남기지 못했지만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부탁을 남겼니.》

그런데 내가 그 절절한 부탁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있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를 지고있어. 죄를…》

그이의 갈리신 음성은 나직했으나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상철이도 원장도 수길이도 솟구치는 격정에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상철아, 아버지, 어머니가 백두산에서 그렇게 피흘리며 싸우면서도 왜 아글타글 배웠는지 아니? 모르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기때문이야. 원수와 잘 싸울수두 없구 새 나라를 건설할수도 없기때문이야.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가르쳐주시었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행군을 할 때에도 앞사람의 배낭뒤에 글을 써붙이고 걸으면서도 공부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조국을 해방하면 자식들만은 마음껏 공부시키자면서 오늘을 그러보군 했어.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전우들의 그 소원을 귀중히 여기시구 해방후 그처럼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이지만 학원부터 내오구 너희들을 다 불러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거야. 그런데 상철인 뭐 공부를 못하겠다고? 어찌면 류영식동지의 아들이 그럴수가 있어.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니.》

《어머님,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만은… 공부만은 너무 힘들어서…》

상철이가 울먹울먹하며 중얼거렸다.

《정 그렇게 공부하기가 힘들다면 이 학습장들을 다 싸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힘든 고비를 넘겨보자구나. 내가 여기 선생님들만큼 잘 배워주지는 못해두 너한테 힘이야 주지 못하겠니.》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학습장들을 모두어워져 상철이가 황황히 손을 잡았다.

《어머님.》

그러자 옆에서 보고있던 권수길이가 참다못해 한결음나섰다.

《상철아, 너 그제 뭐냐. 어머님께서 온종일 힘들게 일하시구두 너때문에 또 여기에 나오시었는데… 뭐 힘들어서 공부만은 못하겠다고? 난 네가 그런줄은 정말 몰랐구나. 그런것두 모르구 널

입대시키겠다고 했었어. 너야말로 진짜 군대가 될 자격이 없다. 알겠니?》

그 노여움에 찬 말에 머리를 들고 멍하니 권수길을 쳐다보던 상철이가 갑자기 흑-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어깨를 떨며 꼭꼭 울기 시작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는 상철이를 아픈 눈길로 이윽도록 내려다보시다가 한손을 그의 어깨에 얹으며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상철아, 너는 어떻게 하나 공부를 해야 해. 너희들이야 다 우리 혁명의 핵심이 될 사람들이 아니냐. 핵심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자면 사상이 강해야 할뿐아니라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해.》

명심하거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백두산에서 들었던 총은 그 자식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백두산의 총대를 떼뻬이 잡을수 있고 부모들의 뉘를 옮겨 이어갈수 있는거야.》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책으로 모대기는 상철을 자애깊은 눈길로 지켜보시다가 손가방을 열고 까만 만년필을 꺼내시었다.

《상철아 이걸 받아라. 장군님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것을 다 주시는데 나야 뭘 더 줄게 있겠니.》

새것을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도 내가 쓰던것이 더 좋을것 같구나. 그러니 쓰던걸 주었다고 나무람하지 말고 받아라. 자 어서…》

《어머님!》

상철은 목메여 웨쳤다. 마구 어깨를 떨며 흐느끼던 상철은 천만근의 무게를 가진듯 만년필을 소중히 받아 가슴에 안으며 무릎을 꿇었다.

5

《너사님, 저를 욕 많이 하십시오. 제가… 원장이란게 제구실을 못해서… 또 이렇게 밤길을 가시게…》

김정숙동지를 바래워드리러 따라나왔던 원장이 죄송스러워 하는 말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술한 아이들을 말아안구…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을거예요. 그 험한 세상에 길가의 조약돌처럼 걸채이며 풍파란 풍파는 다 겪어왔는데… 성격이 이지리진 애도 있을거구며 돌이생활이 인박혀 규률을 위반하구 자유주의를 하는 애들도 있을거구… 그러나 그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원장선생님을 믿구 자식들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그애들의 친부모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지가 커요. 힘들어두 그애들모두

를 꼭 백두산의 자손들답게 키우자요. 때로는 아픈 때도 들면서… 그런데 원장선생님은 그애들이 불쌍하게 자랐다고만 생각하면서 너무 어루만지기만하는것 같아요.》

원장은 어쨌게 웃으며 또 손끝으로 안경을 추슬러 올렸다.

《내 이거 눈이 근시이다나니… 그래서 그애들의 앞날까지 보지 못하는지…》

그 말에 김정숙동지도 웃으시고 권수길이기도 웃었다. 원장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오늘 녀사께서 상철학생에게 해주신 말씀을 학원전체학생들에게 꼭 알려주겠습니다. 가슴마다에 깊이깊이 새기도록…》

승용차가 학원을 떠나 밤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권수길도 자책에 잠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도 그애들의 먼 앞날까지는 내다보지 못했지요. 부모들이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일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난 근시아닌 <근시>인 셈이었지요. 나때문에 오늘 건설장에 나가 일하신 정숙동지께서 또 이렇게 힘든 걸음을…》

그가 심각해서 자책을 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롱어런 말씀을 하시었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권동무덕분에 이렇게 군용차를 타고 호강하잖나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껏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왔다는 내가 아직도 그이의 뜻을 다 모르고있으니…》

《수길동무.》

김정숙동지께서는 다감한 어조로 조용히 부르시었다. 그리고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가 누구에게 총대를 물려주겠어요. 백두산났이어린 총대인데… 우리가 총을 잡을 때와 또 다르지 않나요. 지금 인민군대의 무장장비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발전할것이구… 이제 10년… 20년… 그때는 아마 우리가 만든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구 우리가 만든 함선들이 바다를 뒤통구… 이 세상 그 어떤 원썬들도 감히 범접 못하는 그런 강군이 될거예요. 난 우리 상철이네들이 주인이 될 그날을 자주 눈앞에 그려보곤 해요. 그때는 우리가 키운 원아들이 그 무력을 이끄는 장령들이 되구 사령관들도 되겠지요.》

그날을 그려보시는듯 차창밖 멀리 별많은 밤하늘을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엔 그윽한 상

념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권수길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핫 핫 달아올랐다.

김정숙동지께서 무엇을 념원하고계시는지, 무엇을 위해 그리도 애쓰고계시는지 너무도 가슴뜨겁게 안겨왔던것이다.

권수길은 흥분을 억제못하며 주먹을 꼭 움켜쥐었다.

백두산의 총대… 이 세상에서 가장 강위력한 무장력이 되어야 할 우리의 총대… 그때에는… 지금 적들이 원자탄이요 뭐요 하고 세상 제일인듯 으시대면서 마음내키는대로 아무 나라나 불질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나라만은 감히 넘겨다볼 엄두조차 낼수 없으리라.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백두산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를 모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군대의 앞날은 과연 얼마나 창창한것인가.

그런데 나는 상철이네를 그날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키워야 한다는것을 미처 생각못하고있었으니… 속이 빈나무는 기둥으로 쓰지 못하는 법이다.

부끄러웠다.

가슴속에서 고패치며 부글부글 끓고있는것을 터놓고 그이께 무엇인가 여쭙고싶었다.

권수길은 모두숨을 들이쉬며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순간…

권수길은 깜짝 놀랐다. 김정숙동지께서 손가방을 앞으로 모아잡으신채, 조용히 미소를 지으신채 잠시 잠에 드신것이다. 얼마나 피로하시었으면…

불시에 눈곱이 쟁해오더니 핑그르 눈물이 고여올랐다. 목이 메여올랐다.

잠시 잠에 드시고도 웃으시는 저 모습, 무슨 꿈을 꾸시길래 저처럼 웃음이 그윽하고도 밝으실가. 우리 백두산총대의 먼 앞날을 그려보시는것일가. 백두산자손들이 주인이 될 창창한 래일울…

권수길은 가슴이 벅차올라 큰 숨을 몰아쉬며 슬며시 눈길을 돌렸다. 저 앞 검푸른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인다. 별들은 반짝반짝 무엇인가 속삭이는듯 싶다. 이 위대한분의 꿈을 지켜드리며 웃고있는듯 싶다.

별무리 아름다운 밤, 한없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싣고 승용차는 쾌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위인칭송의 화폭과 형상적매력

리윤근

해마다 맞고 보내는 12월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또다시 온 세상에 떨친 이 격동적인 해의 12월에 더욱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빨찌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다.

그리움은 추억을 불러낸다. 추억이 깊을수록 그 위대한분의 고결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세계에 매혹되는 우리의 소설가들.

사색의 대문을 열고 열정을 끓이자. 선군의 북대로 위인의 위대한 생활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리고 걱정을 터치자.

선군문학의 풍요한 화원속에서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는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위인칭송의 숭가적인 화폭들은 이렇게 창조되고있다.

그중에서 단편소설 《경암에서의 하루밤》[리영환작, 《조선문학》 주체91(2002)년 12호]과 단편소설 《추억》[조상호작, 《조선문학》 주체90(2001)년 9호]은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격조높이 칭송한 작품들로서 독자들에게 비교적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소설의 흥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적흥미는 바로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데서 생겨나는것이다.》

예술의 흥미문제는 위인형상소설인 경우 더욱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위인형상소설에서 예술적흥미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통하여 위인의 사상과 령도풍모의 위대성을 얼마나 진실하게 형상하는가에 의해서 좌우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김정숙어머님을 형상하는 단편소설에서는 어디까지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그이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쌓으신 업적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단편소설 《경암에서의 하루밤》이나 《추억》을 긍정적측면에서 논의하게 되는것은 덕성일면

만을 그것도 력사문헌적의의만을 강조하던 종래의 도식에 머무르지않고 해방직후 경애하는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으로 각계층군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생활적으로 비교적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위인의 숭고한 풍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이려면 위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부터 잘 그려야 한다. 인간관계속에서 생활이 흘러나오고 생활속에서 위인의 숭고한 풍모가 밝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두편의 작품들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인가.

단편소설 《경암에서의 하루밤》에서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작품은 김정숙어머님을 형상의 중심에 모시고 동천면인민위원회 위원장 길한덕과 그의 애인인 조복실의 아버지 조웅식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 관계의 기초에는 당시 함경북도일대를 휩쓸고있던 《호조미운동》이 놓여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조복실이다.

사랑의 씨앗은 언제부터 싹트고 자랐던가 어느덧 꽃망울은 부풀고 행복의 꽃잎은 활짝 피어 결혼식을 앞둔 어느날, 잔치는 안중에도 없이 《호조미운동》을 터대고 식량을 독촉하는 길한덕을 두고 격노한 조웅식, 결별이라는 그의 피를 내뿜는듯한 선언으로 하여 결혼은 파탄되고 눈물로 날을 보내는 조복실.

개울가빨래터에서 수심에 잠겨있는 조복실을 친히 만나주시고 몸소 물속에 들어서시여 빨래도 하시며 그의 《가슴속에 쌓인 설분》을 가슴아프게 들어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이 숭엄한 생활화폭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소설은 김정숙어머님과 조복실과의 관계로부터 길한덕과 조웅식과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립체적으로 흥미있게 교차전환시키면서 생활묘사의 폭과 심도를 보장하고있다.

사랑하면서도 접근할수 없는 길한덕에 대한 조복실의 애끓는 심정, 사랑하는 조복실이건만 《호조미운동》에서는 누구도 제외될수 없고 더욱 남보다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의 아버지 조웅식에게 식량을 독촉하지 않으면 안되는 길한덕의 심리적모대김, 길한덕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편속속에서 믿음보다 환멸, 더 나아가서는 결별을 결

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응식의 가슴아픈 고통, 비교적 제대로 설정된 인간관계와 각이한 인간들의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는 생활은 참으로 생동하고 진실한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생활적으로 보다 진지하게 밝혀내려는 소설가의 남다른 열정과 탐구의 세계를 엿보게 된다.

소설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길한덕이나 조응식과의 관계에서 지도적인 위치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시었고 인민의 평범한 딸이 되시었다.

해방은 되었으나 아직은 생활이 넉넉치 못한 농민들에게서 《로동자들에게 식량을 보태해》 준다는 간판을 걸고 무작정 호령하고 가차없이 걷어들이는 《호조미운동》을 건국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 일로 자부하면서 《동분서주》하는 길한덕을 대변에 질책할대신 꼭질많은 그의 과거생활부터 따듯이 물어주시는 김정숙어머님.

향긋한 썩내가 풍기는 조응식의 집을 찾으시여 길한덕의 식량독촉에 못이겨 채 익지도 않은 강냉이를 알알이 밟고는 그의 가슴저린 사연도 들어주시고 몸소 일손을 도우시며 그의 가슴에 맺히고 영킨 설움과 피로움도 함께 겪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숭엄한 영상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렇듯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복실과의 관계, 조응식과의 관계를 통하여 길한덕이 벌리고있다는 《호조미운동》의 반인민적성격과 일군들의 관료주의적사업태도, 그로부터 빚어질수 있는 해독적후과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한가정의 단합,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다.

혁명의 주체는 어떻게 마련되는가.

길한덕이처럼 일부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의도와 배치되게 인민우에 군림하여 호령질하고 그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길로 나간다면 인민은 당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다.

하기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주관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사업작풍으로 하여 애인도 군중도 다 잃게 된 길한덕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프게 말씀하시는것이다.

《오늘은 비록 길한덕동무가 애인 한명을 잃었다하지만 래일은 백, 천의 군중을 잃게 돼요. 한사람이라도 더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하는 오늘에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파오예요.》

반인민적이고 반혁명적인 《호조미운동》을 짓부시고 전체인민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건국로선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려

는 백배의 신념과 의지가 빛발치는 김정숙어머님의 이 준절하신 말씀.

김정숙어머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활동과 헌신에 의하여 해방후 그토록 복잡하였던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이 철통같이 다져지게 되었던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혁명사에 쌓으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공적의 하나가 있다.

보는바와 같이 소설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생활화폭을 통하여 《호조미운동》과 같은 반인민적인 행위의 본질과 해독적후과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의도에 맞게 바로잡아나가는 과정에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옹성같이 다져나가는 김정숙어머님의 위인적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앙상한 론리나 메마른 선언이 아니라 풍부한 생활화폭속에서 김정숙어머님의 위인적품모를 격조높이 칭송한 이 소설의 형상적매력이 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품모를 주인공 자신이 겪게 되는 직접적인 체험과 생활을 통해서 형상하는것보다는 상대인물이나 주위인물들의 다양한 시점을 통하여 밝혀내는것이 상대적으로 그것이 주는 감동은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앞에서 본 작품과는 달리 단편소설 《추억》이 보다 이채롭다고 보는것은 이 측면과도 관련되는것이다.

물론 이 작품도 해방직후 경애하는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김정숙어머님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하고있다.

그러나 소설은 력사문헌적자료에 기초한 작가의 객관적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시점, 주위인물들의 시점에 의거하여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품모를 그려나가고 있다. 여기에 이 소설의 독특한 기교가 있고 형상적매력이 있는것이다. 이 소설에서 처음으로 설정된 시점인물은 경애하는 수령님으로부터 병기생산과제를 받은 리덕현이다. 그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병기기술자 로천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소설은 리덕현의 시점을 통해서 병기기술자 로천일을 매개로 하는 김정숙어머님과 리덕현자신과의 관계를 생활론리에 맞게 설정하고 있는것이다.

해방직후 병기생산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는 기술자가 없는것이다.

여기로부터 소설에서는 병기기술자 로천일을 되돌려세우는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김정숙어머님과 리덕현의 관계를 설정하고 리덕현의 시점에서 가슴뜨겁게 체험한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품

모를 감명깊게 펼치고있는것이다.

자진하여 병기공장에 들어와 일하던중 《사고》를 저지르고 공장을 훌쩍 떠나버린 로천일.

왜 떠났는가, 일부 사람들이 《반동》이 아닌가, 《비밀을 넘겨주었는지》 모른다는것이다.

그래서 공장을 떠난 로천일을 찾아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때로는 헛걸음도 하고 때로는 온갖 인격적인 모욕도 겪어야 하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하였다.

기대와 실망, 환멸과 증오로 이어진 리덕현의 심리적체험, 여기에 덧쌓이는 김정숙어머님의 악화되는 병세, 그로부터 더욱더 치밀어오르는 몰인정하고 용렬한 로천일에 대한 분노의 감정.

나중에는 그자신도 《왜놈세상때도 우리 사람들을 해치던 그놈들의 무기를 만들어주던 자》가 《우리 인민의 세상을 지키는 총을 못만들겠다》니 로천일이 과연 《반동》이 아닌가고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로천일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를 꼭 찾도록 리덕현을 따듯이 이끌어 주신다.

날로 병세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로천일문제로 마음쓰시는 김정숙어머님.

리덕현은 로천일을 찾는 문제가 나라의 국방력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건군업적을 빛내여가시려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뜻인줄을 아직은 미처 몰랐다.

《총대만이 조국을 해방하고 총대만이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피로써 찾은 진리가 아닌가요. 물론 로천일동무 한사람이 없다고 병기생산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야 한사람이라도 더 나서게 해야지요...》

조국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도 혁명의 총대에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준 김정숙어머님의 이 말씀은 백두산위인들을 모시고 혁명의 한걸을 걸어온 리덕현의 가슴을 다시한번 세차게 울리었다.

소설은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해 불면불휴의 활동을 벌리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위인적품모를 김영준부관의 시점을 통해서 굴절시키는 방법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한 인물의 시점안에 또 다른 인물의 시점을 겹놓아 설정한것은 김정숙어머님의 위인적품모를 보다 생활적으로 깊이 파고들려는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다고 본다.

소설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식찬가지수를 줄이구... 잡곡을 더 섞는 방법으로 한푼한푼》 모으신 돈, 《자신은 잡곡을 많이 둔 조밥이 더 맛있다면서 풋절이김치 하나》가 전부인 식찬을

달게 드시는 어린신 장군님의 정상을 보시다 너무도 가슴아프시고 목이 메여 더 말씀을 못하셨다는 만경대할머님, 이렇게 마련하신 돈을 고스란히 병기생산에 돌려주신 김정숙어머님.

보는바와 같이 소설은 리덕현의 시점과 함께 김영준부관의 시점을 2중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생활, 김정숙어머님의 위인적품모를 다면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내고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시점에서 그려진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품모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산에서 고생만 시키신》 김정숙동지에게 변변한 옷 한벌 해주지 못한것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손수 쥐여주신 그 생활비마저 《조국보위기금명세》에 넣으시여 국방력강화에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

여기에서 받은 충격에 떠밀리워 리덕현은 로천일을 또다시 찾아떠났고 로천일역시 자기를 그리도 애타게 기다리시다 고귀한 생애를 마치신 김정숙어머님앞에 만대를 두고도 다 씻을수 없는 죄를 씻기 위해 지금까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충실히 이바지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과 리덕현, 김영준의 시점을 부단히 교차류동시키면서 생활을 다양하게 펼치고있으며 이 과정에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품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여기에 또한 김정숙어머님의 위인적품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칭송하는데 바쳐진 작가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가 있고 형상적기교가 있는것이다.

생활의 한 단면을 그리는 단편소설이라고 하여 외줄기로 양상하게 그리고 단조롭게 형상을 굽때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생활의 재미 없고 정서가 메마르게 되며 독자들로부터 예술적흥미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단편소설 《경암에서의 하루밤》과 《추억》이 비교적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된데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각계층 군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김정숙동지의 위인적품모를 숭고한 인민적형상과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보여준것과도 관련된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형상에서 중요한것은 고매한 덕성이 뜨겁게 흐르는 령도력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대중을 쟁취할수 없고 그들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없다.

단편소설 《경암에서의 하루밤》에서 형상하고있는것처럼 길한덕에 대한 조복실의 사랑, 조웅식의 기쁨, 길한덕이 걷는 참된 길, 이 놀라운 새

인간, 새 생활의 탄생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품으로 지니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건국로선관철에로 그들모두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김정숙동지의 위인적품고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 아닌가.

단편소설 《추억》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백두산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신것은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숙동지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낳은 우리 혁명의 선군사적업적의 하나이다.

하기에 저 멀리 불빛이 흐르는 혁명렬사릉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는 우리 수령님의 심중은 더없이 숭엄하시었던것이다.

《(정숙동무, 기뻐하시오. 동무가 것처럼 념원하던대로 이제는 우리 나라가 그 어떤 대적도 단숨에 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강국으로 되엿소.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를 어찌 보려고 하자 우리 **김정일**장군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리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소. 얼마나 통쾌하오. 놈들의 목이 쑥 들어갔지... 장군의 그 배짱과 담력속엔 로천일박사의 몫도 들어있소. 로천일박사가 정숙동무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숙동무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의 세계,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 헌신에 감복되어 지금껏 자기를 깡그리 바치며 국방과학에 기여를 하고있소. 그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들이 박사, 학사가 되어 모두 국방과학부문에서 한몫씩 단단히 하고

있소. 이 얼마나 장한 일이요. 하긴 정숙동무는 그때 벌써 오늘을 내다보았지. 그래서 로천일동무를 믿었고, 리덕현동무를 믿었고...

그렇소. 우리 혁명은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해왔소. 우리의 승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하는것이기에 이처럼 위대하고 영원한것이요.)》 사랑과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혁명.

그 위대한 진리로 한생을 빛내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계시여 길한덕이나 로천일과 같은 곡절많은 인간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을수 있었고 우리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마련될수 있은것이 아닌가.

그 위대한 진리는 오늘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영원불멸하며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위력한것이다.

단편소설 《경암에서의 하루밤》과 《추억》은 물론 생활묘사가 보다 섬세하지 못하고 인물들의 성격적특징들을 두드러지게 파고들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아직 일부 부족점들이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설들은 위인형상단편소설창작에서 일정한 전진을 보여주고있으며 좋은 경험을 시사하고있는 측면에서 부족점보다 긍정적인 공감을 주고있다.

소설가들은 백두산위인들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종래의 도식을 완전히 극복하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생활을 보다 진지하게 파고드는 작가적인 사색과 탐구를 기울임으로써 선군시대 위인형상문학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명언해설

《생활을 통하여 의의 있는 문제를 풀며 사상을 밝히는것은 예술의 고유한 본성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생활을 통하여 의의 있는 문제를 풀며 사상을 밝혀야 참다운 예술로 될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예술은 철학이나 경제학, 력사학과 같이 제반사회적현상들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추상적이며 논리적인 판단으로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인간들의 구체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밝혀낸다. 그런것만큼 예술은 생활을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리지 않고서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그 어떤 인간문제도 의의 있는 사상도 밝혀낼수 없다. 그것은 생활을 떠나서는 그 어떤 예술도 창조될수 없고 예술작품을 통하여 풀려는 의의있는 문제도 사상도 밝혀낼수 없기때문이다. 예술은 생활을 다양하고 생동하게 그려야만 높은 형상적수준에서 의의있는 진실한 문제,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시킬수 있다.

고마워라 어머니의 미소

리해옥

말할수없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나니
늘 보아오던 어머니의 미소가
어이하여 류다르게 안겨오는것인가

천만고생 다하시고도
고생이란 모르시는듯
오늘도 항일모 단정히 쓰신채
함복 웃으시는 그 미소

아, 만일
그 미소가 없었더라면
너인은 어떻게 웃어야 함을
어머님 일찌기 배워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같이 연약한 너인들이 어떻게
엄동설한에 핀 꽃송이마냥 강직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끌어안고 남정들을 떠밀며
그 힘겨운 고난을 헤쳐나갔으랴...

1

나서 처음 겪은 처절한 시련이었다
기운차게 돌아가던 공장들이 벗어나고
밝고 명랑하던 얼굴마다에서
웃음이 깃을 접던 그때

어둠속을 비치는 한줄기 불빛인양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며
한겨울의 꽃처럼
너인의 미소가 피어났거니

웃었다, 너인은
밥주걱을 들었건만 아무것도 줄것이 없어
두팔에 매여달리는 어린것들을 눈물겹게
보다가도
일마친 남편이 들어올 때는

웃었다, 너인은
온기없는 산뜻한 바닥
허열게 입김이 서리는 방에서 떨면서도
운신 못하는 옆집 할머니에게 뺨감을 안겨주며

때로 몇백리를 걸으며 한지에서 밤새운적은 그
얼마
그 길에서 열이 나도 앓지를 못하고
목에 걸려 차마 사탕 한알도 입에 넣지 못하며...

그렇게 마련한 쌀배낭을 지고 집에 들어설 때도

너인은 웃었나니
하나 그대의 별에 탄 얼굴과 터갈라진 입술
불그스레 충혈진 눈동자앞에서는
억센 사나이도 고개돌려 눈굽을 찍었더라

걸음걸음 피보다 진한 웃음을 뿌리며 나아간
강철의 너인, 불굴의 너인들이여
아, 이 너인들의 뒤에는 보이지 않게
인자하게 웃으시는 어머니가 서계시지 않았던가

늘 적게 차례지는 식사마저 대원들께 다 주시고
남몰래 생눈을 움켜드시며 밝게 웃으시던
끓는 죽가마 이고 우박치는 총탄속을 헤쳐오신
그 고생은 다 잊고 환하게 웃으시던-

오, 동지위해 바친 어머니의 그 미소는
이렇게 우리 너인들의 두볼을 타고 흘러
천만석의 쌀보다 대포보다 더 큰 힘되어
사람들을 사회주의수호전으로 힘차게
떠밀었더라...

2

시련의 그때
밤이 어떻게 왔던가
피곤이 몰린 너인의 눈빛에
제일먼저 찾아들던 밤

어서 단잠에 들라고
밤은 포근한 창가림되어
수고많은 너인들 애무하건만

너인은 잠마저 잊은듯
온몸을 벽에 기대이고
그 창가림너머로 유난히 빛나는 북두칠성을
눈물이 글썽하여 바라보았나니

아, 조선이란 큰 살림을 떠메시고
이 밤도 찬눈길 헤쳐가실 아버지장군님
그이의 그 차거운 손을, 그 젖은 신발을
따끈히 녹여드릴수 있다면!-

이 하나의 생각으로
온밤 잠못이루던 너인들
슬며시 비를 들고 새벽길 나섰거니

장군님 지나가실 길을 정성껏 쓸어나갔거니
뒤이어 달려나와 길을 닦는 아들딸들을
대견히 바라보며 웃던 너인이여
령도자에 대한 충정을 그 어려움속에서도
섬처럼 티없이 간직한 조선너인의 웃음이여!

아, 그 고결한 미소가 어디서 움터났는지
그 시원을 헤아릴수록
수령님의 젖은 옷을 품안에 말리며 웃으시던
아아, 어머니의 미소를 목메어 한없이
우러르나니

이렇게 앞서 보여주신 어머니의 숭고한 미소는

시련의 나날 우리 너인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추위도 굶주림도 봉쇄의 불길도 태우지 못하는
수령옹위의 미소, 불사신의 미소를
지켜주시였거늘

고마워라, 이 나라 수천만 딸들을 안아일으켜
세상이 우려했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게 한
장군님따라서 끝까지 붉은기를 지키게 한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어머님의 미소여!

오늘도 어머니는 우리를 굵어보시며
조용히 웃으시여라 웃고계셔라
이 땅의 모든 승리가 다 비껴있기에
나는 그 미소를 한생토록 안고살려니

어머님의 축복

윤정길

해방된 조국에서
아드님께 주고싶으신것 하 많아도
김정숙어머님 장군님께 주신것은
아, 총과 함께
별! 별이었다

손수 지으신 장군복에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
자신의 군모에도 빛나던
별! 별을 수놓아주시였거니

수령님따라
어머님과 함께 군마타고 달리시며
피어린 항일의 전장에서
총을 손에 익히신 장군님

빨찌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께 가장 어울리는것
그것은 총과 함께 다름아닌 별이여서
꽃무늬도 아닌 화려한 장식도 아닌
별을 아드님의 장군복에 새겨주셨으리

장군별우에 사랑담아 녀원을 없어
총대장군의 앞날을 축복해주실적에
그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내 조국의 앞날이 약속되지 않았던가

별과 그리도 깊은 인연 맺으시여
우리 장군님 걸어오신 길우엔
영광의 별 승리의 별 언제나 빛났던가
꼭아보아도 살펴보아도 새기신 자욱자욱은

이 땅우에 펼쳐진 별무리 별무리...

철령을 넘어 오성산을 뚫아
장장 이어오신 선군의 길엔
야전차의 불빛도 별빛처럼 빛났어라
해안포진지만이라 무봉기슭만이라
이 땅에 즐기찬 선군혁명의 로정도
백승의 별들로 새겨저라

총대를 지축삼아 지구를 굴려갈
필승의 담력
령장의 기상어린 최고사령관기에도
빛나는 별, 원수별!

우리 사는 이 지구의 무게가 실려 있는
원수별이여서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르는 이 마음
온 세상을 다 안은듯 든든하구나
온 우주를 굵어보며 신심에 넘치누나

빛나라, 장군님의 별이여
휘날리라 최고사령관기여
원수별 눈부신 그 기폭에 휩싸안거
지구는 인류의 영원한 보금자리되여
온 우주에 가장 복받은 별로 빛나라

아, 해방의 그날에 김정숙어머님
장군복에 장군별을 수놓아주시며
장군님어깨우에 세계의 운명을 엮어주셨다!
총대장군 우리 장군님께 의해 길이 번영할
이 행성의 운명을 축복해주셨다!

생활과 투쟁의 철리를 밝힌 불후의 명언

(중국) 조가명

무릇 명언이라고 하면 함축되고 세련된 언어수단으로 생활의 진리나 교양적이며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유명한 표현, 유명한 문구를 말한다.

명언은 사람들의 뇌리속에 깊이 새겨져 생활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바로 명언에 강한 철학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언의 철학성, 인간과 인간생활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립장은 명언의 매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명언이 생활과 투쟁의 철리를 밝혀야 하는것은 원래 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명언은 언어구사를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인간의 운명문제는 명언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철학상의 문제이다. 그 어떤 인간의 운명문제도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철학적견해와 립장을 떠나서는 풀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명언은 철학성을 띠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명언들은 그 하나하나가 현 시대 투쟁과 생활의 철리를 밝히고있는 불후의 명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력사가 낳은 위인들중의 위인입니다.》

현시대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의 특징이다.

명언에서 철학성은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은 말그대로 철학적명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의 철학적심도는 대단히 깊다.

《인민을 믿는자는 보약이 차례지지만 인민을 등진자는 독약이 차례진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등 그이의 명언들은 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등장한 현 시대의 특징과 인민대중의 지향을 구현하고있다.

《시국이 좋을 때에는 돋보이지 않아도 시국이 어려울 때 돋보이는 사람이 충신이다.》, 《인간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강자가 되고 남을 믿는 사람은 약자가 된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기쁨은 창조에 있다.》 장군님의 이 명언은 제기하는 인간의 운명문제가 심각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사상이 심원

하며 형상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 깊이를 가지고있다.

명언의 철학성은 철학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여 생겨나는것이 아니며 철학적인 양상을 띠다고 하여 보장되는것도 아니다. 지난날 많은 리론가들과 언론인들, 작가들은 철학적인 문제를 취급하여야 철학성이 있는 명언이 나오는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철학을 다루었다고 하는 명언들가운데서 실제로 사람들의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킨 명구는 얼마 없다.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가 다루지 않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진리를 얼마나 깊이있게 파고드는가 하는데 있다. 명언의 철학성은 명언이 밝혀내는 생활철학의 깊이에 있다.

《남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보다 자기 집에 있는 쇠덩어리가 낫다.》는 명언은 철학적론리를 품 명언도 아니고 철학적양상을 띠는 명구도 아니다. 그렇지만 명언은 사람들에게 자기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데 대한 사상, 자력갱생의 정신에 대하여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설득시켜주고있는것이다. 생활을 통하여 립증된 진리를 밝혀주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이 담고있는 철학성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이의 명언은 생활과 투쟁의 지침으로 된다.

투쟁과 생활의 고귀한 지침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의 특출성은 혁명의 원리, 특히 수령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철리를 밝힌데 있다.

《수령, 당, 대중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대중은 뇌수가 없는 육체와 같다.》 등 그이의 이 명언들은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누구나 직감할수 있게 통속적인 비유로 생동하게 밝혀주고있다.

명언의 진가는 그것이 인간의 운명개척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얼마나 참답게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완성시키며 사회를 리상적으로 건설하자면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며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고 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명언이 적지 않지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처럼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진리를 담은 명언은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만이 아니라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

장에 대한 명언들도 수없이 내놓으시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바로 여기에 인생관의 근본핵이 있으며 삶의 참된 가치도 있고 행복의 척도도 있다.》를 들수 있다. 이러한 명언들은 혁명의 원리, 사회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충실성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세우고 그것을 간결명료한 표현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령도자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사람의 인격을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다는것은 참으로 훌륭한 금언이다. 충실성에 대한 이러한 명언들은 인민대중이 수령과 혼연일체를 이루게 하고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정치적력량을 마련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이런 특성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들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치와 무한한 생활력을 가지는것이다.

투쟁과 생활의 고귀한 지침으로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언의 특출성은 또한 력사의 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인민대중에 대한 명언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시기 그 어느 명언들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명언들로 인민대중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데 필요한 사상정신적력량을 마련해주시였다. 그가운데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명언도 있고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선생이라는 명언도 있다.

세상에 인민대중이상 더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는 없으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도 인민을 위해 있고 당활동의 최고원칙도 인민의 리익을 위해 투쟁하는데 있다는 사상을 명언들에 구현하시였다.

《기적은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인민들이 준 필연이다.》와 같은 명언들은 인민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위하는 인민적수령만이 내놓을수 있는 것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계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존대하며 인민을 위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철칙으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신분도, 무엇이나 인민에게 합격되어야 진짜 합격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가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분도 김정일동지이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끝없이 헌신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명언화되어 별처럼 빛나고있다. 투쟁과 생활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의 특

출성은 또한 인간에 대한 고귀한 사랑과 믿음의 철학을 구현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정을 정으로 보답하는것은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다. 그 미덕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꽃피도록 하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의 특징이다. 경애하는 그이의 명언이 것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은 인간사랑의 그 무한한 열도에도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목적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새로운 명언에는 혁명을 하는 목적이 인민들에게 최상의 인격과 최대의 행복을 안겨주자는데 있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이야말로 인간의 품성을 리상적인 높이로 올려세우고 사람들에게 참다운 행복을 안겨주는 최대의 인간사랑이다.

력사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위하는 령도자만이 말을 하여도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말을 하고 일을 해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해주고있다.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 《옛날 속담에는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했지만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이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언들은 숭고한 인간애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미덕의 발현이다.

참된 인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만이 진심으로 남을 위할수 있으며 제 마음이 고와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곱게 본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한결같이 흐르는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믿음》이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 위정자들도 적지 않았다. 한때 세계체제를 꿈꾸던 유럽의 한 통치자는 자기의 심복들에게 그대들이 나를 믿는다니 나도 그대들을 믿는다고 하였다. 그것은 자기밖에 그누구도 믿지 않는 야심가의 위선적인 꾀변이었다. 믿는다는 말로 일시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그는 피할길없는 역경에 이르러 심복들의 배반과 버림을 받게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인류력사상 가장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사랑과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뢰와 항구적인 충성심을 낳게 하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명언들이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뢰와 단결의 특수한 사상감정을 담고있는 명언과 같이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로 조선은 인정미가 흘러넘치는 새 사회의 모습이 활짝 꽃피는 나라로 되고있다.

투쟁과 생활의 철리를 밝혀주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명언의 특출성은 또한 혁명투쟁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가장 적합한 열쇠를 안겨주는 백과전서성과 통속성에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두부분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수많은 명언들을 내놓으시었다.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과 경제건설, 문화건설로부터 일상생활의 도덕률리적인 문제들과 일군들의 사업작풍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예지가 미치지 않은데가 없다.

예지는 위인의 등불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상한 과학적통찰력으로 만사를 정확히 헤아리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정치철학은 령도의 라침판이다.》**와 같이 정치가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명언들을 내놓으시였는가 하면 **《적은 무기로 잡는것보다 먼저 머리로 잡아야 한다.》**와 같이 군사적지략을 안겨주는 교훈적인 명언들을 수많은 내놓으시었다. 그런가 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와 같이 사람들에게 락관적인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고무적인 명언들도 내놓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각 분야의 방침적이며 책략적인 명언들, 사람들의 정서와 레의법절에 이르는 명언을 일일이 다 더듬자면 끝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은 이처럼 백과전서적인 특징을 가졌을뿐아니라 매개 명언이 조선어의 특성을 잘 살려 통속적이면서도 이채롭고 되새길수록 진미가 더해지는 세계적인 명언이어서 누구나 다 좋아하며 공감한다. 그 명언들이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치 아침이슬을 머금은 화초와 같은 생신하고 새별처럼 정기가 넘치는 명언들...

경애하는 그이의 명언들에는 불멸의 진리와 함께 시대의 숨결이 담겨있어 무한한 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무하며 인류의 앞길에 밝은 빛을 더해주고있다.

예로부터 위인의 명언은 놀랄만큼 그 실효가 높다고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언은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교과서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좌표를 안겨주는 둘도 없는 지침으로 되고있다. 그이의 명언은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나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철학을 구현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하나로 세차게 고동치게 하는 무

한한 힘과 지혜로 되고있기에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진보적인류의 심장을 그토록 역세계 틀어잡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레바논잡지 **《알 라야》**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명언은 결코 아무나 쉽게 내놓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명언은 뛰어난 위인에 의해서만 나올수 있는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 주옥같은 명언들을 수많은 내놓으실수 있으신것은 우선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뛰어난 천품에 있다. 비상한 탐구력과 비범한 사색력, 특출한 창조력과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품모, 이것이 그이께서 지니신 천품이다.

김정일각하께서 가치있는 명언들을 많이 내놓으실수 있으신것은 그이의 풍부하고도 거창한 실천활동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각하를 보좌하시며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보살피시고 이끌어오시었다. 이 과정에서 그이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쌓으시었다.

김정일각하의 가치있는 명언들은 이처럼 그이의 뛰어난 천품과 풍부한 실천활동에 토대하고있다.

애급작가이며 평론가인 기브리 알 와흐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에는 명인들이 쓴 글이 많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명언처럼 내용이 풍부하고 과학적인 명언은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이처럼 훌륭한 명언을 내놓으실수 있으신것은 다방면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소유하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기때문이다.

그이의 명언은 생활의 진로를 밝힌 귀중한 교과서로, 투쟁의 기치로 된다.

실로 **김정일**각하는 명인중의 명인,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렇다.

인간의 모든 체험과 지성이 정화된 가장 뜻깊고 교양적이며 교훈적인 내용과 생활적진리를 함축되고 세련된 언어수단으로 감명깊이 표현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언!

혁명의 진리, 인생의 철리를 밝혀주는 경애하는 그이의 명언은 인류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것이며 언제어디서나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의 표대로 영원불멸할것이다.

세월과 개울물

박혜란

파아란 하늘,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개울물, 물가에는 크고 넓적한 바위가 앉아있다.

어디서 시작되었을가, 지심깊은 곳에서 터져오던 샘줄기는 골짜기와 들을 지나 쉬임없이 앞으로만 달리는데... 개울물은 용케도 바위를 뚫고 지나 벼랑끝에 다달았다.

드디어 창창히 열린 파아란 하늘가에 오색령풍한 억만구슬을 뿜어올리며 낭떠러지로 구울러내린다.

순간 개울물은 폭포수가 되어 흐르나니!

한쪽의 그림앞에 서있는 나의 귀전에 문득 철없던 어린시절에 읊던 시구절이 떠오른다.

흰 바위에 앉아서
나는 개울물과 이야기하노라
바위에 바위돌에 돌을 지나
구름인양 나리는 개울물
딩굴어 달리며 쫓으며
무삼 이야기 그리도 기쁘뇨?

...

내가 조기천의 시 《흰 바위에 앉아서》를 알게 된것은 가슴에 붉은 넥타이를 팔랑이던 소년단 시절이었다. 아직 시라는것이 무엇인지 다 몰랐던 나에게 이 시를 배워준것은 당사업을 하던 나의 어머니였다. 아마 그날이 어머니에게는 류다른 추억을 불러오는 날이었던가 싶다. 어쨌든 나는 난생처음 알게 된 어머니의 정서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철없는 나에게 집안일을 전부 맡겨버리다싶이 하고 사업에만 전념하던 어머니한테 시를 외울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나? 그리고 일에 대한 생각만으로 짝 차있던 어머니의 마음속에 시내물과도 같은 서정이 있었겠나?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건 누가 지은 시나요?》

《조기천의 시란다.》

《<백두산>을 쓴 시인 말이나요?》

《그래.》

나는 어머니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어머닌 왜 하필 개울물에 대한 시를 좋아할까? 바다에 대한 시라면 몰라도.)

어느덧 세월은 흘러 어머니의 60돐 생일날이 왔다. 금방 대학졸업증을 받은 내가 작가를 희망하며 배치장을 기다리고있던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생일상을 받아안고 좋은 얘기 한마디하라고 부탁하는

우리들에게 시 《흰 바위에 앉아서》를 조용히 읊어준 어머니는 심연에 묻어두었던 시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만경대혁명학원 졸업반에서 공부하고있던 한 원아처녀가 어버이수령님의 댁을 찾은 날은 주체38(1949)년 9월초 어느날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향하여 인사를 드리는 처녀애를 반갑게 맞아주신 어머님께서는 그에게 빨강계 익은 사과도 깎아주시며 학원생활이 재미나는가,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은가고 물어주시었다.

《전 작문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전번날 어머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빨찌산이야기를 가지고 작문을 지었는데 제가 쓴 글이 학원게시판에 났어요.》

참 용타고 등을 두드려주시는 어머님께 처녀애는 어려움도 잊고 또 청을 드렸다.

《어머님, 이번엔 좋은 시를 하나 골라주십시오. 며칠후에 졸업반학생들의 시랑송경연이 있는데 글씨 내가 아는 시들은 다른 애들이 다 골라잡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처녀애에게 진정 도움을 주고싶으셨다. 어머님께서 생각을 고르시는데 창밖에서는 가을햇빛이 따사롭게 비쳐들고있었다. 햇빛이 가득찬 방안의 벽에는 명산의 폭포수를 형상한 크지 않은 그림이 처녀애의 눈길을 끌었다. 그림이 마음에 드는가고 하시는 어머님께 그는 이렇게 물었다.

《저 그림은 금강산 폭포나요? 묘향산 폭포나요?》

어머님께서 어느 화가선생이 금강산에 가서 그려온 그림이라고 대답하자 처녀애는 부러움에 차서 중얼거렸다.

《야, 나도 한번 가보았으면...》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처녀애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이제 너희들이 학원을 졸업하면 다같이 금강산에랑 묘향산에랑 가보자고 말씀하시었다.

《야, 좋네.》

손뼉을 치며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던 처녀애는 그만 어려움도 잊고 어머님의 손가락에 자기의 조그만 손가락을 걸고 말씀드렸다.

《어머님, 그럼 저와 약속했어요.》

그러는 처녀애를 품에 꼭 껴안아주시며 어머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을 찾자고

너희 아버지들이 백두산에서 목숨바쳐 싸웠다.
너희들은 투사들의 녀원이 어린 내 조국땅을 마음껏 가슴에 안고살아야 한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조국의 미래는 너희들의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더 잘해서 앞으로 조국을 빛내어나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어머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이며 힘차게 대답하는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훌륭한 결심을 안은 처녀에게 제일 좋은 시를 골라 주어야 할텐데 어떤 시가 좋을가 하시며 신문철을 한장한장 뒤져보시었다. 이윽고 시 한편을 골라드신 어머님께서는 이 시가 바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쓴 시인이 금강산인민휴양소에 휴양을 가서 쓴것이라고, 옛날에는 량반부자놈들이나 갈수 있었던 금강산이 오늘은 인민의 휴양지로 변모되고 그곳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마음껏 즐기고있는것을 직접 체험한 작가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고마운 은혜에 한생을 바쳐 보답할 결의를 개울물과 속삭이며 노래한것이라고 이야기해주시었다.

처녀애의 귀전에 백두산녀장군의 다정하신 음성 이 새겨질 때 그는 자기의 작은 가슴에 차흐르는 개울물소리를 들었다.

(그래, 나도 그 개울물처럼 살테야. 항상 흐름을 멈추지 않고 줄곧 앞으로만 달리는 물줄기처럼, 그리고 자기를 바쳐야 할 순간이 온다면 서슴없이 부서져떨어지는 폭포수처럼!)

며칠후였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당에서는 졸업반학생들의 시랑송경연이 진행되고있었다. 무대우에서는 팔소매에 빨간줄을 친 학원복을 입은 단발머리처녀애가 시 《흰 바위에 앉아서》를 격조높이 읊고있었다.

그날은 주체38(1949)년 9월 22일이였다. 수천년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태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들어모신 혁명의 어머니,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였다는 비보를 알리없는 처녀애-나의 어머니는 그 시각 시에 흐르는 맑은 물줄기에 온넋을 적시면서 걱정을 터뜨리고있었다.

...

맑은 물줄기여
나도 너처럼 씩씩하리라
또 싸움의 길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져서 천야만야 창창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면
내 서슴없이 뛰어들리라

어느때나 인민을 위해
너처럼 내 살리라
맑게
쟁쟁하게

줄기차게-

...추억을 더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으로 빛나게 살아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한생을 돌이켜 보았다. 오로지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한생은 너무도 깨끗했고 너무도 열렬했다. 맑고 깨끗한 개울물처럼... 그 맑은 샘줄기를 마음속에 안고산 나의 어머니였기에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일 선참으로 전선에 달려나갔고 평범한 날에도 어머니의 그 위대한 심장에 자기의 작은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살려고 애써온것이 아니었던가.

그날, 백두산3대장군분들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눈을 감은 나의 어머니가 무언으로 남긴 부탁은 과연 무엇이였을가.

나는 어머니의 말없는 당부를 안다.

...너희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높이 모시고 일해나가야 한다. 언제나 흐름을 멈추지 않는 개울물을 뜨거운 심장속에 안고 살거라. 그것이 바로 김정숙어머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길이다...

나의 귀전에는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준 그날의 개울물소리가 들려오는듯 하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맑은 빛을 뿌리던 충성의 별-혁명의 위대한 어머님처럼 깨끗하고 뜨겁게 살라고 속삭이는 그 개울물소리가...

그러면 잠시 멈추었던 내 붓끝은 다시금 내달린다. 개울물처럼...

나는 붓을 달리며 생각한다.

내 마음의 개울물은 아직은 들을 지나지만 이제 골짜기를 지나 바위를 뚫고 흐르리라.

만약 조국에 위험이 닥쳐온다면 내 몸은 붓과 함께 싸우는 전선에 달려가리니, 달려가서는 산산이 부서져내리는 폭포수처럼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서슴없이 내 심장을 바치리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충동이 아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결의만도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던 날 나에게 하던 말을 되새겨본다.

《어머니, 영웅이 되어 돌아올 이 아들을 기다려주세요.》

나의 어머니의 가슴에 이어져흐르고 나의 가슴에 이어져흐르던 개울물이 아들의 가슴속에서도 용용히 흐르고있음을 나는 확신하였다.

세월을 따라 변함없이 흐르는 그날의 개울물.

12월의 얼음장밀에서도 개울물은 돌돌 소리를 내며 흐르고있다.

돌돌, 돌돌돌...

불멸의 영상으로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계시는 김정숙어머님, 그이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며 바치시던 이 땅, 내 조국의 개울물소리다.

뿔성나무

리정욱

마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쳤다. 길가의 락엽들이 바람이 부는대로 이리저리 훑날렸다.

한성민은 머리를 짓수긋하고 걸었다. 잎사귀 하나가 바지가랑이에 매달려 성화를 먹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걸음만 옮겼다.

그의 머리속은 지금 이 마가을의 날씨처럼 어수선했다. 눈이 억실억실한 박기사의 얼굴이 또다시 떠오른다. 집으로 퇴근하던 길에 사무실에 불이 켜져있는것을 보고 들렀다며 변명삼아 말하던 박기사는 불쑥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참, 기사장동진 14호자견기의 실패원인을 찾았다는걸 아십니까?》

순간에 눈이 번쩍 떠졌다.

《그렇소? 거 반가운 소리로구만. ...헌데 동무가 그걸 어떻게 아오?》

박기사의 얼굴이 벌그스레해졌다.

《그... 현장에서 오는 길입니다. 기사장동지가 몹시 관심하는 문제인것 같아서...》

한성민은 마음속을 들여다본듯한 느낌에 속이 언짢았다.

《동문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쓰지 말고 말은 일이나 착실히 하는것이 좋겠소.》

《...》

전화종소리가 방안에 얼어붙은 공기를 깨뜨려 놓았다. 현장에서 오는 전화였다. 박기사가 한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

성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이상했다. 웅당 와야 할 흥분이 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는것이 스스로도 놀라왔다. 아직까지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제성미그대로 현장에 달려나가 기뻐하고 축하하며 떠들썩했을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 흥분이란것도 왕성한 힘과 정열의 표현이며 그 뒤끝에는 일하고싶은 새로운 욕망이 샘솟군 한다는것을 수년간의 체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아는 그였다.

왜... 왜... 기쁘지 않을가? 박기사의 출현으로 기분이 나빠서... 아니, 그쯤한 일에 마음의 변동은 가져올 그가 아니었다.

성민은 눈앞에서 두어줄은 실히 될 잎사귀들이 뱅글뱅글 맴도는것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드센 바람에 쫓기여 하늘높이 날아오르면서도 나무잎들은 미구에 떨어져내릴 자기의 《보금자리》를 불안스레 내려다보는듯했다.

불시에 성민은 자신이 14호자견기개조의 성공을 《두려》워했다는것을, 이 원인을 알수 없는 평온이 아니라 마음속 불안과 동요의 표시임을 깨달았다.

왜서인지 성민은 자신이 가궁스러웠다. 속이 허전해지며 집에 빨리 가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공장기사장이라는 직분을 털어버리고 포근하고 안온한 집안분위기속에서 마음을 풀고싶었다.

...뜻밖에도 집은 조용하였다. 딸이 달려나오며 반길것을 예상했던 성민은 맥이 풀렸다.

평소에 그는 아무리 바쁘고 지쳤다가도 생기가 넘치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집에 들어서기만 하면 온갖 시름과 걱정이 대번에 봄눈처럼 녹아버리고 마음이 개운해지곤 했다.

헌데 오늘은?...

끝내 미련을 버릴수가 없어 행여나 딸이 공부하는 방문을 열어보았다. 다음순간 그는 이새로 새어나오는 탄식을 감추지 못했다.

《음?-》

없는줄만 알았던 딸 정향이는 책상에 붙어앉아서 정신없이 무엇인가 하고있었다. 인기척에 놀란 정향이가 머리를 든것은 그 다음이었다. 어차피 그는 한마디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넌 다 컸다는 애가 인사할줄도 모르냐?》

딸이 급기야 달려나오며 성민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표본을 만드는 정신에 그만... 아버지가 오신것도 몰랐어요.》

성민은 자기가 괜한 신경을 쓰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딸은 늘 아버지를 마중했고 살뜰하고 정겨운 마음을 담아 인사하곤 했다.

아버지 수고했어요 하고... 그런데 오늘은 모든것이 눈에 거슬리기만 한다.

그는 옷방으로 올라가 폭신한 팔걸이결상에 몸을 잠겨버렸다. 살그머니 손을 매만지는 기척이었다. 보지 않아도 딸 정향이었다.

《아버지, 힘드시지요?》

성민은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다. 속살거리는 딸의 목소리가 시내물처럼 흘러들어왔다.

《사실은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대학 수목원에 이상한 나무가 있지 않겠어요? 뿔성나무라고...》

X대학 생물학부에 다니는 정향이는 곧잘 집에 들어와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생물의 진화가 어떻게 하며 말하곤 했다. 아마 그 련속인 모양이다.

《아버지도 아실거예요. 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있는 나무예요. 언젠가 아버지도 말쑥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나무라고요!》

《그래서 어쨌다는거냐?》

《그 나무는 별나게도 꼭 이듬해 봄에 우뢰가 울어야 잎을 떨군다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도 퇴성나무라나요!》

《뭐라고?...》

성민은 흠칫 몸을 떨었다.

울퉁해진 딸의 눈이 성민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온몸에 전율이 오는듯 했다. 그러니 그 나무의 표본을 만드느라고?...

아버지의 심중을 알리없는 정향이는 성민이가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자 잎이 어떻게 새싹이 어떻게 하며 신이 나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성민의 귀에는 이미 딸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그 무엇인가에 호되게 얻어맞은 듯 한 심정이였다.

《그만해라.》

성민은 자기도 모르게 역증을 냈다.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졌는지 모를일이였다. 이전에도 이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성공과 실패, 고민으로 이어진 나날들... 그러나 오늘처럼 기분이 울적하고 신경이 예민했던적은 없었다.

성민은 누구에게선가 꼭 모욕이라도 당한듯한 심정이였다. 이것은 그가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한 보다 복잡하고 심각한 감정이였다.

이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기분은 없어지지 않았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속에서 담배갑을 더듬어 찾았다. 한대 붙여물고 깊숙이 들이빨았다.

오래도록 눈을 붙여보려고 애를 썼으나 종시 잠이오지 않았다. 창밖의 하늘에서는 이지러져가는 그믐달이 희미하게 방안을 비치고있었다.

그가 호흡하는데 따라 실낱같은 담배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가 알지 못할 그림자를 바람벽에 그려놓았다.

세상엔 별난 나무도 다 있다.... 우뢰가 울어야 묵은 잎을 떨군다....

무심히 보아왔던 퇴성나무의 형체가 눈앞에 떠올랐다. 키가 크지 않은 보기 좋은 떨기나무, 가지마다에 붙어있는 길죽길죽한 잎사귀들은 해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신기한것은 묵은 잎째에서 노란색의 작은꽃이 다문다문 모여피는 것이다. 역세다고만 생각했던 그 나무가 우뢰에 못견디여 떨어진다니 마음이 울적했다.

또다시 아까의 충격이 되살아났다. 온몸을 강직시키는듯 한 예리한 충격...

내가 혹시 《묵은 잎》이 아닐가...

성민은 서둘러 이 생각을 부정해치웠다. 그러나 자신이 그 퇴성나무와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는가 하는 집요한 생각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광막한 하늘에서는 여전히 이지러져가는 그믐달과 함께 북두칠성이 조용히 불타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수에서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만큼 고요한 밤이였다.

성민은 거리에 나섰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한결 거뜨할것 같아서였다. 한번도 눈여겨본적 없는 거리의 가로수들이 하나하나 눈에 안겨왔다.

은행나무는 밤사이에도 잎떨구기를 하는지 번번한 포장도로에 쥐여뿌린듯이 잎사귀들이 널려있다. 그 잎들은 멀리로가 아니라 바로 나무밑에 구렁이라도 받은듯이 가지런히 누워있다.

단풍나무는 아름다운 잎사귀들과 마지못해 작별하고있었다. 그 나무는 무척 애쓰다가야 겨우 한잎씩 떨어지군하는데 그러면 잎사귀는 오래동안 공중에 둥둥떠있으면서 《세상만사》를 굽어보다가 비로소 땅에 내려앉아서는 이내 가벼운 바람에도 홀연 어데론가 날아가버리는것이였다.

성민은 문득 드바쁘고 요란스럽던 자기의 지난간 생활도 떨어진 락엽처럼 한풀 꺾이여 사라지는 메아리마냥 가을의 광야에 자취를 감추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견고하고 변함없던 기사장생활에 첫 균열을 가져온 사람은 명석이라는 청년이였다. 그가 공장에 배치되어온 날 성민은 청년과 마주 앉았다.

... 《동문 자동화학부를 졸업했구만. 어떻게 돼서 이 제사공장에 오게 됐소?》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한쪽 볼에 약간 볼우물이 패는 청년은 수집은듯 얼굴을 붉혔다. 영채가도는 크지 않은 두눈이 똑바로 성민을 마주 바라보았다.

《사실 전... ××성에 배치받았었습니다. 그런걸 현장에 보내달라고 떼를 써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요?》

《...》

청년은 눈을 내리깔았다. 서둘러 자기 견해를 표명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가 엿보였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되오. 난 동무가 공장으로 온게 반가와서 하는 소리요.》

《다르게는...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전 다만 대학에서 배운것을 현실에서 써먹고싶었습니다.》

성민은 다시한번 청년을 바라보았다. 대체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리상이 높다. 당장이라도 큰일을 칠것같은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이 청년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건 아닌지. 침착한 청년

의 태도를 봐서는 덤벼칠 사람같지는 않았다.

어쩐지 청년의 일에 관심하고싶어졌다. 그의 지향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음...》

그는 원주필뒤등으로 푹푹 책상을 두드렸다. 어디에 배치했으면 좋겠는지, 욕심같아선 계획과에 붙들어놔다가 일정하게 생산을 파악한 다음에 기술일군으로 써먹고싶었다. 그런데 애를 써서 현장에 내려왔다는 본인의 지향을 꺾고싶지는 않았다.

《동무의 생각을 말해보오.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청년의 얼굴빛이 단박에 달라졌다.

《절 생산직장에 보내주십시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성민은 부지중 웃음이 나왔다. 어린애같은 그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중소. 동무의 소원대로 해주겠소.》

리명석은 준비직장 현장기사로 임명되었다. 성민은 직장장에게 청년을 특별히 잘 도와주라는 말을 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현장으로 내려간 명석은 아예 그속에 잰아들어 버렸다. 매일 현장을 오고가지만 좀처럼 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다. 그의 말처럼 현장에 깊숙이 들이배겨 《배우는》 모양이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설비점검정형을 돌아보려 준비직장으로 갔던 성민은 만든지 오래된 낡은 자전기앞에 우두커니 서있는 명석을 발견했다.

《동문 여기서 뭘하오?》

명석은 와들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무슨 생각엔가 골똘히 잠겨있던 모양이었다.

《기사장동지, 제가 보기엔 이 기계가 너무 낡았습니다. 생산량에 비해 전기, 증기소모량이 많습시다.》

성민은 물끄러미 명석을 바라보았다.

(이 청년은 언제봐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군.)

그는 증기로 인해 거뭇게 색이 바랜 나무통을 푹푹두드렸다.

《이래봐도 30년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만가동을 보장한 기계요. 새 기계에 비해 우월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사장동지, 전 바로 그 관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낡은 기계를 붙안고있겠습니까. 지금이야 21세기가 아닙니까?》

《21세기도 20세기에 토대하고있소. 물론 동무 말도 일리는 있소. 그러나 어찌겠소. 생산을 외면할수 없는걸. 당장 저 기계를 없앤다고 해서 단번에 현대화로 쑥 올라가는건 아니지 않소.》

성민은 명석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지식과 현실은 언제나 그런 모순속에 있는거요. 잘생각해보오. 나도 안이 있으니 언제한번 마주앉기요.》

성민은 선별직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곳은 그의 눈길이 따갑게 잔등을 지저냈다. 이런 일있을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였다.

어느날 명석이 불쑥 그의 방에 들어섰다. 손에는 종이두루말이가 쥐여져있었다. 처음에 느꼈던 섯님같은 학생터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제법 현장에서 습배인 구수한 고치냄새가 푹 풍기여왔다.

《무슨 일이요?》

성민은 물었다. 명석이 역시 바쁜 기사장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는듯 책상우에 종이를 쭉 퍼놓았다.

《이걸 좀 봐주십시오.》

그것은 성민이도 잘 아는 준비직장의 14호자전기 설계도면이었다. 성능으로부터 조작, 흐름식공정에 이르기까지 공장에서 다른 자전기들에 비하면 그중 손꼽히는 현대적인 기계였다. 그는 도면을 더듬었다. 별다른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뭘하자는거요?》

《전 이 기계를 더 현대적인것으로 만들수 없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장동지의 도움을 받자고 합니다.》

명석은 자기가 생각하고있는바를 따로 그런 부분도까지 받쳐서 설명했다. 14호자전기는 자동식이였다. 고치가 들어가면 모든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여나왔다. 그런데 등급별에 따르는 온도조절만은 자체로 하지 못하였다. 명석은 바로 이 점을 혁신할 생각을 하고있었다. 사실 일단 완성되어 돌아가는 기계를 제마음대로 뜯어고친다는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였다. 하겠다고 나선것자체가 대담한 용단이었다.

성민은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선 공장적으로 최신식설비에 속하는 자전기를 자기 집랭동기나 채봉기처럼 마음먹은대로 개조하겠다고 나선것이 놀라왔고 중요하게는 자기 생각과는 너무도 아득한 차이가 있는 점이 놀라왔다.

성민은 언젠가 명석이가 시비하던 낡은 2호자전기부터 갱신하려고 마음먹고있었다. 그런데 명석은 반대로 오래된 자전기는 무시해버리고 현대적인 기계부터 갱신하려고 한다.

그는 책상우에 움푹 들어간 상처가 있는 부위를 오래도록 주시했다.

《이것 보오. 기사동무, 동무의 생각은 물론 좋소. 그러나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요. 그러지 않아도 14호자전기는 부담이 많은데 이판에 뜬어놓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소. 새옷도 단번에 입기보다는 가뭇때부터 입어보고 맞춰봐야 더 맵시있는 옷이 되는거요. 어떻소? 난 2호자전기

부러 개조하려고 생각하고있는데...》

성민은 자기 목소리가 아닌 갈린 목청이 섞여 나오는것이 은근히 화가났다.

혹시 그는 이때부터 불안을 느낀것은 아닌지,

명석은 리해할수 없다는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낡은 기계는 아무리 어루만져도 낡은 기계입니다. 산모가 든든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는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계를 다쳐야 능률도 나고 더 높은것을 지향할수 있습니다.》

《됐소. 그만하오. 뒤두고 가오.》

성민은 전화통을 끄당겼다. 긴 이야기를 했었다 소독이 없을것 같았다. 그는 방안에 들어박혀 며칠동안이고 명석의 도면을 연구했다. 확실히 청년의 생각은 기발했다. 성공만 하면 낡은 기계를 쓰지 않고도 생산을 보장할수 있는 더없이 좋은것이였다.

그러나...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성공하겠는지 실패하겠는지 자신도 명석이도 믿을수가 없었다.

그는 기사장의 위치에서 생각해보았다. 공장의 현실은 첫째도 둘째도 현존생산지표이며 혁신도 개조도 그에 맞는 기술개조에 한한다.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한 미래, 전망적인 착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것이라면 용납해서는 안된다.

성민은 모든것을 생산에 집중했다. 명석이와의 일은 없었던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유혹이란 검질긴것이였다. 머리 한구석에서는 자전기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까닭없이 현장에 내려가면 수십쌍의 눈길들이 자기를 지켜보는것을 감촉하곤했다. 혹시 그자신의 룩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수십쌍의 눈길들은 이렇게 묻는듯했다. 현대적인 기계를 더 좋고 능률높은 기계로 만들자는데 무엇이 잘못된이란 말인가?

그건 옳았다. 명석이 창안대로 하면 생산이 올라가고 일이 험해지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것이 자꾸 발목을 잡아당긴다. 원인을 알수 없는 그 무엇이...

해가 기울었다. 그날도 성민은 착잡한 생각을 안고 퇴근길에 나섰다. 정문에서 그는 명석이를 띄여보았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서성대는 품이 여간만 기다린것 같지 않았다.

성민은 그에게 대답을 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래일아침에 기술협의회를 조직하리라고 마음먹고있었다. 아닐세라 명석은 그를 보자 곧바로 그에게로 뛰어왔다.

《저... 기사장동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뭘 말이요?》

《14호자전기 말입니다.》

(검질기기도 하군...)

《래일아침에 보지요.》

성민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기술협의회는 기사장방에서 열렸다. 한다하는 기술일군들과 직장장들, 고급기능공들까지 다 모였다. 성민은 이 협의회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했다. 허심탄회하게 명석이의 창안을 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싶은것이 그의 의도였다.

먼저 명석이가 발언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놀라움과 경탄, 찬사의 목소리가 구석구석에서 들려왔다. 이어 물을 뿌린듯이 조용해졌다. 할것인가 말것인가 이 문제에서는 누구도 선뜻 결심하지 못하였다.

《자, 기탄없이 의견들을 말해보오.》

누군가 볼썽 일어섰다. 4직장의 박기사였다. 성민은 그를 볼 때마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 잘 생긴 저 얼굴이 예술계통을 지망했더라면...

《두말할것도 없이 명석동무의 창안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지, 만약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며 생산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사장쪽을 힐끗 결눈질하고는 일어설 때와 같이 재빠르게 앉아버렸다. 그러자 예상외의 반응이 일어났다. 박기사의 말이 불씨이기라도 한듯 편이어 두사람이 일어나 박기사의 발언을 부정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로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좋지 못한 발언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정보화, 현대화의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할것을 바라고있다, 때가 안됐소, 환경이 어떻소 하고 물려서기 시작하면 우린 언제가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열띤 목소리들이 맹렬히 오고갔다. 생각밖에도 대담하게 해보자는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성민은 속이 뜨끔했다. 결과가 이렇게 될줄은 미처 짐작하지 못하였다. 그는 망설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의 무견해에 화가 났다.

《종소. 해보지요.》

성민은 결론해버리고말았다....

대기는 사르륵사르륵 락엽떨어지는 소리로 가득찼다. 마치도 한밤중의 고요가 락엽들을 자기에게 끌어당기는것 같았다.

그 다음일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성민은 멀리 시계가 보이는 역사쪽을 바라보았다. 차칸마다 불을 환히 켜 차량들이 구내를 빠져나가고있었다. 저 기차에 몸을 실서 이 불안과 고독을 털어버리고 어데론가 달려갔으면...

정적... 아니, 그에게는 정적이 필요한것이 아니였다....

또다시 생각은 그쪽으로 줄달음쳐갔다.

...성민은 분이 치밀어 명석을 향해 소리쳤다.

《타산이 없는 창안은 창안이 아니라 망안이요. 엄밀한 과학성이 담보되지 못한 발명은 죽은 목숨과 같다는걸 꼭꼭 명심하요.》

《기사장동지…》

명석의 애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성민은 못들은척 씩 하니 그앞을 지나쳤다.

시험결과는 생각외로 좋지 않았다. 어찌된 셈인지 덜삶아진 고치가 무데기로 나오고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속이 답답해났다. 한초 한초가 귀한 이때 생산이 멎었다고 생각하니 억이 막혔다. 심장이 뛴뛴하고 현장의 공기조차 희박하게 느껴졌다.

그는 공장앞 공지로 나갔다. 공원에는 점심식사뒤에 직장을 뛰쳐나온 청년들이 룡구대밭에서 저마다 뽕을 빼앗아쥐고 링안에 던져넣기를 하고 있었다. 뽕이 명중되어 들어갈 때마다 와-와 함성이 터졌다. 성민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후, 가동을 멈춘 I4호자건기에 의한 생산실적보고서가 성에 올라갔다.

그다음은…예견했던대로 성에서 실패료해조가 내려왔다. 그들속에는 성일군이 아닌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가 한명 끼여있었다. 성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14호자건기의 개조를 밀고나가겠는가 그만두겠는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연구사가 인연이 있는 녀성일줄이야…

나이에 어울리는 소박한 옷차림에 현숙한 느낌을 주는 녀인은 첫 순간 성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어대선가 본듯한 인상이었다.

아름답다고 짝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실검실한 눈이며 약간 들릴사한 코, 선이 또렷한 입술이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연구사는 이미 성민을 알아본것이다. 어정쩡한 속에 인사를 주고받았다.

《오래간만입니다. 기사장동무,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군요.》

재빨리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딱히 짚이는데가 없었다.

《기사장동문 여전하시군요. 30년전이나 오늘에나…》

성민은 눈을 깜빡였다. 그럼 지순영이라는 이 연구사가 대학동창이란 말인가, 대학동창… 가만있자, 걸릴듯 하면서도 선뜻 걸리지 않는다.

아, 생각이 났다. 검실검실한 두눈에 가득 담겼던 원망과 비난… 그리 유쾌하지 못한 추억이었다.

리상과 열정으로 뛴뛴하면 대학시절, 전국대학생발명품전시회를 앞두고 대학은 그 준비로 들끓었다. 매 학생들이 실습기간 자기가 연구한것을 내놓고 거기에서 우수한것을 전시회에 올려가게 되어있었다. 저마다 야심을 가지고 자기의 창안을 내놓는 만만치 않은 전시회였다. 어찌보면 전시

회는 대학졸업과 많이 련관되어있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성민은 같은 학부에 다니는 순영이란 처녀가 자기와 똑같은걸 내놓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 인연이 아닌가…》

동무들의 룡담을 귀등으로 들으며 전시회장에 들어선 성민은 처녀의것부터 찾아보았다. 정말 자기의것과 제목조차 꼭 같았다.

성민은 엄습해오는 불안을 꼭 누르며 설계도면과 제작품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순영이의 도면은 착상각도부터 성민의것과 달랐다. 성민이 원래의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고찰했다면 순영의것은 본래것을 조금 변경한 개작품에 지나지 않았다.

은근히 마음속에 스며들던 불안과 위구심이 씻은듯이 사라졌다.

그는 전시회장 입구에서 처녀와 마주쳤다. 처녀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있었다.

《저… 한성민… 동무지요? 좀 만날수 없습니까?》

흥분때문인지 처녀의 목소리가 토막토막 끊어졌다. 아마도 그는 전시회장에서부터 그를 주시한듯 했다. 이어 총총걸음으로 뒤따라오고, 어차피 둘중의 하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것을 생각한듯 했다.

《어쩌면… 저의것과… 꼭 같을수 있어요?》

《글쎄말입니다.》

처녀는 불안한 눈길로 성민을 치며보았다.

《미안하지만 동무의것은?…》

《동무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거의 웨치다싶이 말했다. 성민은 심장이 마구 뛰노는것을 느꼈다. 아무래도 부딪쳐야 할걸 내친김에 생각나는것을 다 쏟아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새롭지 못한 창안품을 내놓아서는 뭘하겠소. 그것이 오늘 동무의 가치를 올려줄지는 몰라도 래일의 조국에는 조금도 보탬이 없소. 난 이렇게 생각하요.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걸음, 백걸음을 날아야 한다고 말이요.》

두개의 창안품가운데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뒤떨어진것이라면 그것은 웅당 철회돼야 하요. 이것은 우리 대학의 명예와도 관련되어있소.》

처녀는 성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문했다.

《만약 뒤떨어진것이 동무의것이라면 성민동무는 그렇게 했겠어요?》

성민은 확고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게 했을거요. 나는 그런 결심을 품고 전시회장에 갔더랬소.》

처녀의 머리가 아래로 수그러졌다.

《동무는… 연약한 녀성한테 너무 모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성민은 잠시 입을 다물고 물끄러미 처녀를 바라보았다.

《진실이 아무리 모질다해도 진실일 때는 그를 따라야 하오. 그것이 과학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우리들의 신념과 인생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처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알릴듯 말듯 입술이 떨리더니 얼굴을 싸쥐고 달려갔다.

그뒤 처녀가 출품한 창안들은 전시회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졸업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이 일을 일부 학생들은 못마땅해하였다.

《너무하구만, 처녀의것을 짓밟다니?》

《과학은 독점물이 아니지, 앞선것도 있고 뒤진것도 있지 않나?》

처녀는 타격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자포자기에 빠져 고민하고있다는 소식이 성민의 귀에까지 날아들었다.

성민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며칠동안 눈앞에서는 얼굴을 싸쥐고 울면서 달려가던 처녀의 모습이 떠날줄몰랐다. 그는 자기와 처녀의 립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았다. 힘들게 창안한것이 락선되어 실망했는데 거기에 혹독한 말까지 퍼부어졌다. 어쩌면 이 창안을 놓고 대학전기간을 총화할수도 있는데 어찌 처녀가 고민하지 않겠는가?

성민은 랭정히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그 처녀를 도와주면 안된단 말인가? 그 누구의 창안품이든 앞날의 조국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만이지 다른 무엇이 또 필요하단 말인가, 벽차게 뛰는 젊은 심장은 다른것을 이야기했다. 두개의 창안품을 합쳐 더 훌륭한것으로 만들어 처녀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자. 그러면 처녀는 신심을 잃지 않고 그 교훈에 토대하여 더 높이 날것이 아닌가, 그것이 조국을 위해서도 처녀를 위해서도 더 좋을것이다.

성민은 처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처녀의 회답은 거절의 편지였다.

《동무의 제의는 고맙지만 전 그 호의가 싫습니다.》

결국 성민의것이 우수한것으로 평가되어 전국 대학생발명품전시회에 올라갔다...

《그때 일을... 용서하오!》

《아니요. 사실말이지 그때 기사장동무가 몹시 원망스러웠답니다.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후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기사장동무의 립장이 옳더군요. 전 오늘까지도 기사장동무의 그 충고를 잊지 않고있답니다. 제가 과학탐구의 어려운 길을 끝까지 올수 있는건 전적으로 기사장동무의 그 충고가 많은 도움을 주었기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니 참 고맙소. ...그런데 순영동무가 어떻게 공장에 오게 됐소?》

《호... 성에서 연구소에 의뢰했더군요. 도와달

라고말이에요.》

《그러니- 이대로 내밀겠다는거요?》

《그럼요. 끝장을 봐야지요.》

순영은 전문가다운 눈으로 세세히 기계를 뜯어보았다. 한참후에 그는 감탄을 표시했다.

《착상이 좋군요. 대담하고 기발하고... 기계에 여간 박식한 동무가 아니군요. 좀 덤빈것이 탈이라고 할지.》

성민은 낯을 찌프렸다. 좋다는 말보다도 인차 돌릴수 있다는 말이 더 반가울것 같았다.

《내 생각은... 당분간 보류했으면 하는데...》

《그건 어째서요?》

《...》

《혹시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소. 실패한 책임은 물론 내가 다 지겠소. 그러나 우리 공장 실정에서 지금 당장은 힘드오. 생산만 하재도 힘이 드는데 언제 <공상>적인 착상까지 현실에 도입하겠소. 제대로 될려면 낡은 자전기부터 개조했어야지...》

순영은 눈을 크게 떴다.

《놀랍군요. 기사장동무의 그 견해가... 그것도 모르고 난 지난날의 열정과 패기가 여전하다고 기뻐했지요.》

성민은 몸을 반쯤 돌려버렸다.

《이랬든 지금 당장은 못하겠소.》

《전 이 창안을 적극 지지해주고싶어요. ...섬섬하군요. 기사장동무가 그렇게 생각할줄은 몰랐어요. 어제날의 공적으로 오늘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오산이에요. 더 높이 날려는 사람만이 자기 위치를 지킬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더 할듯하던 순영은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차츰차츰 어둠이 깃들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성민의 그림자마저 얼마 안있어 거기에 합세하고 말았다. 그는 어둠속에 홀로 서있었다. 순영이가 던져준 충격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까닭없이 울분이 치솟았다. 서글펐다. 무엇때문에, 어디에서 오는 서글픔인지 알길이 없었다.

다음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리명석이 얼굴이 빨갧게 충혈된채 기사장방에 뛰어들었다.

《기사장동지, 시험을 포기하고 생산을 내밀기로 했다는것이 사실입니까?》

성민은 청년을 우울하게 쳐다보며 반문했다.

《그게 그렇게 놀랍소?》

《놀랍습니다.》

명석은 거침없이 토로했다.

《전 기사장동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소? 더 정확히 말해서 실

패에 대해 충고할 때 동무는 어떻게 생각했소?》

《전 기사장동지의 충고를 더 분발하라, 더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확신성있게 밀고나가라는 고무로 받아들였지 포기하라는 소리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미래는 격차가 있다는 말은 잊었구?》

《그래 현실이 어쨌다는겁니까? 우리의 현실이 미래와 그렇게도 먼 거리에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미래는 곧 오늘과 래일의 현실이지 그렇게 먼것이 아닙니다.》

섭섭합니다. 기사장동지가 현실을 그렇게 볼 줄은 몰랐습니다. 납았습니다.》

성민은 책상을 쿵-하고 내리쳤다.

《내가 납았다구? 이 한성민이가 납았다구?》

청년의 눈에 눈물이 펑 돌았다. 성민의 격노같은 건 아무런지 않은듯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이 공장으로 올 때 기사장동지를 생각하며 왔습니다. 기사장동지는 잊으셨을지 모르나 전 잊지 않고있습니다. 언젠가 대학실습기간 공장을 견학했는데 기사장동지는 직접 자기가 공장을 안내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학생동무들, 과학은 남의것을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앞서야만이 진실한 과학으로 되는겁니다. 조국의 미래가 동무들을 부르고있습니다. 과학이 나라를 펴야 조국이 나라를 펼수 있고 경제도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선배와 스승들의 뒤를 따르지 말고 그 어깨를 디디고 날개를 더 힘있게, 크게 펼치시오. 동무들이 과학을 대하는 자세가 그럴 때만이 우리의 현실과 래일은 더 확고해질것입니다.>

전 대학기간 그 말을 잊지 않고 공부를 했구 배치도 이 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던 기사장동지가...》

명석은 말을 채 맺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성민은 머리가 아파났다. 며칠동안의 고뇌와 피로가 한순간에 온몸을 덮쳐눌렀다. 신경질이 시작되었다. 점차로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전갈지 않음을 깨달았다. 믿음과 기대어린 눈빛대신 낯선사람을 대하는듯 한 의혹과 불신의 눈빛이었다.

오늘에야 그는 드디어 자기가 무엇을 몰랐는가를 깨달았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점과 안목으로 현실을 볼줄 모르고 오늘의 현실에 발맞추어 자신을 채찍질하지 못한 결여된 책임감이 결국은 새세대 청년의 높은 열정앞에 밀려난것이다.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존엄을 어떻게 지켜갈것

인가?

오늘 성민이앞에 누구도 이런 물음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련쇄적인 계기속에서 그 무게와 가치를 따질 줄 아는 사람,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자기를 서슴없이 분석하고 사색할줄 아는 사람인 경우 스스로 이런 물음을 제기할수 있는것이다.

성민은 자기모순의 복잡한 감정과 신경질을 이겨내고 이 밤 이런 물음을 제기할수 있을만큼 리성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그 리성이 가져다준 물음은 심각한것이였다. 그것은 자기의 운명과 관련된것이다.

젊었던 시절엔 삶의 열정과 강렬한 지향, 충만한 힘과 믿음이 있어 오늘날은 우려깊은 사색은 필요도 되지 않았다. 인생은 그 재부가 줄어들 때가 와서야 비로소 걱정이 생기고 이렇게 남 다자는 깊은 밤에도 거리를 거닐며 생각하는지.

리명석의 목소리가 쟁쟁히 귀전에 들려왔다. 그의 말이 옳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미래는 곧 오늘의 현실이며 현실로 전환시켜야 할 래일인것이다. 그 래일을 성민은 현실에 빙자해서 부정했다. 그것은 그의 사고방식이 납았고 그 사고방식을 떠받들어줄만한 능력이 없다는것을 의미했다. 이미있던 능력은 벌써 자기의 힘을 잃고 회복할 시간이 없다.

눈앞에는 느닷없이 4직장의 박기사얼굴이 떠올랐다. 몇년전 그가 공장에 왔을 때는 쟁쟁했었다.

새기술발명중도 받았고 조사부문에서는 실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가늘어진 실을 자동적으로 검사하는 장치에서 실패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던가, 그때도 바로 명석이한테 말했듯이 했었다.

박기사는 물려섰다. 이번 명석이의 창안을 대하는데서도 그는 시종일관 나와 같은 립장이였다.

은연중 공장에 현실을 빙자해서 미래지향적인 돌격정신을 저해하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성민은 또다시 온몸에 전율이 오는듯 했다.

《저를 채찍질해주던 대학시절의 그 위치에 기사장동무가 서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했어요.》

순영의 답답하나 의미깊은 목소리가 울리였다.

성민은 가슴이 빠근해움을 느끼였다. 젊은 시절, 그는 나라의 과학발전을 중심에 놓고 그 어떤 《의리》감이나 《도덕》, 《체면》도 구애됨이 없이 순영의 발명을 서슴없이 부정하고 자기의것을 내세웠다. 지어는 자기의것마저 부정하고 더 높은것을 지향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

성민은 이들 두사람에게 안겨준 실망감을 오늘 의 태도변화나 몇마디의 말로 씻어버릴수 없음을 가슴아프게 절감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중대한 결심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이 왔다. 락업이 지고 숲은 성글어지면서 자기가 가꾸어온 열매들이 뚜렷이 형태를 드러내는 계절에 서서 성민은 지금 자기자신을 보고있다.

봄과 여름, 가을은 그만하면 괜찮았다. 대학시절은 물론이고 기사장 30년동안에 공장은 그와 함께 남부럽지 않은 공장으로 발전해왔다.

뒤돌아보면 쭈그렁이열매를 몇개 꺾어쥐고 자기 인생의 나머지기간을 유지하려는 그런 비굴하고 초라한 욕망으로 한자리에 들어붙어 살아가야 할 가련한 처지는 아니였다. 그러나 괜찮았던 내가 오늘과 래일을 연결하는 정점에서 장애물로, 지난날의 낡은 드렁기로 끈질기게 붙어있다면 그것은 귀중했던 지난날조차 말아먹는 행위로 될 것이다. 오늘앞에 성실하지 못한 《죄》로 래일에는 주인이라는 존재조차 희미해지지 않겠는가?

성민은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그렇게 말아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얼굴이 싸늘해졌다. 손으로 뺨을 어루만졌다. 사흘째나 깎지 않은 콧잔란 턱수염이 꼭꼭 손바닥을 찔렀다.

…단풍든 계절, 누렇게 황이 든 잎사귀들이 스스럼없이 땅에 떨어져내린다. 자기를 키워준 정든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유독 한나무만이 고집스럽게 잎을 달고 다가오는 엄혹한 겨울을 맞아인다. 모진 추위와 눈바람, 비바람도 웅케 이겨낸다.

아직도… 대기는 쌀쌀하였다. 추위에 나무들이 떨었다. 어디선가 얼음이 깨지는 미미한 소리가 들렸다. 부근부근한, 땅이 밟히는 감촉이 났다. 봄이 오려고 서두르는것이다. 때를 맞춰 살얼음이 지나간 내가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소리가 났다.

나무들이 한껏 기지개를 켜다. 뿌리는 있는 힘껏 즈름 빨아올렸다.

가사

폭풍을 안은 백두의 기상
한몸에 어려 나래칩니다
하늘을 담은 천지의 정기
미소에 가득 넘쳐납니다
아 위대하신 우리 장군님
그 영상만 봐도 힘이 납니다

지니신 예지 번개와 같아
순간에 앞길 밝히십니다
호탕한 웃음 우뢰와 같아

새싹이 움트는 봄계절, 봄이 왔다고 소식을 알리는가, 첫 우뢰가 대지를 흔들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는 우뢰소리에 견디지 못하고 잎을 떨어버렸다. 엄혹한 겨울은 이겨냈지만 우뢰를 이겨낼 힘은 더는 없었던것이다....

《아니, 기사장동지가 아니십니까?》

성민은 정신을 차렸다. 인적없는 깊은 밤중에 이름을 불러대는 사람이 섬찍하게 느껴졌다.

뜻밖에도 그는 박기사였다. 성민임을 알아보자 멀리서부터 싱글뽕글한다.

《이 밤중에 어떻게?...》

《동문 뭐요?》

《친척을 바래우려고 역엘 좀...》

불쑥 성민은 그가 측은해보였다. 더없는 쓰라림과 련민, 후회의 감정이 그를 휩싸안았다. 만약 그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목적했던바를 끝까지 실현했더라면...

그와 대조되는 명석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이제 당장이라도 기사장을 시키면 당당히 할수 있는 사람이다. 성민은 이미 결심이 되어있었다.

여느때없는 기사장의 류다른 《애정》에 박기사가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가보오.》

성민은 그를 떠밀었다.

(어찌하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이다지도 힘든것일가.)

그는 비록 자리를 내놓기로 결심은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하였다.

성민은 앞에 있는 앙상한 나무가지를 매만졌다. 싸늘한 감촉이 폐부로 흘러들었다. 그러나 나무는 죽은것이 아니였다. 새로운 《삶》을, 약동하는 봄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숨결이 높아짐을 느꼈다.

힘이 납니다

김재룡

천만의 심장 울리십니다
아 위대하신 우리 장군님
그 음성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천선길 천리 주름잡아
승리의 만리 펼치십니다
인민의 행복 꽃피우시며
락원의 길을 당기십니다
아 위대하신 우리 장군님
그 손길 따를수록 힘이 납니다

숨결

리정수

불, 불이 흐른다. 수백수천의 불빛이 수천척지 하막장에 불흐름을 이루었다. 조용히 흐르는 불흐름이 아니다. 움썹움썹 솟구치고 내닫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세차게 뒤채이는 불흐름... 인차에서 내려 막장으로 들어가는 탄부들의 머리우에서 비치는 안전등불빛의 흐름이다.

나도 그 흐름에 끼여 막장으로 들어간다. 해빛 찬연한 세계와 점점 멀어짐이 알린다. 그러나 들어갈수록 심장을 광광 울려주는 세찬 박동을 느낀다. 압축기소리, 탄을 가득 실은 광차의 동음, 교대시간을 알리듯 쿵쿵쿵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 그것이 길을 재촉하는 신호이기라도 하듯 불흐름은 더욱 빨라진다.

걸음은 걸음대로 빨라지고 그에 따르는 말소리 역시 걸음에 박차를 가하듯 기세차고 다급하다.

《여, 이거 늦은것 같아. 빨리 가자구.》

《늦긴 왜 늦어. 정시아.》

두 청년의 말소리다.

《오늘 연도환영에선 노래부르는 가수는 없었어도 가슴이 찡해오는데.》

《그게 시인들의 재간이라는게야 평양에서부터 우리를 고무해주자고 왔다는데 간단하겠어. 난 속으로 울었어.》

《하여간 멋있어. 이 길이 전조선길이고 우린 전초병이란 말이지. 군복을 벗었는데 다시 전초병이란 말을들으니 감정이 이상해. 동문 군대복무를 해보았어?》

《못해보았어. 경공업부문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여기 진출해왔지.》

《난 전연에서 복무했어. 원쑤와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초소에 나갈 때마다 뭐라고 할가, 엄숙해지고 무거운 사명감을 안게 되고, 하여간 조국을 통채로 안은듯한 기분이었지, 난 지금 그때의 그 기분이야.》

《그러게 빨리 가자구. 정시보다 먼저 도착하면 안된다든가.》

《그래 가자구. 그런데 이상하지. 연착이란 말은 있는데 미리 도착한다는 말은 왜 없을까. 철도에서 나온 말이겠는데 옛날엔 자주 연착했던 모양이야. 지금두 빠르게 도착할것 같으면 우정 멈춰세웠다가 시간에 맞추어 들어가지 않나.》

《쓸데없는 소리, 그건 규률이야. 사고날수 있거든. 그러나 우린 빨리 갈수록 좋아.》

《그래. 그런데 전교대 친구들이 얼마나 퍼냈을

가.》

달음박질을 놓기 시작한 그들의 몸에서 탄부의 《장구류》들이 덜그덕거린다. 그들앞으로 푸른 섬광을 번쩍이며 석탄을 가득실은 광차들이 우줄 우줄 밀려나온다.

《수옥동무, 수고하누만.》

한 청년이 건드려진 소리로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어야, 꽃다발을 받았군요.》

《평양에서 내려온 시인들이 준거야. 받으라구.》

《어야, 그걸 내가 왜 받아요?》

처녀의 새된 소리가 울리는데 갱안을 드르렁드르렁 울리며 광차들이 춤추며 지나간다. 기름기가 지르르 도는 석탄이 불빛에 번쩍인다. 한 청년이 받아안았던 꽃다발을 운전공처녀에게 던져주자 다른 청년은 자기의 꽃다발을 눈앞으로 지나치는 석탄더미에 쿵 쏘는다. 그리고는 들썩하게 웃으며 달려간다. 정말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

불빛만 날아지나는 어둠속이어서 자세히는 볼 수 없었으나 굴길에서 토막치듯 흘러간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2.8직동청년탄광 탄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알수 있었다.

사람들은 수천길 어두운 막장길과 탄가루가 날리는 채탄장에 청춘들의 아름다운 생활이 있다고 하면 표상에 잘 떠오르지 않을수도 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나는 탄광에 처음 와본다. 평소에 그토록 동경하면서도 선뜻 내짚지 못했던 걸음이다. 영화나 텔레비존화면, 책에서나 보고 말로만 들어온 탄광마을, 막장, 저 탄장...

사람들은 뿔었다.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위해 바빴고 녀인들은 남편들을 전투장에 내세우기 위해 분주했다. 뭐니뭐니해도 남편들이 건강해야 석탄이 팡팡 나온다는것이 탄광마을녀인들의 지론이었다. 아이들은 그들대로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 지켜선 석탄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으로 얼음판에 나갈짚도 없다.

그렇수록 탄부들은 더욱더 땅속깊이 들어간다. 바깥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콘베아를 타고 흘러나오는 석탄폭포는 더욱 세차지고 석탄산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채로운 로동과 생활이 수천길 땅밑에서 순간의 멈춤도 없이 평양시간에 맞추어 펼쳐지고있었다.

화실에 들어가 활활 타는 석탄처럼 일을 해도

말을하고 걸음을 걷고 사랑을 해도 불같이 뜨겁게, 세차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문득 갭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만났던 한 청년의 말이 돌이켜진다. 그는 내가 탄광에 와서 느낀 소감을 말하자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탄광은 주체47년 인민군군인들이 개발한 탄광입니다.

우리 탄광의 이름을 한번 음미해보십시오.

2.8직동청년탄광...

<직동>이란 이름이 어떻게 유래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우린 우리의 감정에 맞게 <곧을 직>에 <움직일 동>을 씁니다. 말하자면 곧바로 나간다는 뜻이지요. 말하자면 당과 조국을 석탄증산으로 받들기 위해 그 어떤 곧은 암반도 곧바로만 뚫고나가려는 우리 탄부들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지요.

우린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화제에 오르게 하지 않으렵니다. 이번에 우리 시대 영웅인 김유봉동무도 우리 탄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한 말이였다.

그 말속에는 자기 일터에 대한 사랑과 자기 맡은 임무에 대한 긍지와 높은 책임감이 숨배어있었다. 소박한 그들의 말속에서, 앞을 다루어 막장에 들어가는 발자욱소리에서 나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우리 탄부들의 심장의 박동을 듣는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가는 걸음이 아니다.

수억만년전에 형성된 석탄은 수백년동안 인류의 문명과 사회발전에 많은 진보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문명과 발전의 한치한치는 얼마나 눈물겨운 사연들로 엮여진 것인가. 그 한치한치를 위해 해빛 한줄기 보지 못하고 피었다사라지는 동발꽃마냥 착취자들의 채찍밀에 두들겨쳐처럼 땅속을 해마다 속절없이 숨져 버려터짐에 묻히던 인생들이 지난날의 탄부들이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나라의 주인으로, 사회주의건설의 굳건한 기둥으로 서있는 사람들이 우리 탄부들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석탄을 검은금이라고 하시며 자신께서 조금만 더 젊어도 막장에 들어가 탄을 캐겠다고 하신 말씀을 전해듣고는 눈물을 머금고 석탄증산으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전국각지에서 달려온 당원들과 세대군인들, 청년들과 녀인들...

지금은 탄광마을의 주민구성도 달라졌다. 못새만 지저귀던 심산의 고요를 깨뜨리며 첫발파를

터뜨린 개발자들의 자손들이 이제는 막장을 인계받았고 날마다 석탄전선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사가집이 꼬리를 물고 들어닿는다. 온 나라의 마음이 탄전에 다 닿아있었다. 그만큼 그들의 생활도 다양해졌다. 집꾸림새와 말소리, 지어는 음식솥찌까지도...

하지만 탄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심장의 피는 한숨결로 높뛰고있었다.

그들은 총과 기계도 옷과 쌀도 모두 탄이 있어야 나온다는것을 잘알고있다. 그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마다 새해를 맞으며 보내주시던 신년사의 전투적과업에 석탄생산을 기본전선의 하나로 내세워주시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석탄전선을 첫자리에 세워주시신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탄으로 당을 받들고 탄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사람들, 그들은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볼 체면이 없다며 막장을 떠나지 않고있다. 석수가 쏟아지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채단장을 구원하고 굴간이 무너지면 동발깎질을 씌으면서도 굴진을 멈추지 않는다. 막장에 동발이 떨어졌다는것을 안 탄부의 안해들이 가족소대를 못고 수십리산관에 들어가 동발목을 베여내린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에 불을 보내지 못하고서야 어찌 뜨뜻한 방안에 앉아 탄고장덕을 누리겠는가 하고 하면서 석탄산을 옆에 놓고도 탄절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탄부들이다.

탄가루에 비록 얼굴은 거매쳐도 가슴속엔 옥보다 더 깨끗하고 진실한 량심과 의리를 지닌 사람들.

그들은 알고있다. 암반을 뚫으며 땅속깊이 들어갈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 더욱 가까와 짐을, 그 마음의 웨침인듯 발파소리는 끊길줄 모르고 채탄기는 만부하, 만가동을 걸고 압축기는 만바람을 일으키고 석탄은 물결쳐나 오는데 탄부는 더욱더 어머니대지의 품속깊이로 들어간다. 그들의 심장의 박동으로 머릿우에서 뻗어나가는 안전등불빛은 그래서 더 밝고 강렬한 것이며 그것은 끊을수 없는 피줄처럼 수백수천줄기가 되어 이 땅 깊은곳에서 흐르고있다.

불, 그것은 용암이었다.

그 용암의 세차고 뜨거움에 조국의 숨결은 더욱 높아지고 그 숨결에 의하여 내 나라는 더욱 역세고 더욱 기름지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이 떠올라 세상에 빛날것임을 나는 수천척지 하막장에서 보고있다.

새 아침

김선환

승용차는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었다.
 량권의 푸른 가로수들은 봄바람에 흐느적거리며 한결같이 어서 오라 손질하는듯 했다. 티없는 새 봄빛이 차창밖에 소용돌이쳤다.
 푸른 하늘엔 솜같은 흰구름이 뚱뚱 떠서 즐거운 이 마음을 축복해주는듯 싶다.
 허지만 나에겐 질풍처럼 달리는 승용차가 어떤지 굵게 여겨져 안타깝기만 했다.
 마음은 벌써 평양에 가있었다.
 꿈이나, 생시나? 어제 보도매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또다시 귀에 쟁쟁 울려온다.
 제일동포교육자들에게 공화국의 교수 박사의 학위학직을 수여함에 대하여...
 김차렬! 황성구!
 (아, 나의 소꿉지질 잊지 못할 친구들, 조선학교동무들... 어서 손을 잡아보자. 가슴을 으스러지게 부둥켜안아보자! 너희들이 교수 박사가 되다니!)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는 나의 눈앞에는 40여년 전 이국땅의 눈물젖은 나날들이 언뜻언뜻 펼쳐졌다.

X

그 시절 우리 셋은 하마마쯔조선학교 5학년생이었다.

어데 가나 붙어다녀 세쌍둥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면에서 신통히도 융합되었다.

상급생인 상룡을 따르는 마음도 하나같았다. 중급반 3학년생인 상룡은 학교적으로 소문이 뜨르르한 힘장수이며 체육에는 명수였다.

한번은 어느 상급생이 철봉에서 현수를 스물다섯번하여 거기에 모였던 학생들을 놀래웠다.

아마 학교적으로 단연 1등일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며 모두들 무척 부러워하였다.

이때 나의 친구인 《꼬마땅크》 성구가 수군거리는 학생들앞에 불쑥 빠져져나와 《아직 1등이라고 단정할순 없어... 상룡형, 한번 본때를 보여주어요!》하고 상룡의 손목을 다짜고짜로 잡아당겼다.

상룡은 철색의 너부죽한 얼굴에 정찬 미소를 띄우며 《됐어. 힘 자랑할 때가 따로 있지...》하고 바위처럼 움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땃명의 조무래기들이 우-밀려가 《그러지 말고 한번 보여주어요! 우리한테도 힘키우는 법을 배워주세요. 어서요!》하고 하나같이 상룡의 팔에 주렁주렁 매달려 야단을 쳤다.

상룡은 힘내기자랑을 하고싶지 않았지만 힘 키우는걸 가르쳐달라는 조무래기들의 소원만은 거절할수 없었다.

그는 조선사람이 일본땅에서 살아가느라 하면 힘

이 강해야 한다는 제판의 주장을 안고있었던것이 다.

나는 그가 철봉대앞에 나서자 제가 학생들앞에 나선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그를 오래전부터 친형처럼 따랐다.

줄줄이 딸만 넷을 낳던 끝에 태어난 나는 형님 가진동무들이 부러워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억세고 강한 형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것은 나의 절절한 소원이었다. 그만큼 그를 따르는 나의 마음은 강렬했다.

상룡은 숨죽이고 지켜보는 학생들의 못시선앞에서 서른번의 현수를 식은죽먹듯 제끼고는 예순번을 넘겨 철봉대에서 멋진 동작으로 땅우에 훌쩍 뛰어내렸다.

《야-야-》환성이 터지고 뒤이어 짹짹 박수갈채가 터졌다.

나는 마치 제가 예순번의 현수를 제끼듯 가슴이 후련하였다.

그날부터 《힘장수》라는 그의 별명은 더 빛을 뿌리었다.

《소환이,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사나이는 그에 못지않게 체력이 든든해야 해!》

공부도 잘하는 상룡의 말은 나의 가슴깊이 박혔다.

그는 그러면서 나에게 철봉, 평행봉을 열성껏 배워주었다.

나는 지금도 현수를 처음으로 열번 제겼던 날을 잊을수 없다.

내가 네번째로 현수를 아홉번까지 가까스로 제껴 힘이 진하여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자 《소환이, 일어나라! 넌 조선사람이기에 죽어도 열번을 채워야 해! 어서 다시하라!》 상룡은 엄한 눈길로 쏘아보며 웅쳤다.

나는 그의 비장한 눈길에서 가늠할길 없는 무서운 힘을 느꼈다.

그의 눈길이 무수한 바늘이 되어 나의 온몸을 찌르듯 녹초가 된 날 일으켜 세웠다.

《우릴 말끝마다 <조센징> 하고 멸시하는 왜놈들을 이길려면 힘을 길러야 해! 너를 언제나 뒤꽂목에서 못살게 구는 끼요시놈을 단때에 꼬꾸라뜨릴 일념안고 기어이 열번을 채우라!》

나는 상룡의 불같은 말을 들으니 알미운 끼요시의 상판이 그려졌다.

나는 벌떡 땅을 차고 일어나 철봉대를 으스러지게 잡아 찢먹던 힘마저 죄다 짜내여 끝내 현수를 열번 하였다.

《만-세! 소환선수 현수 열번 돌파 단연 1등의 영예를 쟁취! 하하하...》

상룡은 이렇게 웅치며 나를 냉큼 들어올려 뱅글뱅글 돌면서 기뻐 어쩔줄 몰랐다.

그의 까만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자 가슴이 뭉클

하였다. 그에게서 뜨거운 친혈육의 정을 감촉하였던것이다.

《우리 조선사람이 무엇이 부족하여 왜놈한테 굶신거리야 하겠나.》

상룡은 자주 나를 고무해주며 체력단련을 이끌어주었다.

용감하고 온 근육에서 힘이 샘솟는듯 상룡을 보면서 기운이 부쩍 솟구친 나도 것처럼 용감무쌍한 조선소년이 되리라 굳게 마음다지곤 했다. 하지만 상룡에게도 해빛과 같은 밝음과 함께 그 음암과 같은 어두움도 있었다.

그는 황혼이 스러져가고 별빛이 흐를 때면 홀로 학교뒤 푸른 언덕 풀밭에 벌렁 누워 하모니카 불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즐겨부른 곡조는 하나같이 구슬프고 쓸쓸한것들이었다.

《아리랑》, 《봉선화》의 감상적인 음색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사정없이 허비였다.

그 곡들은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부르던것이라고 한다.

북해도탄광의 오소리굴속에서 하루 12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그의 아버지는 시큼털털한 막걸리 한잔에 거나하여 저 멀리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갈린 목청으로 그 노래들을 부르며 두고 온 고향산천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다 한다.

《언제면 푸른 언덕아래 돌돌 흐르는 고향의 맑은 시내물을 다시보게 될고... 왜놈들이 원쑤다!》 하고는 눈물로 주름잡힌 얼굴을 적셨다고 한다.

나도 상룡의 애수에 넘친 하모니카를 듣느라던 저녁마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부모님들의 고향을 머리속에 그려보게 되었다.

야산에 붉은 감 주렁주렁 열리고 들판에 황금물결 설레이는곳이 내가 그려보는 어머니의 정든 고향이었다.

나는 그럴 때면 어쩐지 가슴이 미여져 눈곱이 뜨거워졌다.

《형, 우리도 부모님들의 고향에 돌아갈 날이 있을가?》

《꼭 돌아갈 날이 있을거야. 우리는 조선학교에서 조선말과 글을 열심히 배우고 학부형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야 일제의 책동을 짓부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앞당길수 있을거야.》

상룡은 나의 손목을 으스러지게 잡고 이렇게 말하고는 눈빛을 빛내었다.

그럴 때 그는 듬직한 어른처럼 보이였다.

그렇수록 상룡에 대한 나의 믿음과 존경은 굴러가는 눈덩어리처럼 날따라 커갔다.

그 시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전 조선을 삼키려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무고한 우리 동포들을 죽이고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어린 마음에도 격분을 자아냈다.

미제는 일본땅을 조선침략전쟁의 보급기지, 후방기지로 전변시키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되는 재일조선동포조직을 일시에 말살하기 위해 탄압공세를 압암리에 꾸미고있었다.

패망한 일제는 강점자인 미제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깊숙이 발을 박고있었다.

일본 곳곳에서 안개속에 묻힌듯한 총재모살사건, 렬차전복사건, 백주의 은행살인강도사건 등 온갖 모략음모사건이 속출하였으며 그것을 옮가미로 하여 로조간부들에 대한 검거투옥이 감행되었다. 바야흐로 일본전국에 파쑈광풍이 휘몰아친것이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하고 따스한 봄빛은 대지를 적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훈훈히 젖어들었다.

꽃잎처럼 하들하들한 옷차림의 녀성들은 봄향을 풍기며 물결처럼 흘러가고있었다.

우리 셋은 어느날처럼 즐거운 등교길에 올랐다.

《꼬마땅크》 성구는 잠시도 곧바로 걷는법이 없다. 길바닥의 돌맹이도 걷어차고 나풀나풀 나는 나비도 쫓아가고 무성한 백양나무속에서 짹짹거리는 참새를 고무총으로 쏘기도 하고... 그에겐 나타나는 모든것들이 장난질의 좋은 대상이었다.

그는 무척 활동적이다.

키다리 차렬은 성큼성큼 걸지만 말이 적다.

그에겐 향긋한 봄기운이 그닥 느껴지지 않는듯 결눈 한번 팔지 않는다.

그는 아마 오늘도 그 어떤 어려운 수학공식을 머리에 새겨 푸느라 여념이 없는것이리라.

그는 가끔 셋이 함께 걷다가도 돌연 《풀렸다!》 하고 환성을 지르고는 수학기제의 풀이방법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하였다.

그토록 그는 탐구적인 사색을 즐겼던것이다.

그는 벼락이 떨어진다해도 덤비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웅심깊은 성품이었다.

급하고 활동적인 성구와 은근하고 사색적인 차렬은 정반대되는 성격으로 하여 자주 옥신각신 다투곤하였다.

한마디로 성구는 빈달구지 굴러가듯 소란스러운 형이고 차렬은 잔잔한 호수물처럼 고요한 형이다.

나는 언제나 그들가운데 끈은 기둥처럼 서서 중재역할을 하였다.

어느쪽에도 조금도 기울지 않고 양쪽에 납득이 가도록 화해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정 풀기 힘든 문제에 봉착하면 나는 상룡의 힘과 조언을 요청하였다.

《오늘은 반시간나마 일찍 떠났으니 우리 우시야마(두마리의 소가 격전을 벌리다가 두마리가 엉켜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진 산)에서 잠깐 놀다가자!》

청높은 《꼬마땅크》 성구의 말에 나와 차렬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이젠 하급생도 아닌 우리가 등교길에서 장난에 마음 팔리다니, 그냥 가자.》

《야 차렬이, 큰 어른이 된듯 뽀내지말라. 넌 말이 밀구멍으로 호박씨 까는것이 탈이야.》

《뭐, 밀구멍으로 호박씨 잔다고? 내가 언제 호박씨를 쫓니? 넌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비는게 탈이야. 담벽에다 맨머리박기하듯.》

《뭐라구! 담벽에다 맨머리박기한다고? 야- 내

가 동화에 나오는 우둔한 곰같아. 넌 뭐야, 돌다리도 살얼음진 강물 건느듯 벌벌 떠는 겁쟁이야!》

《겁쟁이라구, 넌 엉킨 철조망에도 얼굴을 들며 미는 무지한 망둥이야!》

《무지한 망둥이라고... 너 정말 한대 맞아볼래!》

그들은 언성을 높이며 눈알을 부라리며 씹씩 황소숨을 쉬며 불꽃튀듯 맞섰다.

키는 작지만 가슴이 짙 버그러진 성구의 두주먹이 부르르 떨었다.

《아-제발 그만두어! 시시한걸 가지고 신경을 왜 칼날처럼 세우니... 성구야, 우린 오늘아침 청소당번이니 일찍 가야 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시야마에서 놀자 응.》 내 이말에 성난 성구는 가까스로 열을 식히는듯 했다.

원래 성격이 온화한 차렬은 성구만 조용해지면 전과가 전달되듯 인차 호수처럼 조용해진다.

사실 그때 나도 성구의 우시야마란 말에 마음이 끌려 동의했었다.

잔등에 대어섯명의 학생들이 타고앉아 놀수 있는 커다란 돌높이가 10여미터 넘는 뱀처럼 구불구불 내려간 대형미끄럼대, 미끌미끌하여 상하지 않고 오르내리기 좋은 《원숭이미끄름》 나무며 갖가지 울창한 나무가 있는 우시야마는 아이들의 흥미를 한껏 돋구어주는 놀이터였다.

나는 그때 까놓고 말해서 청소보다도 오늘 작문숙제인 《우리 집》 작문랑독을 잘해서 칭찬을 받으려 학교에 빨리 가서 또 한번 열심히 랑독연습을 하고싶었던것이다.

어느덧 우리는 교사정문입구에 다가가고있었다. 맨 선참 다람쥐처럼 달려가던 성구가 출입문앞에서 우뚝서버렸다.

그는 한자리에 못박힌듯 움쭉도 하지 않았다.

《?!...》

나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성구야, 왜 그러니?》 하고 돌처럼 굳어진 성구곁으로 다가섰다.

《저것봐, 저게 뭐야?》 성구는 열빠진듯 출입문을 쏘보며 말했다.

출입문에는 곱하기표식처럼 《X》 자형으로 두 겹고 기다란 두 판자가 박혀있었고 거기엔 《폐쇄》라는 굵직하고 새까만 한자어가 어마어마하게 적혀있었다.

나는 가슴이 섬적하였다.

성구와 차렬이는 꿀떡은 빙어리처럼 입을 하 벌린채 돌처럼 굳어져있었다. 사위는 물뿌린듯 고요하였다. 이맘때면 들려오던 뿔차는 사내애들의 고향소리도 고무줄 뛰어넘기를 하며 부르는 녀학생들의 노래소리도 어데로 갔는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산속 깊은 절간앞에 선듯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였다.

(학생들은 대체 어데로 갔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굴리는데 아래마울에 사는 용담이가 가방을 덜렁이며 달려오면서 《오늘부터 학교문을 닫았다.》하고 상점거리쪽으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학교문을 닫는다는것이 무슨 소리인가?》

성구가 얼굴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우리 운동장쪽으로 돌아가보자.》 곰곰히 생각하던 차렬이가 하는 소리이다.

우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운동장쪽으로 슬금슬금 걸음을 옮기었다.

운동장에는 까마귀처럼 새까만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나의 가슴은 널뛰듯 활랑거렸다.

학교에 웬 도적놈이 들었는가? 선생님들은 다 어데로갔는가? 비구름이 덮치듯 마음이 어두워졌다. 운동장둘레에 선 푸른 황철나무 잎새들이 바람결에 설레이고있었다.

학교곁에 사는 한 체소한 조선로인이 주름잡힌 창백한 얼굴로 《소환이네들이로구나.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본놈들이 우리 조선학교를 강제해산시켰단다.

악독한놈들, 우리의 피땀이 스민 학교인데 반드시 되찾을게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거라.》하고 정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로인의 눈에서 물기가 반짝이였다.

로인의 말에 나는 눈에는 눈물이 펴 돌았다.

성구와 차렬의 눈곱도 젖어들었다.

씨름도 하고, 뿔도 차고, 달리기도 하던 가지가지 추억들이 스배여있는 정다운 운동장이 경찰들의 구두발에 밟혀 신음하는듯 했다.

아, 이제는 작문숙제를 랑랑한 목소리로 읽지 못한단말인가. 선생님의 재미나는 우리 나라의 옛말도 다시는 영영 듣지 못한단 말인가. 수업전에 장난을 치며 캐득거리던 정겨운 동무들은 언제면 다시 만날가.

이런 생각으로 여지껏 귀엽게 느껴지던 참새들의 짹짹거리는 지저귐도 슬픔의 목소리처럼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우리 셋은 백리길을 걸어온듯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되돌아왔다.

《족발이새끼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은 학교인데 왜 뺏느냐말이야!》

성급한 성구는 헤어질 때 이렇게 웨치며 주먹만한 돌맹이를 분풀이하듯 힘껏 걷어쳤다.

나의 마음도 울분으로 꿈틀거렸다.

차렬이도 말없이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쥐고있었다.

조선학교에 대한 그리움은 노을처럼 피어올랐다.

다음날 조선학교 탈환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전 시내의 동포들이 한결같이 일떠섰다.

혈기왕성한 청장년들이 중심이 되어 남녀로소가 한사람같이 뭉치였다.

비장한 투쟁으로 24시간만에 동포들은 교사안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어가 학교건물을 점거하였다.

그날부터 앓아버티기 통성투쟁이 시작되였다.

동포들이 학교안에서 침식을 하였다.

식량이 모이지고 후방물자들이 모아졌다.

기속사식당은 동포들의 식당으로 변했다.

통성자들은 주먹밥 한개로 끼니를 예웠다.

점거투쟁에서 녀맹위원장이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여러분, 우리의 피땀이 스며있고 우리 민족의

낮이 높뛰는 동포들의 희망이며 등대이며 미래이며 삶의 보람인 우리 조선학교를 목숨으로 지키시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선지피를 씻으며 절규하는 너맹위원장의 장렬한 모습은 동포들의 투쟁열의를 활화산처럼 불태웠고 경찰들에겐 공포를 안겨주었다.

상룡은 너맹위원장을 때린 경찰의 곤봉을 감쪽같이 빼앗아 누구도 모르게 처리해버렸다.

경찰은 혼나간사람처럼 곤봉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었다. (곤봉을 잃어도 철직이 되기때문에...)

상룡은 투쟁위원회의 지시로 학생책임자가 되어 후방물자나르기와 학교안과 밖의 동포들을 면밀히 연결하는 연락임무를 맡았고 반동들의 움직임도 정찰하게 되었다.

이 투쟁에는 중급학생전체와 소학교 5, 6학년생이 망라되었다.

《꼬마땅크》 성구는 연락과 자기 맡은 임무를 용감성과 민첩성으로 훌륭히 수행하여 선생님들과 동포들의 찬사와 사랑을 함뿍 받아안아 용기백배하였다.

투쟁은 장기성을 띤 징조를 보이고있었다.

경찰서도 지방사무소도 시장도 투쟁대오의 기세에 눌리워 잠잠하면서도 학교를 개교하게 하라는 요청에는 《상급의 지시이니 어쩔수 없다.》고 단마디로 짜르고 말았다.

그에 따라 우리들은 광범한 일본인민들에게 학교 폐쇄령의 반동적본성과 그 죄행을 날날이 폭로하여 그들의 지지동정을 받기 위한 삐라선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먹물을 부린듯한 달없는 야밤에 첫 삐라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일본국철로동자들이 밀집된 기관구살림집주변에 삐라를 붙이는 일이었다.

《민족교육의 배움터인 조선학교를 돌려달라!》

《피를 짜내고 뼈를 갈아세운 조선학교를 왜 빼앗느냐!》

《우리는 제나라 말과 글을 하루빨리 배우고싶다!》

《일본인민들이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뜨거운 성원을!》

차렬이와 성구, 나는 한조였다.

맨 앞선 성구가 전주대에 풀칠하고 두번째 차렬이가 심메터가랑 떨어져 삐라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만한 간격을 떨어져가다가 미처 붙이지 못한 곳을 꼭꼭 붙여나가는 짜인 공정이었다.

난생처음 해보는 위험한 일이기에 우리 셋은 이틀전부터 동작을 익숙하기 위하여 학교뒤산에 올라 훈련을 열심히 하였다.

우리는 서로 호흡을 맞추자고 다짐도 하였고 비상시엔 터지는 파편처럼 산산 흩어질것을 약속하였다.

기관구주민지역이 한발한발 다가올수록 우리의 심장은 후둑거렸다.

나는 검은 나무그림자를 보고도 제깎에 와뜰 놀래며 잔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주인없는 들개들이 가끔 멍-멍- 짖어대는 소리가 그지없이 스산하였다.

우리 셋의 높뛰는 심장의 박동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셋중에서도 돌돌 만 뼈라몽치를 겨드랑이에 끼기가 꺾두룩한 차렬이가 공포증이 제일 심하였다.

나는 차렬의 부들부들 떠는것을 제 몸의 한부분처럼 생생하게 감촉하였다.

《차렬이, 기운을 내라. 겁먹으면 일을 망쳐.》

나는 이렇게 차렬이에게 타이르듯 말했지만 사실은 겁잡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모대김이었다.

역시 1번수답게 《꼬마땅크》 성구가 담이 제일 컸다. 《날따라 뒤지지 말라!》 성구는 이렇게 낮으나 힘차게 웨치며 총알처럼 달려가 첫 전주대에 날파람있게 풀칠을 하였다.

그의 동작은 민첩하고 정확하였다.

그의 작은 몸집은 축구뿔이 굴러가는듯 하였다.

그에 비하여 차렬의 동작은 매우 뜨직뜨직했다. 키크고 여원 차렬이는 바람에 휘어져 꺾어질듯한감을 주었다.

그가 첫번째 붙인 삐라는 하마트면 바람결에 날아날뻔 하였다. 가운데만 겨우 붙은 삐라는 네귀가 바람에 팔락거렸다.

그 삐라에는 차렬이의 초조한 마음이 거울처럼 비껴있었다.

나는 그 삐라를 꼭꼭 붙이면서 조장이란 책임감을 다시금 무겁게 느꼈다.

상룡이 행길까지 따라오면서 나의 손을 꼭 쥐며 《조선소년의 슬기와 용맹을 펼치겠다는, 어서 빨리 조선학교에서 즐거운 조선말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어떤 일도 해낼수 있어!》하고 고무해주던 말이 귀전에서 쟁쟁 울리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전신에 새힘이 솟구치었다. 차츰 두려움도 겁도 가셔지자 우리는 삐라붙이는데만 열중하였다.

우리는 30장계선을 넘어서면서 차차 담이 커갔다. 차렬의 삐라붙이는 솜씨도 한결 나아졌다.

(차렬이, 팬찮아!)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성수가 났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가던 차렬이가 자그마한 가계방앞에 우뚝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툭 멎는듯 했다.

《경...경찰이!》

조용히 다가선 나에게 차렬이가 사시나무 떨듯 우들우들 떨며 숨넘어갈듯 말했다.

《차렬이, 저쪽으로 뛰라!》 나는 이렇게 다급히 웨치며 검은 그림자를 유인하려고 우정 바짝 다가섰다.

숨막힐듯한 순간이었다.

헌데 검은 그림자는 화석처럼 왜서인지 까딱하지 않았다.

(?!...)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두눈을 크게 뜨고 그림자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그림자는 사람모양을 그대로 도려낸 간판이었다.

그제야 나는 온몸이 땀에 화락 젖어있다는것을 느끼었다.

《차렷이, 간판이야. 넌장!》 내가 이렇게 말하고 차렷의 손을 잡아끌어서야 그도 《후》 모두숨을 쉬었다.

나는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간판에 다가가 침을 탁 뱉고 돌아섰다.

나는 마지막 50장짜 뼈라를 열번도나마 꼭꼭 누르고 억척같이 붙이었다.

우리가 주민지구를 벗어나려는데 어느 골목에 선지 첫닭이 우는 소리가 대기를 흔들며 들려왔다.

고개길을 오른 우리는 약속이라든 한듯 손목을 굳게 잡았다.

우리는 첫 임무를 기어이 수행하였구나! 하는 환희에 넘쳐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차렷이와 성구의 까만 눈동자는 새벌처럼 반짝이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날개 돋친듯이 홀가분하였다.

《경…경찰이!》 돌연 성구가 방금전의 차렷의 흉내를 내며 벌벌 떠는 바람에 우리는 하하 소리내며 웃었다.

별찌가 포물선을 그리며 우리의 머리우에서 흘러갔다.

우리의 첫 성공을 축하하듯.

우리의 마음은 불덩어리를 껴안은듯 뜨거웠다.

우리를 마주한 상룡은 《조선소년용사 소환이네의 첫전투의 승리를 열렬히 축하한다! 비록 월계관은 없어도 상룡식 축하인사를 받으라.》고 방송원처럼 줄줄 엮어대더니 나를 냉큼 잔등에 업고 강기슭 오솔길을 냅다 달렸다.

《형! 무거운데 내려놓아요! 창피해요.》

《장수라는 <칭호>까지 받은 내 힘을 아직도 믿지못해 깔보다니 그 맛을 톡톡히 보아라.》

상룡은 홀몸으로 달리듯 날 업고 근 50미터쯤 단숨에 훌훌 내달렸다.

나는 상룡의 장수함에 놀랐다.

그의 땀판같은 잔등은 뜨거웠다.

나는 상룡의 진정어린 축하가 가슴속에 뜨겁게 흘러들어 온몸이 후더워졌다.

어느새 불같이 피어나는 새벽노을이 어린 강물도 홍에 겨워 춤추듯 했다.

상룡에 대한 믿음과 존경은 바다처럼 깊어갔다.

뼈라임무수행을 통하여 우리 셋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져갔다.

드디어 조선학교를 되찾게 되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처럼 우리의 마음의 키도 쑥쑥 자라오르고있었다.

그러나 잠잠하던 호수에 돌연 폭풍이 인듯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상룡형이 미군의 총에 맞았대!》

따스한 봄날 내가 금방 조선학교 교문에 들어서는데 몸서리치는 끔찍한 소문이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나는 얼음물을 온몸에 뒤집어쓴듯 섬찟하였다.

(상룡형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전신의 피가 꺼꾸로 뒤집힌듯 심장이 할

랑거리고 정신이 아찔하였다.

귀속에 벌레가 날아든듯 웅웅거리고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건 헛소문이야. 상룡형이 죽을리가 없어!)

나는 한참만에 도리머리를 저으며 차렷이와 성구를 찾아 헤매었다.

군데군데 학생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물속에서처럼 어둡거렸다.

《소환이…전화줄을 끊다가 그랬대!》

어느새 나타났는지 성구가 내곁에 바싹 다가서며 숨가쁘게 말했다.

그의 귀밑살이 푸들거렸다.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그의 얼굴이 나의 눈동자를 찌르듯 박혀왔다.

《성구, 그게 사실인가? 누구한테 들은 소린지 난 도무지 믿을수가 없어!》

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에게서 아니라는 말이 나올것을 고대하였다.

《정말이야, 지금 교장실에서 전교적인 장례위문단이 조직되었대… 아, 상룡형 이…》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성구는 주루르 흘러내리는 구슬같은 눈물을 손등으로 뺨 씻었다.

나도 눈물이 핑 돌고 코등이 시큰거렸다.

푸른 백양나무에서 우짖는 참새들의 울음마저 구슬프게 심장을 허비였다.

오후에 나도 장례위문단에 망라되어 상룡이네 집으로 갔다.

그의 집은 강기슭에 자리잡은 초라한 판자집이었다.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두눈이 퉁퉁 부어오른 나보다 훨씬 곱슬거리는 체소한 상룡의 누님이 우리를 맞이했다.

누님의 잔등에 업힌 갓난애기가 불에 덴듯 울며 무척 보채었다.

몇사람만 들어서도 서로 이마를 맞조을듯한 좁은 방안엔 사방 막대기를 휘저어도 거칠것 없는 구차한 살림이었다.

비가 새여 지도처럼 자리난 한쪽벽 한가운데에 굴상자가 놓였는데 그 우에 상룡의 까만 학생복 차림의 사진과 낡은 하모니카가 얹혀있었다.

나는 흰도금이 군데군데 벗겨진 낫익은 하모니카를 보자 눈곱이 불에 지지운듯 했다.

너학생들은 벌써 쿨쩍거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었다.

《상룡아, 네가 학교를 하루만 못가도 그토록 보고싶다던 조선학교동무들이 찾아왔다.

왜 말이 없느냐. 한마디라도 하렴 응!… 한마디라도… 정 말 못하면 그렇게도 즐겨불던 하모니카래도 시원히 불러마, 야-상룡아! 네가 친동생이 생겼다고 그리도 기뻐한 소환이도 여기 왔구나… 그렇게는 못가, 못간다! 상룡아!》

누님의 박박 가슴을 허벼널듯한 통곡소리에 감전된듯 방안에 울음판이 터졌다.

《으앙!-》 잔등의 애기가 고사리같은 두손을 들고 불에 덴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나는 물목이 터진듯 왈각 쏟아지는 불같이 뜨거운 눈물을 훔칠념도 못하고 스러져가는 황혼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듯 고

독하게 하모니카를 불던 상룡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가늘게 우는듯한 하모니카소리가 귀에 쟁쟁 울려왔다.

뒤이어 《소환이 축하한다! 상룡식 인사를 받오라.》하며 환희에 넘쳐 날 업고 억세게 달리던 상룡의 팔팔한 모습이 눈앞에 우뚝이 떠올랐다.

아, 그렇게도 장수처럼 억센 형이 죽다니! 참말로 이젠 형의 활달한 모습도 친형같은 뜨거운 사랑도 보지 못하고 영영 가슴에 안을수 없단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나의 가슴은 옥죄여 들었다.

누님은 울어대는 애기를 업은채 방바닥을 맨손으로 피나도록 내려치며 실신한듯 대성통곡하였다.

동네아주머니들이 누님을 달래이며 밖으로 데려나갔다.

이국땅에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기둥처럼 믿던 남편까지 잃고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마저 빼앗긴 상실의 아픔을 이 세상 그 누가 그 무슨 힘으로 달랠수있으랴! 울어도 그 모진 상처를 어이 가실수 있으랴! 나는 넋을 송두리채 잃은 사람마냥 멍청하니 서서 다시 상룡의 손때 묻은 하모니카를 지켜보았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하모니카를 거둬들여 쓰다듬고있었다.

선생님의 가느다란 흰 손가락이 경련이 인듯 바르르 떨고있었다.

나는 슬픔이 울컥 치밀어 어푸러지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상룡의 청천벽력같은 죽음은 우리들에게 지울수 없는 충격과 아물지 못하는 심한 상처를 남겼다.

다음날 저녁 차렬이와 성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차렬이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상룡이 총에 맞던 날 밤에 있는 사실을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상룡의 조카인 갓난애기가 독감에 걸려 이를째 고열에 시달리며 자지러지게 울고있었다.

누님은 주사 한대만 맞으면 열이 떨어지겠는데 돈이 없어 애만 태우니 내가 무슨 엄마인가고 클쩍거리었다.

조들조들 말라든 어린 조카의 입술을 지켜보던 상룡은 두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뺨-씻으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 길로 약방에 찾아가 상룡은 며칠안으로 꼭 갓났으니 주사약 한대만 달라고 통사정하였으나 뽕대만 받았다.

살벌한 이역땅을 원망하며 그는 정처없이 헤매었다. 불현듯 대기를 켜는 미군놈의 비행기의 앙칼진 소리에 피폭 정신이 들었다.

언제인가 비행장주변에서 파철무지를 보았던 생각이 떠오른것이다.

상룡이가 멀리 떨어진 미군비행장어귀에 갔을 때에는 벌써 어둠의 장막이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철조망결에는 파철이 너저분했으나 누구도 감히 다가서기 저어하는 곳이었다.

상룡은 위험을 느껴 주춤거렸다.

하지만 그는 당장 숨넘어갈듯 불쌍한 갓난애기를 생각하여 용기를 내었다.

그는 보조병놈의 눈을 피해가며 파철을 퍼그나 모았다. 그는 그만 돌아서려 했으나 앙칼진 소리를 내며 런던아 출격하는 미군비행기를 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전에 담임선생이 《미국놈들이 조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거래들 머리위에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쏟아붓고있다.

일본의 미군기지가 원쑤이다!》하는 말이 머리에 갈마들었다. (귀축같은 놈들!) 이렇게 속으로 웅키는 상룡의 두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일었다.

(평화로운 무고한 우리 동포들의 머리위에 죽음의 폭탄을 퍼붓는 야수같은 놈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웅키며 어둠을 타고 철조망으로 다가가 비행장으로 들어간 전화줄을 찾아쥐었다. 그는 파철더미에서 주은 줄칼로 땀을 철철 흘리며 전화줄을 끊으려 했다.

조국에 있는 삼촌이며 친척이며 조국동포들을 지켜주고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였다.

그가 은밀히 돌아서려는데 《땅!》하는 야무진 총소리가 대기를 흔들었다.

미군보초병놈이 쏜 흉탄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였다. 피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큰길쪽으로 두세걸음 옮기던 그는 그만 풀숲에 쓰러졌다.

순찰하던 두 경찰들이 달려오는 구두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숨지는 순간에조차 《며칠 굶었는데...배가 고프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누님...》이라고 외우며 운명하였다. 그의 그 말속에는 조선학교에도 동포들에게도 티만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려는 의로운 마음이 깊이 담겨져있었다. 그는 열다섯살 방금 돈은 참대순같은 애 어린 꽃나이였다... 《상룡형!》

나와 성구는 이렇게 피타게 웅키며 목숨지는 순간에도 조선학교의 명예와 조선사람의 존엄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상룡의 고결한 마음에 그만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다.

창밖의 골쪽같은 쪼갯달도 우는듯 했다.

차렬이는 살빠진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도표에서 온 형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계속 차근차근 하였다.

...요즘 일본정부의 조선인조직과 동포들에 대한 민족적천대와 멸시, 광란적인 탄압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자 서로 주장이 엇갈리어 우왕좌왕하는 정황이 조성되었다.

일본정부와의 정면충돌을 고취하는 극단적인 주장과 조직을 강화하여 동포들의 철석같은 단결을 이루어 조직을 보호하여 정세를 주시하며 좋은 기회를 기다리자는 주장이었다.

상가집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설움으로 일제에 대한 분노가 골수에 사무친 조선동포들이기에 일제의 탄압공세에 폭력적인 항거로 맞설려는 주장이 강렬했던것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역땅에서 일본정부와 맞서싸운다는것은 승산없는 무모한 모험이라고 했다.

이런 흔들림으로 동포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상이는 날따라 첨예화되어 충돌로까지 번져져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공포

와 불안으로 휘저어놓았다.

그 누구도 이 암담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타계책을 내놓지 못하고 바람앞의 등불마냥 몸부림치고 있었다. 게다가 일제의 마수가 조직안에 시시각각으로 뻗치고 있었다.

제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는 중중첩첩 애로와 난관이 막아나선것이다...

나는 끝없는 울창한 밀림속에 갇힌듯 앞뒤 가려볼 힘도 없고 머리가 아프기만 했다.

일이 어쩐지 아찔한 벼랑끝에 선듯 불안하였다.

성구와 차렬의 얼굴에도 먹장구름같은 그들이 비껴있었다. 우리들의 근심을 키질하듯 날마다 불길한 소식들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담임선생님이 야밤중에 정체를 피한에게 몽둥이타격을 맞아 입원하였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겨우 사과 몇알을 구해들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간 우리들은 붉은 피가 습배인 흰 붕대를 이마에 칭칭 감은 담임선생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비통함과 의문이 났을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본신임무는 어디까지나 공부를 열심히 하여 조국을 잘 아는것이며 앞으로 조국을 떠메고 나갈 훌륭한 일군이 되는것이라고 일깨워주곤하였다.

우리 선생님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던 일본 우익깡패들이 폭행을 가했던것이다.

열이 오른 청년들은 욱욱 버르더라는것이다. 사태는 험악하였다.

선생님은 병문안 온 우리들을 매우 반갑게 맞이하였다. 허나 선생님은 우리하고 마주 앉았어도 다른 생각에 깊이 잠기였다.

우리가 깎아드린 사과도 손에 쥐기만 하고 입에 대지 않으시였다.

《선생님,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깊은 상념에 잠겨있던 선생님은 우리의 물음에 한숨을 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두운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없구나. 이 거치른 이국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다면 일본의 반동놈들도 이렇게까지는 날치지 못할것이다.》

길가의 조약돌처럼 밟히는 이역살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형님이 숨지면서 신신당부한 꽃망울같은 사랑하는 상룡이의 운명마저 지켜주지 못해 아침이슬처럼 지게 한 자신이 원통하고 혐오스럽기 그지없다.

아...미래의 꽃봉오리인 너희들의 운명은 또... 누가, 누가 지켜줄텐가... 암흑을, 비운을 밀어제끼는 해빛이, 광명이 그림다.》

(아, 상룡은 선생님의 조카였구나!... 선생님!) 나는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장례식날 하모니카를 쏠어보던 선생님의 비통한 모습을 그려보았다. 차렬이와 성구의 흐느낌소리가 방안에 간간이 돌리였다.

꼭절 많은 엄혹한 현실은 어린 우리들의 뜨거운 우정에도 사정없이 찬물을 들썩였다.

며칠후 한 청년에게서 우리는 또다시 뼈라붙이

는 임무를 받았다.

상룡도 담임선생도 없는 때여서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였다. 더우기 《요시다내각을 타도하자!》 《일본반동경찰은 해산하라!》라는 구호의 내용도 어텐지 깨름직하였다. 조선학교탈환투쟁때의 의로운 마음과는 달리 마음이 켕기였다...

목적지로 가는 고요한 밤길이었다.

《성구, 우리가 이 뼈라를 붙여야 하겠니?》

사려깊은 키다리 차렬의 물음이었다.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 벌써 조선소년의 명예와 용명을 잊었니? 그게 무슨 연약한 소리가?》

성급한 성구의 말소리는 벌써 높아졌다.

《그저 욱욱거리지만 말라! 담임선생님한테라도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어봤으면 해서 그런다. 뼈라내용이 이전과는 다르지 않니.》

《그럼 너는 어찌자는건가? 무슨 뽀족한 수라도 있는가?》

《나도 그건 딱히 모르지만 지나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물러서는건 비겁쟁이야 비겁쟁이!》

성구의 말은 대뜸 거칠어졌다.

《함부로 깔보지 말라! 잘 생각해보는것도 비겁쟁인가! 눈먼 하늘소처럼 혼자 우쭐렁거리면서...》

《뭘, 눈먼 하늘소처럼 우쭐렁댄다고! 야-너처럼 우물쭈물 굴지말라. 그러다 우리 일을 다 망치겠다. 애당초 예서 썩 사라져! 소환아, 차렬인 때놓고가자. 변절자같은것!》

《변절자라고 흥! 마음대로 고아대라! 길인지 함정인지 가리지 않고 덤비기만 하면 단가! 눈쁜 참봉처럼.》

《눈쁜 참봉? 야-진짜 말 다했어!》

나는 당장 주먹질을 할듯 눈알을 부라리며 맞서는 둘사이를 겨우 떼놓았다.

불잡은 나의 손을 뺀 뿌리친 차렬이는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성구는 씩씩 황소숨을 몰아쉬며 분김을 삭이지 못해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는 땅속깊이 잦아드는듯 기운이 쏙 빠졌다.

제살을 베어주어도 아가와하지 않던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살뜰하던 동무들인가. 현대 오늘은 왜 원썩진것처럼 티각태각 기를 쓰고 맞서는가?

나는 성구가 앓는 차렬이를 위하여 밤새껏 벌둥지를 쑤시다 이마의 군데군데를 벌침에 쏘여 통통 부어오르면서도 끝내 반사발되는 산꼴을 얻어다 마시게 하던 일을 뜨겁게 회상하였다.

차렬이 또한 성구의 수학공부를 도와주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수십명의 일본아이들과 돌싸움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서로 제몫을 아끼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 용감히 싸워이기지 않았던가. 친형제와 같은 우리들사이가 요즈음 왜 자꾸만 버그러지는가? 아...

세월이 흘러흘러 락엽이 덧쌓여 봄이 찾아왔다. 인간세계의 가지가지 일들과는 상관없이 들도 산도 신록으로 감싸여지고 울긋불긋한 갖가지 꽃

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봄날이었다.

조선학교 교문에 함께 들어선 나와 성구앞에 봄빛처럼 환한 웃음뎌 차렬이가 불쑥 나타났다.

《소환이, 성구,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총련을 무어주셨대! 우리 이역만리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셨대!》 이렇게 볼썽듯 부르짖는 차렬의 빛나는 눈동자에는 구슬같은 눈물이 솟구치었다.

《우리 **김일성**장군님께서?》

《총련을?!... 공화국공민이라고?!...》

나와 성구는 저저마다 경탄하여 물었다.

걱정에 차념친 차렬의 오른손에는 도포에 있는 형님한테서 온 지급편지와 함께 신문 한장이 쥐여져있었다.

우리는 그때 총련의 의미를 다는 몰랐지만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어주신 조직이라는 그것으로 하여 가슴은 마냥 부풀기만 하였다.

서로 손을 맞잡고 울고 웃으며 만세를 부르던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듯 빛나는 시선을 모두였다.

공화국의 공민된 재일동포들의 감격과 격정에 굽이치던 그날 우리 셋은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상룡의 묘소를 찾았다.

오늘을 그리며 그리도 뜨겁게 우리를 이끌었던 그의 모습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진한 향기를 풍기는 정향꽃다발을 묘비앞에 놓는 선생님의 손은 저어기 떨리었다.

(우리는 드디어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었다!)

이렇게 심장깊이 새기는 우리의 작은 가슴에는 어

《우리에게는 지금 어두운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없구나. 이 거치른 이국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다면 일본의 반동놈들도 이렇게까지지는 날치지 못할것이다.

길가의 조약돌처럼 밟히는 이역살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형님이 숨지면서 신신당부한 꽃망울같은 사랑하는 상룡이의 운명마저 지켜주지 못해 아침이슬처럼 지게 한 자신이 원통하고 혐오스럽기 그지없다.

아...미래의 꽃봉오리인 너희들의 운명은 또... 누가, 누가 지켜줄텐가... 암흑을, 비운을 밀어제기는 해빛이, 광명이 그립다.》

(아, 상룡은 선생님의 조카였구나!... 선생님!)

나는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장례식날 하모니카를 끌어보던 선생님의 비통한 모습을 그려보았다. 차렬이와 성구의 흐느낌소리가 방안에 간간이 돌리었다.

곡절많은 엄혹한 현실은 어린 우리들의 뜨거운 우정에도 사정없이 찬물을 들썩였다.

며칠후 한 청년에게서 우리는 또다시 뼈라붙이는 임무를 받았다.

상룡도 담임선생도 없는 때여서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였다. 더우기 《요시다내각을 타도하자!》 《일본반동경찰은 해산하라!》라는 구호의 내용도 어떤지 깨름직하였다. 조선학교탈환투쟁때의 의

로운 마음과는 달리 마음이 켜기였다....

목적지로 가는 고요한 밤길이었다.

《성구, 우리가 이 뼈라를 붙여야 하겠니?》

사려깊은 키다리 차렬의 물음이었다.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 벌써 조선소년의 명예와 용맹을 잊었니? 그게 무슨 연약한 소리가?》

성급한 성구의 말소리는 벌써 높아졌다.

《그저 욕먹거리지만 말라! 담임선생님한테라도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어봤으면 해서 그런다. 뼈라내용이 이전과는 다르지 않니.》

《그럼 너는 어쩌자는건가? 무슨 뽕족한 수라도 있는가?》

《나도 그건 딱히 모르지만 지나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물러서는건 비겁쟁이야 비겁쟁이!》

성구의 말은 대뜸 거칠어졌다.

《함부로 깔보지 말라! 잘 생각해보는것도 비겁쟁인가! 눈먼 하늘소처럼 혼자 우쭐렁거리면서...》

《뭐, 눈먼 하늘소처럼 우쭐렁댄다고! 야-너처럼 우물쭈물 굴지말라. 그러다 우리 일을 다 망치겠다. 애당초 예서 썩 사라져! 소환아, 차렬인 때놓고가자. 변절자같은것!》

《변절자라고 흥! 마음대로 고아대라! 길인지 함정인지 가리지 않고 덤비기만 하면 단가! 눈튼 참봉처럼.》

《눈튼 참봉? 야-진짜 말 다했어!》

나는 당장 주먹질을 할듯 눈알을 부라리며 맞서는 둘사이를 겨우 떼놓았다.

불잡은 나의 손을 뺏 버린 차렬이는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성구는 씩씩 황소숨을 몰아쉬며 분김을 삭이지 못해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는 땅속깊이 잦아드는듯 기운이 쏙 빠졌다.

제살을 베어주어도 아가와하지 않던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살뜰하던 동무들인가. 현대 오늘은 왜 원쑤진것처럼 티각태각 기를 쓰고 맞서는가?

나는 성구가 앓는 차렬이를 위하여 밤새껏 벌둥지를 쭈시다 이마의 군데군데를 벌침에 쏘여 통통 부어오르면서도 끝내 반사발되는 산꼴을 얻어다 마시게 하던 일을 뜨겁게 회상하였다.

차렬이 또한 성구의 수학공부를 도와주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수십명의 일본아이들과 둘싸움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서로 제몸을 아끼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 용감히 싸워이기지 않았던가. 친형제와 같은 우리들사이가 요즈음 왜 자꾸만 버그러지는가? 아...

세월이 흘러흘러 락엽이 덧쌓여 봄이 찾아왔다.

인간세계의 가지가지 일들과는 상관없이 들도 산도 신록으로 감싸여지고 울긋불긋한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봄날이었다.

조선학교 교문에 함께 들어선 나와 성구앞에 봄빛처럼 환한 웃음뎌 차렬이가 불쑥 나타났다.

《소환이, 성구,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총련을 무어주셨대! 우리 이역만리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셨대!》 이렇게 불뿔듯 부르짖는 차렬의 빛나는 눈동자에는 구슬같은 눈물이 솟구치었다.

《우리 김일성장군님께서?》

《총련을?!... 공화국공민이라고?!...》

나와 성구는 저저마다 경탄하여 물었다.

걱정에 차념친 차렬의 오른손에는 도표에 있는 형님한테서 온 지급편지와 함께 신문 한장이 쥐여져있었다.

우리는 그때 총련의 의미를 다는 몰랐지만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어주신 조직이라는 그것으로 하여 가슴은 마냥 부풀기만 하였다.

서로 손을 맞잡고 울고 웃으며 만세를 부르던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듯 빛나는 시선을 모두었다.

공화국의 공민된 재일동포들의 감격과 걱정애 굽이치던 그날 우리 셋은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상룡의 묘소를 찾았다.

오늘을 그리며 그리도 뜨겁게 우리를 이끌어주던 그의 모습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진한 향기를 풍기는 정향꽃다발을 묘비앞에 놓은 선생님의 손은 저으기 떨리었다.

(우리는 드디어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였다!)

이렇게 심장깊이 새기는 우리의 작은 가슴에는 어느덧 저멀리 어머니조국의 하늘이 끝없이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

세월이 흘러 모든것은 변하여도 그날 상룡의 묘소앞에서 다진 우리의 약속은 변치 않았다.

(성구, 차렬이가 교수, 박사가 되다니! 이 크나큰 행복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온것인가. 그렇다. 그것은 넓디넓은 바다의 품, 뜨겁고 뜨거운 태양의 품,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의 품에서 굽이쳐온것이리라!)

어느덧 고층건물이 즐비한 통일거리를 지나 창성의 다리위로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나는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다.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 우리의 뜻깊은 상봉을 축복하듯 대동강의 물소리도 소연하였다.

아침에 대한 생각

-한 외국기자의 수기-

김동철

내 탐방기자로서
이라크땅에 들어섰던 아침이었다
황-황-
포탄이 튀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아침

하늘엔 독수리같은 폭격기들
땅에서는 와룡와룡 흙밥을 물어뜯으며
미친듯이 달려오는 탱크들
번개치며 날아가는 미싸일들

분노의 총탄을
침략자들에게 안기며
한 군인은 말하더라
평화롭고 즐거웠던
바그다드의 아침이
화약내 풍기는
아침으로 되었다고

한결음, 두결음의 양보가
원썩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을 빼앗겼는가
땅을 지며 통분해하던 말이
왜 그리도 내 가슴을 찔던가

가슴아픈 그 목소리 새겨들으며
내 여기 조선에 와
평양에 들어서니
아, 평양은

평양의 아침엔
대동강의 해돋이가 시작되며
새들의 고운 노래
하늘가에 울려 퍼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양의 아침인가
맑은 공기, 따듯한 햇빛
광장을 날으는 흰 비둘기떼
대동강반에 찰싹이는 은빛물결
환희와 즐거움에 넘쳐
사람들은 밝게 웃으며 걸어간다

아침이 있어야 낮이 있고 밤이 있듯
누구나 날마다 제일먼저 맞는
아침은 하늘이며 땅!
태양의 빛으로 밝아오는
삶의 무궁한 세계!

그렇구나 아침...
선군의 붉은 기폭이
그 아침을 말해주누나
가슴치며 새겨주누나
총대가 흔들려보라
아침이 있겠는가
해쏜는 아침이
저절로 밝아올수 있겠는가

위대한 령장을 모시지 못한다면
환희와 기쁨의 아침도
원썩들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는 아침의 거리여

부러워라
아름다운 평양의 아침이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선군의 총대속에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더욱 환희로운 기쁨에 넘친
오, 사랑하는 수도의 아침이여!

달과 등판

한웅빈

하늘에는 얼럭덜럭한 구름장들이 찢어진 냇마
쪼각들처럼 마구 널려있었다.

그 구름장들사이로 달이란 놈이 도망군처럼 분
주히 달음질치고있었다.

지난밤에는 양푼처럼 등글하던 놈이 오늘밤에
는 어데서 물어뜯기웠는지 한쪽옆이 움푹하니 패
워들어갔다.

그놈은 겁에 질린듯 창백하고 차거운 빛으로
떨면서 달음질치고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히 달음질치면서도 어찌된
셈인지 그냥 머리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저놈은 쇠사슬에 매이지도 않았는데 왜 저 모
양일가 볼수록 화가 났다.

황둥이는 그놈을 향해 켑-켑-하고 냅다 짚어주
었다.

썩 사라져! 보기도 싫다!

달이란 놈은 깜짝 놀랜듯 구름장뒤로 머리를
쳐박는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나. 한바탕 더 짚어주려
는데 방 안에서 날선 목소리가 켑- 하고 날아나왔다.

《저 쌍놈의 개새끼!!》

황둥이는 와들 움츠러들어 얼른 쭈그리고 앉아
버렸다.

젠장 내가 언제 저들에게 무슨 죄라도 저질렀
단 말인가.

황둥이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방문을 울분에 차
서 노려보았다.

천만에, 오히려 그 반대이다.

술주정뱅이 주인을 제가 타죽으면서 산불에서
구원한 개처럼 한적은 없지만 평생을 두고 밤잠
을 제대로 못자며 집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저들은 하는 일없이 쥐나 몇마리 잡는
것이 고작인 고양이는 아래목에 앉히고 흰쌀밥에
고기반찬만 먹이는데 하면 먹고 잠자는것이 하
는 일의 전부인 돼지는 늘상 배가 북통처럼 되게
먹여주면서도 황둥이에게는 언제 한번 따뜻한
잠자리나 푸짐한 먹이를 준적이 없었다.

그뿐인가. 이 세상 너절한데다가는 레외없이
황둥이네 족속의 이름을 끌어다붙인다.

싸우거나 욕질할 때도 《개같은 놈》, 《개자식》,
《개새끼》, 일이 잘 안되어도 《개관》, 《개갈
은 놈의 세상》, 《개꿈》 ...또 찍하면 밭길질하
고 욕질이다.

짚으면 짚는다고 안짚으면 안짚는다고...

그러나 그쯤이라면 황둥이가 이렇게 울분에 차
서 방문을 노려보고 달에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
았을것이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몸이었다.

그에 대한 《사형선고》는 저 방 안에서 내려졌
었다.

그렇다. 황둥이는 지금 죽을 때를 기다리고있
었다.

앞으로 목숨이 몇시간이나 더 붙어있을런지는
그자신도 몰랐다.

똑똑히 아는것은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것뿐이
었다.

지난밤에 그는 주인령감의 두 아들놈이 하품을
하며 《저놈을 잡아치웁시다. 때없이 켑켑대니
가뜩이나 어수선했던 판에 가슴이 덜컥거려서 원.》
《그래 잡아치우고 말자!》

하고 말하는것을 명백히 들었었다.

주인령감은 그를 짚으라고 여기에 매놓았는데
아들놈들은 짚는다고 잡아치우겠다는것이였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개라 해도 너무하다!

황둥이는 가슴에서 터져나오려는 으르렁거림을
가까스로 삼키며 방문을 노려보았다.

쇠사슬만 아니면 벌써 십리밖으로 도망쳐버렸
을것이다.

그놈의 쇠사슬은 이발이 다 부스러지도록 깨물
었으나 끄떡도 없었다.

꿈쩍못하고 죽는수밖에 없었다.

황둥이의 가슴속에서는 으르렁거림과 함께 꼬-
웅 하는 신음소리가 울려나왔다.

황둥이는 원래는 누런 털에 보기 좋게 생긴 위
풍이있었다.

그가 한바탕 짚어떨 때면 온 마당과 집대문까
지 켑켑 울렸고 도적들은 꿈쩍도 못했다.

누구나 그를 무서워 했다.

주인령감은 그를 몇번이나 집 잘 지킨다고 칭
찬했고 고기뼈다귀도 상으로 주었다.

물론 주인령감이 뜯어먹고 고양이란놈이 뜯어
먹고 남긴 반반한 뼈다귀이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죽을 때를 기다리는 신
세가 된것이다.

이게 다 저 못된 이 집 두 아들놈때문이다.

황둥이는 불빛이 뻗한 방문을 다시 한번 노려
보았다.

방문앞 마루에는 세켈레의 신발이 놓여있었다.

두켈레는 송아지냄새를 풍기는 가죽구두인데
두 아들놈의것이고 한켈레는 배같이 생긴 백고무
신인데 지금 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주인령감의것
이다. 백고무신이란놈은 주인령감의 발에 꿰여
있을 때는 까닭도 없이 황둥이의 옆구리를 걷어
차며 꽤나 우쭐렁대더니 지금은 신세가 말이 아
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썩다.

그놈은 그 먼지를 털어보지 못하고 주인령감과

함께 땅속으로 들어갈것이다.

황둥이는 어제밤에 벌써 방문이 여닫길 때마다 뚫겨나오는 주인령감의 냄새에서 시체냄새를 감촉하였다.

그 냄새는 며칠째 황둥이를 괴롭히고있는 원인을 알수 없는 곰팡이냄새보다 더 강렬했다.

말이 낫으니 말이지만 이 곰팡이냄새는 원래는 주인령감의 방에서 풍기던 냄새였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황둥이의 발밑으로 옮겨왔다.

정말 모든것이 요지경속 같았다.

그런데 두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령감의 머리맡에서 령감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정신차려요!》

《절 모르겠어요? 만이예요!》

정신차리라구? 흥! 황둥이는 코웃음을 쳤다.

시체냄새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따위를 코라고 얼굴복판에 달고다니는 한심한것들!

저렇게 머리맡을 지키고있는것만도 벌써 사흘째나 된다.

잠도 자지 않고...

황둥이는 그것이 어이없는 헛수고라는것을 잘 알고있었지만 행여나 하고 귀를 기울여보곤 하였다.

그는 령감이 살아났으면 하고 바라고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죽지 않을것이기때문이었다.

황둥이를 바로 이 곰팡이냄새나는 자리에 쇠사슬로 매놓은것은 주인령감이였다.

떠나지 말고 사납게 짚어대라고 매놓은것이였다.

그러니 령감이 살아나면 황둥이를 없애치우려는 아들놈들을 혼쌀내려 할것이 불보듯 명백했다.

혼쌀내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내쫓아버릴것이다.

에익, 령감만 살아났으면! 나직이 으르렁거렸다.

여름에 허바닥을 내밀어 더위를 뽐듯이 으르렁거려 울분을 조금이라도 내뿜지 않으면 미칠것만 같았다. 지금 그의 배속에는 으르렁거림이 가득 차있었다.

더우기 저 아들놈들의 손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당장 미칠 지경이였다.

흠울려면 두 아들놈은 황둥이에게 귀잡고 절을 해야 할것이였다...

두해전 일인데 두 아들놈은 도박에서 빚을 졌다며 령감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눈알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야단을 맞았다.

《네놈새끼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개새끼한테 주겠다. 쌍놈의 새끼들!》

그날밤 황둥이는 쥐냄새와 먼지냄새나는 마루 밑에 엎드려있다가 자정이 지났을무렵 담장밖에서

서 맴도는 웬발자국소리를 듣고 슬며시 기어나왔다.

황둥이는 눈보다 귀를 더 믿었고 귀보다 코를 더 믿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는 코를 쳐들었다.

담장을 넘어 불어드는 바람에 수상쩍은 냄새가 실려왔다.

도적이다. 도적놈의 냄새다!

그가 막 힘껏 짚어대려고 머리를 쳐드는데 방문이 열리며 두 아들놈이 나왔다.

그것들은 첫 소리를 내며 황둥이의 목을 툭툭 두드렸다. 짚지 말라는 뜻이였다.

세상이 다 아는바이지만 개들에게는 주인의 뜻이 곧 법이다.

황둥이도 개들의 법도대로 입을 다물고 꼬리를 흔들었다.

두 아들놈은 웬 보통이를 들고있었는데 거기서는 곰팡이냄새와 먼지냄새가 풍겼다.

그것들은 대문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나갔다.

담장밖의 수상쩍은 소리와 냄새는 그들을 따라 사라졌다.

좀 이상스럽기는 했지만 어떻게 자기들의 법도대로한 황둥이는 안심하고 도로 마루밑에 기여들여갔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황둥이는 도적놈들을 잡지 못했다고 주인령감의 발길에 스무번도 더 채우며 쫓겨다녔다.

먹을것도 주지 않았다.

간밤에 두 아들놈이 땅문서라는것과 돈을 한몽테기 훔쳐가지고 도망쳤다는것때문이었다.

《도적놈도 못잡는 바보같은놈!》

황둥이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었다.

지난밤에 나간거야 두 아들놈들이지 도적놈들인가. 그들은 생김새도 냄새도 주인령감과 같았다.

그렇지만 주인이 먹을것을 안주니 굶고 때리니 맞을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 이해할수 없는 일은 그날 점심때가 지났을무렵에 일어났다.

아침부터 출출 굶은채 굴뚝모퉁이에 엎드려 있던 황둥이는 대문가로 가까와오는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그는 귀를 쫑긋 일으켜세웠다.

뒤이어 코를 쳐들었다.

목덜미 저절로 부르르 일어섰다.

전날밤 담장밖을 에돌던 그 소리, 그 냄새였다.

곧 대문가에 검은옷입은 자들이 두명 나타났다.

황둥이는 쏜살같이 달려나가며 목청껏 짚었다.

그의 귀와 코는 이자들이 바로 지난밤의 《그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었다.

모를줄 알았지, 이놈들! 그러나 나는 못속인다.

그는 요란스런 짓음으로 《주인님! 이놈들이요! 이놈들이 어제밤의 도적놈들이요! 빨리빨리 잡

령감이 그를 노상 울안에만 잡아두는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다.

두 아들은 이태동안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더니 사흘전에 불쑥 나타났다.

그때는 주인령감이 인사불성이 된지 이미 한주일되었을 때였다.

혹시령감이 그렇게 되기를 어디서 지켜보고있을것인지도 몰랐다.

그 이태동안에 얼마나 효자가 되었는지 사흘동안령감의 머리맡에서 떠나지 않고 제발 살아나달라고 찾고 불러댄다.

황동이는 그만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주인령감이 만일 살아난다면 나도 죽지 않게 될것이다 하고 황동이는 다시 생각했다.

령감은 보름전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여기 방문앞 마루아래에 그를 끌어다 사슬로 매놓았다.

그리고는 하루에도 열번나마 내다보며 누구도 황동이를 다른데로 옮겨가지 못하게 했다.

황동이는 자기가 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알수없었다.

지금도 역시 알수 없었다.

다만 주인령감이 그것을 바란다는것만 알뿐이었다.

그러니령감이 만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면 아들이 황동이를 잡아치우게 내버려둘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령감은 어제부터 벌써 시체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의원이라는령감은 엉터리없는 소리를 하며 엉터리없는 약만 쓰고있었다.

중풍이요 뭐요 하면서 침통을 꺼내고 무슨 탕이요, 무슨 환이요 하는 약들을 쌓아놓는데 황동이는 엉터리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아들놈들이나 의원이나령감이 죽게 된것은 중풍때문이라고 하지만 황동이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령감은 몇달전부터 눈에 띄게 여위기 시작하더니 대엿새전에는 뼈만 남아서 쓰러져버렸던것이다. 그것은 몇달전까지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다.

원래 주인령감은 굉장히 건강한 뚱뚱보였고 앓는 법이란 애당초 몰랐었다.

황동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는 어덴지 알수없는 먼 마을에서 태어났었다.)제일 놀랐던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나 담장을 둘러친 넓은 마당이나 한두개만이 아닌 큰 고간들보다도 굉장히 뚱뚱한 주인령감의 몸이었다.

두볼은 물을 잔뜩 문뜩 불룩했고 코는 살이 너무 올라 큰 감자알처럼 둥그렀다.

황동이는 그가 밥과 국을 한번에 여라문그릇씩 하루에 열번나마 먹고 거의 하루종일 잠만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이 먹구 많이 자면 몸이 폭폭 나.》 하는 돼지란 놈의 말을 들은적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놈은 제 말대로 한바탕 찹찹대며 먹고 늘리지게 자고나면 폭폭 살이 찌군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령감은 황동이가 생각했던것처럼 많이 먹지 않았다.

하루에 세끼 그것도 한끼에 한그릇정도였다.

또한 잠도 많이 자지 않았다.

밤늦도록까지 앞에서도 말한 그 종이장들을 뒤지며 수판알을 달그락거렸고 날뵈기전부터 일어나 머슴들에게 소리지르며 마당을 돌아치군 했다.

돼지란 놈과는 아예 판판이었다.

낮잠자는 버릇도 별로 없었다.

낮잠대신 오막살이투성이인 마을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때가 더 많았다.

그 골목길로 말하면 비만 좀 내려도 진창에 황동이의 배꼽이 잠길 정도였고 달구지가 굴러갈때면 어찌 야단스레 덜커덩거리는지 분명 달구지만이 아니라 골목길까지 죄다 부서져 나가고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수 없는 길이었는데 주인령감은 그 골목길을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

도리어 점점 더 기력이 생겨나는듯 했다.

마을사람들은 왜서인지 주인령감을 굉장히 미워했다.《그놈의령감 급살이나 꼭 맞지!》하는 말을 황동이는 한두번만 듣지 않았다.

그러나 황동이의 눈으로 보기에 주인령감은 별로 고약해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그러운 편인것 같았다.

닭이나 잉어를 손에 든 작인들이 찾아와 땅을 몇해만 더 부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면 땅을 이미 다른사람에게 넘겼을 때도 단마디로 자르거나 큰소리치는 법이 별로 없었다.

(수틀리면 대뜸 이발을 드려내고 으르렁대는 황동이네와는 비슷치도 않았다.)

청원자를 울리훑어보고 내리훑어보고 하며 개구리 딱장벌레 삼킬 때처럼 한참씩 눈을 떴다감았다하는것이 보통이었다.

장리쌀때문에 찾아와도 마찬가지였다.

마루아래에 세워놓은채 먼 산을 쳐다보며 무슨 생각인지 끝없이 한다.

신문을 펼쳐들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신문을 첫대가리부터 끝까지 죄다 소리내여 읽는다.

다음에야 마루아래를 내려다보며 《자네 아직도 있었나?》하고 놀랜듯 말한다.

그런데도 마을에서는령감을 굉장히 미워했다.

개들까지도령감을 보면 미친듯이 짖어댔다.

그래서 황동이는 야 사람들은 너무 뚱뚱하고 건강하면 미워하는게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황동이가 피둥피둥 살만 찌는 돼지란 놈을 미워하듯이...

어떻든 주인령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뚱뚱보로 되어갔고 앓는 법도 없었다.

항상 여위어서 앓거나 죽어가는 소작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 몇달전부터는 갑자기 여위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지난해 여름부터였다.

황동이는 몇달전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동안에 달이란 놈이 여섯번 등그래졌다 찌그러졌다 했다는것만은 알고있었다.

모기가 굉장히 많았고 밤이면 반디불이 별찌처럼 날아다니고 장독대에서 귀뚜라미들이 약 오르게 툭-툭-거렸다.

낮에는 매미소리때문에 귀가 막 아왔다.

황동이가 마루밑에서 허를 빼물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담장밖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터졌다.

달음박질치는 소리와 찾고 부르는 소리, 떠들썩한 환성...

황동이는 놀래어 마루밑에서 기어나왔다.

대문을 열고 눈을 부라리며 호통칠령감을 쫓아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령감은 왜서인지 도리어 대문을 부랴부랴 닫아걸더니 방안에 들어가 방문까지 꼭꼭 닫아버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황동이는 담장안에서만 한바탕 짓을수밖에 없었다. 그때 삼돌이가 황동이의 목을 별스레 꼭 그러안으며 말했다.

《그만 짓어, 이 바보야. 왜놈이 망했던 말이야.》 왜놈이 망했다. 그게 어떤것인지는 황동이로서는 알수 없었으나 기색이나 어조로 보아 삼돌이는 무척 좋아하는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주인령감은 그와 반대였다.

담장밖으로는 좀체로 나가려 하지 않았고 황동이까지 담장밖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게 했다.

황동이는 《왜놈이 망한》바람에 담장안에서만 맴돌아야 했다.

주인령감은 때때로 담장을 넘겨다보거나 할뿐 그냥 방안에만 들어박혀 먹고는 자고 자고는 또 먹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몸은 점점 여위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내려 한두달사이에 주먹처럼 뭉투름하던 코가 새주둥이처럼 뽕죽해졌고 웃은 죄다 자루처럼 헐렁해져 허수아비같아졌다.

몇달이 지나자 주인령감은 훌쩍하고 여윈 좀두상으로 변해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일까? 먹고는 자고 자고나서는 또 먹고 하는데 도리어 여위다니...

황동이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다.

달라진것은 주인령감뿐이 아니었다.

늘쌍 대문이 터지게 밀려들던 쌀달구지들도 이해에는 길을 잊어버렸는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담장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냄새도 달라졌다. 기운찬 말소리, 웃음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냄새에 간혹 고기굽는 냄새까지 풍겨왔다.

그것은 의심할바 없이 담장밖에 와있는 《왜놈이 망했다》의 소리였고 냄새였다.

한편 주인령감은 방에 들어박혀 줄곧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지만 그냥 여위여갔다.

대엿새전에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 쓰러져버렸다. 실로 괴이한 《병》이었다!...

전에는 주인령감이 무엇을 먹었기에 그토록 뚱뚱보였을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못먹어서 저렇게 여위여 쓰러졌을가,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보니 황동이기도 모르게 먹는 무엇인가가 있었던것이 분명했다.

그 무엇인가는 틀림없이 존재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것이다...

주인령감에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것이다.

황동이는 의원이 그것을 찾아내주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그가 살것이기때문이다.)영러리침통이나 흔들여대니 가망이란 바이 없는것과 다름없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것이 만일 땅속에 있다면 황동이는 파헤집고라도 끄집어내고야 말았을것이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였을가?...

빌어먹을! 도망칠수만 있다면 황동이는 그따위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이놈의 죄사슬만 아니라면!

위낙 그는 이런저런 골치아픈 생각에 잠기거나 걱정따위를 싫어하는 무사태평한 성미였다.

개로 태어난 이상 주인을 따라다니고 주인이 하라는대로 하면 그만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무엇때문에 머리를 썩인단 말인가.

주면 먹고 안주면 배를 곏고. 설마 굶어죽게야 할라구.

그의 무사태평이 한번 크게 흔들린적이 있기는 했다.

그것도 황동이가 《미물》이라고 제일 멸시하던 돼지란 놈으로 해서였다.

배가 조금만 고평도 온 마당이 떠나가게 떠들어대는 그놈을 황동이는 언제나 미워했다.

귀가 막 아픈데다 삼돌이랑 머슴꾼들이 주인령감한테 야단을 맞고 매까지 맞기때문이었다.

돼지란 놈이 너무 떠들어대어 주인령감의 지평이가 삼돌이의 잔등을 석대나 두드려댄 날 황동이는 더는 참을수 없어서 그놈의 쌍나팔주둥이같은 코에 대고 한바탕 요란스레 짓어주었다.

《야 이 꼴꼴이놈아, 살이 찌면 그만큼 빨리 잡아먹힐텐데 왜 밤낮 먹을걸 달라구 지랄이야? 저 죽을것도 모르구!》

그러자 깜짝 놀랄줄 알았던 돼지란 놈은 꼴-하고 코웃음을 치며 뜨물방울을 끼얹어 황동이가 도리어 뒤걸음질치게 만들었다.

《바보는 너다. 내가 잘 먹지 않고 여위여만 바라. 그럼 못쓸 종자라고 당장 없애버릴거다. 그렇지만 많이 먹고 살이 찌면 더 살이 찌게 해서 잡

아 먹자고 할거란 말이야. 그러면 난 하루라도 더 살거구 안그래?》

듣고보니 그놈도 완전한 바보는 아니었다.

그때부터 황둥이에게는 먹을것을 달라고 짹-짹-거리리는 그놈의 소리가 《난 더 살고싶소! 살고싶단 말이요!》하는 소리로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나도 살찌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꿈틀꿈틀 살아나게 했다.

그러나 황둥이는 돼지처럼 살찔 팔자가 못되었다. 밥잠을 제대로 못자는것은 둘째치고 주인령감은 그에게 한번도 배부름만큼 먹을것을 못주게 하였다.

아무리 코를 쳐들고 꼬리를 흔들어도 느물느물 웃으며 내려다볼뿐이었다.

《배불리 먹이면 집을 못지켜! 잠만 잘것이지든!》하여 황둥이는 집만 잘 지키면 죽을 걱정은 없겠구나하고 안심해버렸다.

주인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개의 법도만 잘 지키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충실이고 법도고 다 나발이었다.

마당에서 득실거리던 닭, 오리, 돼지들이 하나 둘 없어지고 마름처럼 주인령감의 무릎에서만 가르릉대던 고양이란 놈까지 어젠가로 사라져버렸을 때 그도 도망쳐야 했을것이다.

담장을 넘어 도망친 삼돌이를 따라갔어야 하였다. 삼돌이가 나가버린 그날부터 황둥이는 줄곧 굶주려야 했다.

그때에야 황둥이는 비로소 이 집에서 자기의 주인이 삼돌이였음을 알았다.

삼돌이와 다름없는 이 집의 머슴이였음을 알았다. 밥잠을 못자며 집을 지켜도 차례지는것은 매와 주인들이 먹다버린 찌꺼기였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죽게 되었다.

아 아 며칠전에만 누가 자기의 주인인지를 깨달았어도 그는 삼돌이를 따라 도망쳤을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

누가 진짜 자기 주인인지를 몰랐던것에 대한 벌이었다...

집안밖은 조용했다.

의원령감도 돌아갔고 방안도 조용했다.

두 아들놈도 잠들어버린듯 했다.

달이란 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데 하늘은 마구 떠있는 크고작은 구름장들로 하여 일력덜력한게 마치 눈과 발이 제멋대로 뒤섞인 황새벌이 거꾸로 비친듯하였다.

그래서인지 하늘에서도 역시 황새벌이 죄다 들어가있던 궤통속의 곰팡이냄새가 풍기는것 같았다. 달이란 놈은 그 냄새가 싫지도 않은지 달음질치는 시늉만 할뿐 황둥이의 머리우에서 떠나지 않고있었다.

아마 저놈에게서도 곰팡이냄새가 날게다.

그 냄새는 황둥이의 코에까지 날아오고있다.

아니 아니다. 지금 그의 코에 몰려드는 곰팡이냄새는 그의 발밑에서 풍기는것이다.

이 저주로운 냄새가 그의 발밑에서 풍기기 시작할것은 돌이켜보면 열흘전부터였다...

열흘전 뒤울안에서 알미운 고양이놈을 또 혼내주려고 노리고있던 황둥이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마당으로 달려나왔었다.

마당에는 운신도 제대로 못하던령감이 나와있었다.

그는 황둥이의 목에 사슬을 걸더니 여기에 매놓았다. 그의 손에서는 곰팡이냄새와 함께 흙냄새가 풍겼다.

그때부터였다.

그때부터 곰팡이냄새가 그의 주위에서 물씬물씬 풍기기 시작했다.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었다.

머리우의 달만 아니라면 황둥이는 자기가 그 조그마한 궤통안에 갇혀버린것이라고 단정했을것이다...

다시한번 달이란 놈을 노려보는데 문득 방안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이상스레 느껴졌다.

결그렁결그렁거리는령감의 숨소리는 여전한데 찹찹거리는 두 아들의 숨소리는 잠든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다.

자는척하는 숨소리였다.

왜 자는척하는것일가?

황둥이는 엉거주춤 일어나 조금 열려 있는 방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말이가 슬며시 일어나앉는것이 보였다.

동생을 내려다보더니령감에게 다가왔었다. 한손으로령감의 상반신을 쳐들고 다른 손으로 밑에 깔려 있는 포단을 쳐들었다.

순간 황둥이는 깜짝 놀랐다.

자는척하던 둘째가 살며시 머리를 들더니 말이의 거드랑이사이로 포단밑을 날세게 들여다보는 때문이었다.

말이가 휙 머리를 돌렸다.

《영?!》

령감의 머리가 구들바닥에 돌처럼 탕하고 떨어졌다.

둘은 와들했으나령감은 진짜 돌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다.

《너 자는척 했구나?》

둘째는 방안에 누가 있길라도 한듯 휘-둘러보더니 방문을 꼭 닫았다.

방안은 황둥이의 눈앞에서 사라졌으나 말소리는 그냥 흘러나왔다.

《령감이 그런데다 감추었을게 뭐요?》

《령감이 살아나기는 할가?》

《살아났대야 한푼이라도 줄것 같소? 저승에가지라도 다 끌고갈령감인데... 땅문서구 돈이구 우리 손으루 찾아가지구 내뺄고 맙시다. 언젠까

지 이따위 <효자>놀음을 하고 있겠소? 농촌위원회에서 언제 밀려 올지 알겠소? 인차 토지개혁을 한다고 떠들어대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뒤이어 방안에서는 농작 뒤지는 소리가 덜컹덜컹 거렸다.

방문이 그 바람에 다시 반쯤 열린것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황둥이는 그제야 아들놈들이 찾아오고 살어나라고 머리맡을 지킨것이 무엇때문이었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래서 《효자》놀음을 했던것이다.

아 아 저런것들이 이제껏 나의 주인노릇을 했던말인가!

옷을줄 알았더라면 황둥이는 달을 쳐다보며 한바탕 실컷 웃어주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옷을줄 모르는 개였다.

황둥이는 옷을대신 그저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두 아들은 마침내 농작에서 퀘통을 끄집어냈다.

황새벌이 통채로 들어가있는 그 퀘통이었다.

주먹만한 자물쇠는 곧 떨어져나갔다.

퀘통이 열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퀘통은...

텅- 비어있었다.

종이장은 커녕 먼지 한점도 없었다. 말끔했다.

《엉?!》

《령감이 다른데 감춰구나!》

황둥이의 놀람은 그들보다 더 컸다.

퀘통안의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어데로?...

그러나 그놈에게 고유한 곰팡이냄새는 여전히 짙게 풍기고 있었다.

순간! 황둥이는 왜 자기의 주위에서 곰팡이냄새가 물씬물씬 풍겼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발밑의 땅, 그 땅속에서 숨새어나오는 냄새였다.

개들은 코가 눈보다 더 밝다.

그들은 코로써 세상을 더 많이 감득한다.

황둥이는 코구멍을 한껏 열었다.

그러자 발밑의 땅이 갑자기 유리처럼 투명해지는듯 했다.

그는 냄새로써 땅속깊이를 들여다보았다.

한뼘, 두뼘 깊이의 땅속에 묻혀있는 그 종이장들이 푹푹히 보였다.

그들은 그속에서도 변함없이 고약한 곰팡이냄새를 풍기고있었다.

황둥이는 코로써 그놈들을 푹푹히 보았다.

그러자 목구멍에서는 저절로 으르렁소리가 끓어올랐다. 그것때문에 그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신세가되었고 꼼짝없이 죽게 된것이다.

그것이 저주스러웠다. 증오스러웠다.

그것을 끄집어내어 갈기갈기 물어뜯어버려도 시원치 않을것 같았다.

황둥이는 발밑의 땅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

그때 담장밖에서 갑자기 떠들썩한 소음이 일어났다.

여럿의 놀랜 웨침소리와 달려가고 달려오는 발자국소리...

황둥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소리속에는 삼돌이의 발자국소리도 있었던것이다.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의 냄새도 풍겨왔다.

황둥이는 대가리를 쳐들고 왕왕 짖었다.

삼돌이를, 주인을 찾았다.

그는 황둥이를 살려줄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허나 황둥이의 부름소리는 담장밖에까지 울려가지는 못하고 방안에서 아들놈들만 불러 냈다.

《누구야?》

담장밖은 더 소란해 졌다.

그러더니 울음소리까지 들렸다.

황둥이는 놀랐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고 게다가 그가 거의 잊어가던 땀에 절고 고삭은 옷냄새까지 풍겨왔다.

모든것이 여섯달전으로 되돌아간듯 했다.

아들놈들은 담장가에 놀래여 서 있기만 하였다.

그때 방문 열리는 소리가 빼그덕했다.

황둥이는 방문쪽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뜻밖에도 《죽었던》령감이 되살아나 앙상한 손으로 문설주를 틀어잡고 꿈틀꿈틀 일어나고있는것을 보았다.

마치 관에서 일어나는 시체같았다.

령감은 마침내 푹푹히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아들놈들이 아니라 담장밖으로 향해있었다.

《저- 저게... 무슨 소리냐?》

《...》

아들놈들은 대답대신 담장속으로 파고들어가려는듯 담장에 붙어서서 얼굴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바라보기만 하고있었다.

귀신을 보고있는듯 했다.

그러나 황둥이는 그것이 귀신이 아니라 산 주인령감임을 알았다.

시체냄새가 풍기지 않았고 전과 같은 냄새가 풍겼다.

얼굴에는 철색까지 도는듯 했다.

《무슨 소리냐?》

담장밖에서 삼돌이의 목소리가 새처럼 떠올랐다.

《징용에 끌려갔던 배나무집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마음으로 달려가며 부르짖는듯 그 소리는 날아가는 새처럼 순식간에 멀어졌다.

황둥이는 맥을 잃고 주저앉아버렸다.

그의 삶도 멀리로 가버린것이다.
그러나 곧 황둥이에게는 다시 희망이 솟아올랐다.

령감이 살아났으니 그도 살게 되지 않았는가.
황둥이는 령감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령감은 나무토막처럼 쿵하고 방바닥에 넘어져버렸다.

《아버지!》

그제야 두 아들은 소리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황둥이는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었다.

령감은 죽었다.

그러나 나도 죽게 된다.

죽었던 령감이 어떻게 갑자기 살아날수 있었을까? 며칠전에 벌써 서 있을 기력도 없어 쓰러졌고 그동안 죽물 한모금 먹지 못한 령감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기까지 했다.

《저게 무슨 소리냐?》

그를 되살아나게 한것은 담장밖에서 들려온 울음소리였던것이 아닐까. 그리고 슬픔으로 인한 울음이 아니라는것을 알자 다시 쓰러져버렸다.

아들놈들이 땅문서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을 때 화병으로 죽어가던 령감을 일어나게 한것은 빗값으로 빼앗은 집과 종으로 끌어난 그 집의 작은딸이었다.

울고불고 하는 그 짐식구들과 오돌오돌 떠는 팔애를 한참이나 눈여겨보고나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었다.

그것이 만일 슬픔의 울음소리였다라면 령감은 쓰러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때도 담밖에 온것이 불행이였다더라면 다시 건강해지고 영양실조와 같은 증상에서 즉시 벗어났을수도 있다. 그러면...

황둥이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한 오한에 몸을 떨었다.

쇠사슬이 자라는것 뒤걸음질쳤다.

령감의 무서운 비밀을 깨달은때문이었다.

그렇다. 황둥이는 비로소 깨달았다.

마을에 가난과 불행이 움처럼 퍼져갈수록 똥똥해지고 기력이 넘쳐나던 주인령감, 그에게는 마을의 가난과 불행이 량식이였던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황둥이가 모르고있었던 《그 무엇》이었던것이 아닌가!

돌이켜볼수록 황둥이의 몸은 더욱더 와들와들 떨렸다.

발치에 엮드려있는 작인들을 내려다보며 한참씩 서있을 때, 마루아래서 손이야 발이야 비는 작인들을 올리훑고 내리훑고 하며 먹을것을 삼킬 때의 개구리처럼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그때는 곧 령감이 작인들의 가난과 불행으로 포식하는 시간이었다.

그때마다 그의 몸에는 살이 한근 두근씩 울랐을것이다.

너그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것은 될수록 더 많이, 더 오래 포식하기 위한것이였다.

밤늦도록 땅문서와 빗문서를 뒤지며 수판알을 달그락거린것 역시 그것이였다.

그는 그때 땅이나 돈을 계산한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 낼 가난과 불행을 계산했던것이다.

그것이 진짜배기 《식사》, 《식도락》이였다.

그러고보면 담장밖에서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울리던때부터 그는 줄곧 굶주린 셈이였다.

산해진미를 앞에 놓고도 굶주림에 허덕이였다.

마침내는 저 꼴로 되어버렸다.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는 일어나기까지 했었다. 허나...

아 아 어떻게 이럴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흡혈귀라는것이 있다는 말은 황둥이도 들은적이 있다.

또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마리도 모기도 있다.

등에도 있었고 진드기도 있었다.

황둥이는 그것들을 고양이보다도 더 증오했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먹고 살찌는 짐승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가 이 집에 들어와 줄곧 여위기만 한것도 령감때문이었다란 말인가.

불행하기만 했던 한생, 얻어맞고 욕먹고 굶은 배를 안고 쳐다볼 때 먹을것을 줄대신 느물느물 웃으며 내려다보기만 하던것도 그때문이었다.

배고파 허둥대는 황둥이를 보는것도 령감의 《식도락》이였던것이다.

바로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령감을 것처럼 증오했던것이다.

《급살이나 꼭 맞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있었다.

황둥이만 몰랐을뿐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령감이 황새벌도 달도 모두 궤통안에 잡아넣은것은 그로부터 생겨나는 가난과 불행을 포식하기 위해서였다.

탐욕이 배나 불리려면 하루세끼 밥 세그릇이면 그만인 아닌가. 끝없었던것도 그때문이었다.

황둥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주인령감의 피둥피둥한 살속에는 그의 불행으로 만들어진 살덩이도 있었을것이였다.

참을수없이 무서워졌다.

여직까지 령감이 살아나기를 바라던 황둥이였으나 이때는 살아날가봐 무서워졌다.

령감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령감이 다시 살아난다면... 아 아 무섭다!

황둥이는 있는 힘껏 내뿜었다.

쇠사슬이 그의 목을 꺾어지라고 잡아챘다.

그는 으르렁댔다.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마구 뛰어올랐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그를 미쳐 날뛰게 하였다.

아들놈들은 령감을 내버려두고 다시 집안을 뒤지는데 환장이 되어있었다.

구들바닥을 들추었고 천정을 쭈서땀고 벽을 두드려 무너뜨렸다.

구들바닥에 누워 있는 령감을 담벽이 무너지며 묻어 버렸다.

령감의 두다리가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켰다.

점점 더 무서워졌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적놈과 주인이 같은 냄새를 풍기고 남의 불행으로 살이 찌고...

쇠사슬에 잡아채워 나동그라지면서도 황둥이는 그냥 도망치려고 했고 목이 터지게 짖어댔다.

무섭다, 무섭다!

《이 쌍놈의 개새끼가 미쳤나?》

아들놈들은 방안에서 뛰어나와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황둥이는 더 목이 터지게 짖어댔다.

개새끼라구? 그래 나는 개새끼다.

너희들은 뭐냐? 네놈들은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짐승이다.

네놈들보다도 개새끼가 낫다.

열배 백배 낫다.

몽둥이는 비발치듯 그의 몸뚱이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마구 뛰어오르며 계속 짖어 댔다.

죽여라, 죽을 때까지 짖을테다!

《에익!》

힘껏 내려친 몽둥이가 그의 머리를 스쳐 쇠사슬에 떨어졌다.

쇠사슬이 툭하고 끊어졌다.

황둥이는 있는 힘껏 뛰어올랐다.

한달음에 담장우에 뛰어올랐고 밖으로 곤두박히며 떨어졌다.

그러나 어데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황둥이는 향방없이 내달렸다.

그러다가 문득! 삼돌의 냄새를 감촉했다.

열배 스무배로 힘이 솟았다.

흙냄새와 풀냄새...

황둥이는 그 냄새를 따라달렸다.

마음도 점차 가라앉았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어느새 자기 머리위에 따라와있는 달을 보았다.

한참 달리다가 다시 쳐다보니 역시 자기를 좇아와있었다.

아 저놈은 내가 담장안에서 벗어나길 기다리느라고 내 머리위에서 떠나지 않았던것이구나.

이제는 조금도 밍지 않았다.

황둥이는 달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삼돌이를 찾아 들판을 달리고 또 달렸다...

×

그때로부터 얼마후 황둥이는 삼돌이를 따라 그 집의 담장곁을 지나게 되었다.

대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황둥이는 조심스레 마당을 들여다보았다.

령감과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왜서인지 죽지 않았을것만 같았다.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있었는데 무슨 글인지 쓴것을 여기저기 붙이고있었고 무엇을 세우려는지 큰 말뚝을 박을 땅을 파고 있었다.

황둥이는 문득 곰팡이냄새를 감촉하였다.

그가 쇠사슬에 매여있었던 자리였던것이다.

얼마후 쇠통이 나왔다.

자물쇠가 떨어지고 쇠통이 열렸다.

사람들은 안을 들여다보더니 놀랜듯 서로 마주쳐다보기만 했다.

그때 갑자기 돌개바람이 휩 불면서 쇠통안의 종이장들을 말아올려 들판으로 실어갔다.

황둥이는 이제 모두들 기를 쓰며 좇아가리라고 생각했다.

주인령감이 아들들보다, 아들놈들이 애비의 목숨보다 더 크게 여겼던 《보물》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종이장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을뿐이었다.

좇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삼돌이도 역시 같았다.

그는 황둥이의 목덜미를 툭 쳤을뿐이었다.

《가자, 이 바보야!》

황둥이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왜 그들이 종이장을 그냥 내버려두는지...

황둥이가 알수 있는것은 다만 황새빌이 좁은 궤통안에서 놓여나왔다는 사실뿐이었다.

들판에서는 더는 먼지냄새와 곰팡이냄새가 풍기지 않았다.

싱그러운 풀냄새와 흙냄새, 달도 더는 한자리에서 맴돌지 않고 황둥이와 함께 달음질치곤 했다.

달도 들판도 마침내 제 자리에 돌아온것이였다.

다...

그러나 그후에도 황둥이는 들판을 쏘다니다가 오래된 물웅덩이와 해묵은 짚북데기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를 느낄 때면 목덜미털이 저절로 쭈뼛하고 일어서곤 하였다.

어찌 알랴 세상일이라는것을...

이제라도 슬픔과 불행, 가난이 또 머리를 쳐든다면 주인령감이 무덤속에서 다시 기여나올는지도 모른다.

달과 들판은 다시 궤통안에 들어가 곰팡이냄새를 풍기게 될것이고... 그런 짐승은 헛소리 죽지 않는다.

열번 스무번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마구 토막쳐놓아도 살아나는 거마리처럼...

황둥이는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다.

령감이 다시 기여나오지 못하게 무덤을 지키고 싶기도했지만 그는 그 무덤이 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럴 때면 황둥이는 인차 주인인 삼돌이의 발치에 앉아 그의 슬기로운 눈을 보며 안정을 찾곤

하였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알고있겠지. 다시 기여나오지 못하게 지켜낼거야.》

작가일화

시 한수로

목은 리색(1328~1396년)은 남다른 시적재능과 높은 기교로 하여 국내에는 물론 이웃나라에까지 이름을 남겼다.

그는 젊었을 때 원나라에 가서 뛰어난 문장과 창작적재능으로 하여 한림학사라는 그 나라의 벼슬까지 받은적이 있다. 그리하여 목은은 자주 원나라사람들과 시문장겨루기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원나라의 이름있는 문인들과 문장가들은 그의 시를 보고는 《목은의 시는 그 시상이 웅대 호방하고 그 격조가 우아하며 말과 뜻이 세련되고 웅심깊고 평원하여 세상에 으뜸이로다》라고 평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원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그를 시비하려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가 여러 문인들과 시문겨루기를 하고있었는데 그중 심술궂게 생긴 한사람이 문득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이쯤하고 바둑내기를 하는것이 어떠하오? 그리고 바둑겨루기에서 진 사람이 먼저 시 써주기를 약속함이 어떠하오?》

이 제의는 리색의 뛰어난 재주를 시답지 않게 여기던 원나라사람들의 찬성을 받았다.

(흥,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어디 보자!)

드디어 리색과 먼저 말꼭지를 댄 사람과의 바둑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며 하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조이고 손에 땀을 쥐게 하던 바둑경기는 거의 1시간이 걸려서야 리색이 이기는것으로 끝났다.

(웬일일까? 저렇게 수 높은 사람이 지다니?!)

이길듯싶던 원나라사람이 갑자기 지는데 의문을 품은 리색은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하였다.

《자, 그럼 어서 글귀를 떼시오.》

목은의 제촉에 간사스러운 눈을 요리조리 굴리며 힐끗 그를 쳐다보던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은 시구를 내놓았다.

잔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큰줄을 알렸다

(뭐? 잔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야 바다가 큰줄 안다고? 음, 네놈들이 그래서였구나.)

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문장가라고 해도 자기 나라가 큰줄을 모른다는 일종의 야유였고 조롱이었다. 리색은 뺨이 울긋 치밀었고 심한 모욕감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허, 명시중의 명시외다. 그럼 어디 나도 한수 지어볼가요?》

팔소매를 걷어 올리며 그는 근엄한 기색으로 붓을 들더니 일필휘지로 시 한수를 써놓았다.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는
하늘이 작다고 한다네

무턱대고 큰 나라의 제노라 하며 남을 깔보는 그자들을 하늘이 큰줄 모르고 날뛰는 우물안의 개구리에 비유하여 조소하는 리색의 야유였다.

어떤 시를 썼을가 하고 기웃하던 그들은 그만 입을 하- 벌리고 말았다. 자자구구 청통을 찌르는 예리한 비수였다.

남을 얕잡아보고 조롱하려다가 도리어 된벼락을 맞은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면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제가 한것이 있는지라 얼굴이 수수떡갈던 그자는 황황히 리색의 팔을 부여잡았다.

《이보시오 목은, 그쯤하오. 우리가 제발 잘못했소이다.》

그의 사죄에 다소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던 원나라사람들은 이때라 하고 종이와 붓을 걷어 들고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의 뛰어난 문장과 기교에 감복한 그 나라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스승으로 존대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강경순

노을비낚 대동강반에서

권오준

고기도 오는 길이 있다며
낚시터를 정해놓은 박령감님
노을비낚 대동강반의 이 새벽
큼직한 송어 또 낚아들고
노상 입을 다물지 못하네

-아무렴, 낚시에서야
내가 《세계선수권보유자》이지!

점잖던 박령감님
흥에 들떠 으시대니
정말이지 어린애가 된듯
요즈음엔 자랑주머니 달고 다니나봐

푸들찍거리는 송어
망태기에 담아들던 박령감님
그만에야 제자랑이 쏙스러운듯
뒤더수기 슬슬 어루쓰네
못잊을 지난날이 떠올라서...

...언제였던가
날바다를 막아 갑문을 세운다는
희한한 그 소식 전해졌을 때
낚시에호가인 박령감님
그만 실망했더랬다네

-갑문을 막으면

바다송어가 대동강에 어찌 오를가
그러나 아니할 근심이였지
거창한 갑문건설의 나날
해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작업장에 오신 우리의 장군님
손수 감탕바닥에 쪽쪽 줄을 그어주시며
곧게 열어주신 고기길

아, 세상에는 갑문도 많아
갑문언제우로
썩썩 자동차가 달리고
질풍같이 기차가 달리지만
그 언제 그 어디에 있었던가
갑문에 고기길이 열려진 전설같은 사실이

무엇을 하나 해도
인민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장군님 세상 처음으로
고기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야
어찌 농사군인 박령감님 낚시명수 되었을라구

종구나, 그 고기길따라
바다고기 강에 오르고
강고기 바다에 오르내리니
노을비낚 대동강반에
기쁨도 출렁
생각도 출렁출렁...